· 불교의 생활화
· 불교의 현대화
· 불교의 세계화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제 702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2년 10월 22일(음력 9월 24일) 수요일(주간)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14 선지식-혜산 스님



"장인의 비결은 바른생각과 안목"
9 산문밖의 선-최기영 대목장



"신도단체 도약 디딤돌…"
6 인터뷰-김의정 회장



"저 생명 어디서 왔을까"
13 강의실-황대권

'불심수도' 부산에 수행 바람

해운정사, 출·재가 600명 3박4일 철야정진…진제 스님 지도

'탁, 탁, 탁….'

나른한 오후의 정적을 가르는 죽비 소리에 수마(睡魔)를 견디지 못하던 사부대중이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다. 쉴 새 없이 지저귀던 참새도, 대숲에 스치는 바람도,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까지 묵언 중인 해운정사는 지금 참선 대용맹정진의 열기로 뜨겁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종교편향과 한반도를 강타한 미국발 경제 위기까지 혼란스러운 이때, 불심의 도시 부산 불교계가 수행불교로 거듭나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참선도량 부산 해운정사(조실 진제)는 10월 13~16일 3박4일간 참선철야 용맹정진을 실시했다. 남녀 재가불자 500명과 비구·비구니스님 100명까지 총 600여 사부대중이 한 자리에 모여 마주보고 앉아 화두삼매에 들었다. 스님과 재가자가 함께 정진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지만, 부처님 앞에서는 '다 함께 깨달음을 기약한' 수행자이기에 특별할 것도 없다.

첫날 입재식에서 진제 스님은 용맹정진에 참여한 대중에게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 던고?"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이어 스님은 "참가한 모든 대중은 과거 전생의 수승한 인연으로 견성의 분을 십분 갖추었으니 신심을 내어 화두가 3박4일간 순일해져 대장부의 활개를 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문이 끝나자 이들은 3박4일간 잠들지 않고 하루 20시간씩 참선에 몰입했다. 매 시간 조실스님이 직접 죽비로 경책하고, 오후 1시부터 3시간여 동안은 진제 스님이 조실방 문을 활짝 열고 수행자들의 공부도 점검해주었다.

해운정사는 1971년 산문을 연 이후 40여 년 넘게 '참나'를 찾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행자들이 찾고 있다. 이번 법회에 동반 참가한 김상배·김길자씨 부부는 진제 스님을 친견하기 위해 용맹정진을 결심했다. 또 어머니를 따라 왔다는 임종국(26) 학생은 한숨도 자지 않고 3박4일 참선을 해야 한다는 말에 걱정했지만 수계를 받기 위해 묵묵히 정진하기로 다짐했다.

45분의 참선 이후 15분간의 포행 시간에는 선방을 한 바퀴 돈다. 두 손을 배 밑에 포개 대고 굳은 어깨를 추스린다. 하지만 화두는 끝끝내 놓지 않는다. '참나는 어떤 것인가?'를 의심하고 또 의심한다. 그리고 또다시 참선이 반복된다. 시간이 지날 수록 졸음과 피로가 참가자들의 눈꺼풀과 어깨를 짓누른다.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눈이 감길라 치면 여지없이 죽비가 어깨를 내려친다. '탁!'하는 소리에 옆 사람까지 정신이 번쩍 든다. 이렇게 조실스님은 3박4일간 600여 사부대중과 함께 철야정진을 하며 직접 죽비를 들고 경책한 것이다.

진제 스님은 백양사 1차, 2차 무차선법회에 법주로 참석해 사부대중에게 선법을 열어 보이고, 2002년 해운정사에서 열린 한·중·일 국제무차선대법회를 통해 현대인에게 생활속 참선과 화두 수행으로 '참나'를 찾아가는 깨달음의 세계를 보여준 선지식으로 정평이 나있다.

스님은 "근래 인류가 직면한 격변과 재앙이 안타깝다. 세상이 어렵고 혼란할수록 자신의 내면을 갈무리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야하기 때문"이라며, "참선은 모든 중생심을 말끔히 씻어내는 것으로, 이번 용맹정진을 통해 모두가 자기를 성찰하고 큰 지혜를 밝혀 화합과 상생의 삶을 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날인 16일 오전 11시 원통보전에서는 회향 및 재가오계 수계식이 열렸다. 용맹정진에 참가한 600여 사부대중을 포함한 2000여 재가불자가 진제 스님으로부터 수계를 받음으로서 3박4일의 짧고도 굵은 수행결사는 회향을 맞았다.

해운정사는 앞으로 음력 9월 15일부터 18일까지를 참선철야용맹정진 기간으로 정하고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해운정사 조실 진제 스님이 제시한 '부모미생전 본래면목' 화두를 참구하는 출·재가 수행자들. 600여 수행자들은 10월 13~16일 잠을 자지 않고 용맹정진했다.



어르신들 산사 나들이 경기도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는 10월 15일 경내에서 의왕시와 함께 '제2회 의왕시 어르신 청계사 나들이'를 개최했다. 다양한 사회변화에 따른 노인의 인식개선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나들이에는 의왕시 전 지역에서 150여 명의 어르신이 참가해 천년고찰 청계사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고 다양한 공연을 관람했다. 박재완 기자

社 告 ■ 종교편향 근절 호법캠페인

"공공기관에 현대불교를 보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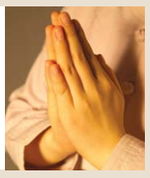
본사에서는 국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기관,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 공공기관에 현대불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한 장의 '호법보살'인 현대불교는 불교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포교기능과 종교편향 및 훼불 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불교를 외호하고 불법을 널리 전하는 최일선의 포교사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 대상
청와대 각부서/국회의원실/정부(15부 2처)/경찰청/지방자치단체/각급 교육기관/전국 공공도서관/군부대

법보시 후원 안내 문의 대표(02)2004-8200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행정안전부 주요 부서에 법보시 신문 발송>
독자께서 보내주신 법보시 후원금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실, 제1차관실, 제2차관실, 대변인실, 기획조정실, 지방행정국, 중앙공무원연수원, 국가기록원 등 주요부서에 본지 702호부터 발송합니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취급업무 : 민사·형사·가사·행정
강영화 변호사 | 031)436-3054 010-7504-4521





www.buddhabook.co.kr
02_3672_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숲 향산화 원액 100%"
청다향
부처님 제일공양 한국최초 식품과학 연구분석(동국대) 51가지 향기판명
덕유산 청다향 문의 055)941-1083



불가 최초생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관불·관욕 전용 관불수향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직영매장(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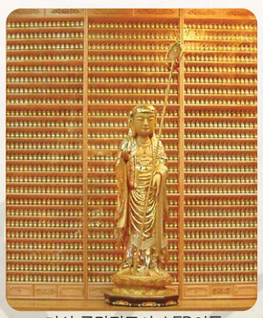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LED 인등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영가등 종등



만월등(주름등) 팔각봉축접등 종등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죽비와 목탁



김성우 취재부장
buddhapia5@hanmail.net

인재불사의 현주소

안양 보장사 주지 덕해 스님을 처음 뵌 것은 1999년. 보장사 청년회 활동을 취재 중 우연히 공양간에서 노스님을 뵈었다. 마침 겨울이었는데도 일흔이 넘은 노스님은 보일러가 고장이나 냉방에서 지내면서도 삼보정재를 아껴가며 보문 중·고등학교와 안양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후 3년이 지난 2002년 어느 날, 스님은 아직도 방의 보일러를 고치지 않은 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설립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었다. 故 관응 스님의 맏상좌이자 친조카이기도 한 스님의 원력과 무소유 실천행은 청정 승가의 사표가 되기에 충분했다.

다시 6년이 지난 지금, 76세의 고령임에도 도량 청소, 새벽 종성 등 행자들이 할만한 궂은 일을 몸소 실천하며 키워온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가 개교 6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6월 이사회의 황윤식 총장 해임으로 촉발된 학내 구성원들의 분열은 급기야 덕해 스님의 명예이사장 지위마저 박탈했다.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교수는 보직해임 되고, 재학생의 1/3에 달하는 학생 46명은 학교측의 등록거부로 제적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사회와 교수, 학생들이 각각 주장하는 경영권과 교수권, 학습권 보장이 나름의 이유를 가질 수 있겠지만, 학교 설립자의 지위를 박탈한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삼보정재를 아껴 학교를 당신의 분신과 같이 키운 공덕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경악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는 불교계 최초·최고의 대학원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해가는 시점이었기에 더욱 안타까움이 크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사태를 지켜보면서,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한국불교 인재양성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때마침 동국대교수회가 '오영교 총장 중간평가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동국대 교수 75%가 오 총장에 부정적이라는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총장 재신임 목소리까지 제기하는 것을 보니, 설상가상의 암울함이 느껴진다.

불교계는 조계종립 동국대와 중앙승가대를 비롯해 천태종립 금강대, 진각종립 위덕대 등 4년제 대학 네 곳과 서울불교대학원대, 태고종립 동방대학원대 등 대학원대학 두 곳을 운영중이다. 이웃종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육시설 마저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불교중흥은 고사하고 불교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자괴감이 든다. 종교편향사건으로 인해 인재불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교단차원의 교육시스템 확립과 관리 및 발전방안 수립이 발등의 불로 다가온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김송호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정부예산은 6.5%↑ 문화재예산은 1.5%↓

문화재보수 10%·보존관리예산 16.9% 축소

조계종 "문화재 예산 현실화해야" 논평

내년도 정부 예산안(총지출액기준)이 총 273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6.5% 증가하는 것과 달리 문화재청 예산은 1.5%(64억원) 줄어든 4천214억원으로 책정됐다.

문화재보수예산 10% 삭감, 동산건조물문화재보존관리 예산이 금년대비 16.9%나 축소된 데다 비지정문화재 보호방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불교계와 문화유산계가 반발하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10월8일 2009년도 정부예산(안) 중 문화재청 예산은 4214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대두한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예산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목조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에는 5개년 계획으로 총 1769억원이 연차 투입될 예정이다.

그 대상은 중요목조문화재 123개소, 사적 170개소, 중요민속자료 153개소 등이다. 이를 위해 책정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10억원) 보다 대폭 증액한 229억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인 내역은 국보·보물 등 중요 목조문화재 121개소에 대한 수막시설·방수총 등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160억원, 목조문화재 상시감시인력 배치 23억원, 궁능유적기관 방재시스템 확충 46억원 등이다.

문화재청은 또한 문화재지리정보(GIS) 활용체계의 조기 구축 등을 통한 매장문화재조사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고자 이 부분 예산으로 46억원을 지원한다. 또, 무형문화재보호사업에 금년(116억원) 보다 25억원(21.5%)이 증가한 141억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문화재 보수 및 보존관리 예산이 10~16%나 삭감돼 불교계 등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대변인 장적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10월 14일 '정부의 내년도 문화재 예산 삭감을 우려하며'란 제하의 논평을 내고, 정부의 문화재 정책에 실망감을 표하고 '문화재 예산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적 스님은 논평을 통해 "우리 종단은 문화재청 예산이 1.5% 감액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부의 문화재에 대한 안이한 인식에 깊은 실망을 표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장적 스님은 이어 "금년초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국보 1호 숭례문 방화사건과 2005년 낙산사 화재로 소중한 문화재가 전소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소중한 문화재를 잘 보존할 것을 거듭 다짐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계승 창달할 수 있도록 내년도 문화재 예산의 현실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10·27 위원회 민간위원 확정

원학·세영·삼보 스님 등 7명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10·27 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10·27위원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을 10월 2일 확정하고 위원명단을 국무총리실에 통보했다.

선정된 민간위원은 원학 스님(총무원 총무부장), 세영 스님(총무원 사회부장), 법타 스님(10·27법난명예회복추진위원장), 삼보 스님(10·27 법난명예회복추진위원)과 이근우 전 평택 청담정보통신고등학교장, 윤원호 전 국회의원, 허남오 전 병무청장 등 7명이다.

조계종이 국무총리실에 위촉인사 7명을 선정해 통보한 것은 국방부와의 민관합동TF팀이 시행령 공포 후에도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위원회 위원 11명 중 6명을 정부인사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국무총리실 위원회 구성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 상태로 위원회 구성 후 사무조직과 운영규칙 마련 등 10·27 명예회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진흥원, 군포교 발전기금 1억원 쾌척



대한불교진흥원 민병천 이사장은 10월 13일 이사장실에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일면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금(1억원) 전달식을 가졌다. 진흥원은 지난해 8월에도 군종교구에 군법당 건립과 군불교 발전기금 1억원을 쾌척했었다. 임연태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 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문의 : 02-2004-8279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비로자나불 무생계 수계대법회

합천 해인사, 25일 대적광전 도량에서



조계종 제12교구본사 합천 해인사(주지 선각)는 10월 25일 해인사 대적광전 앞 탑마당에서 '비로자나불 무생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전계대화상에 종정 법전 대종사(사진), 갈마아사리에 종진 스님(해인총림 율주), 교수아사리에 경성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을 모시고 봉행되는 무생계(無生戒) 수계대법회는 2005년부터 시작된 해인사만의 독특한 수계법회의 명칭.

2005년 발굴된 목조비로자나불 존상(현존 최고 목조불상)의 복장유물에서 발견된 지공화상의 '문수보살 무생계첩'에 의거, 작법을 복원해 현대인에 맞는 생활 규범으로 재조명한 것이다.

해인사 여해 스님(홍보미디어 국장)은 "무생계 수계법회는 종정스님께서 주관하는 국내유일의 보살계 수계법회다"며, "가야산 단풍 또한 절정을 이루는 시기에 많은 불자가족들이 참석해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055)934-3111

노덕현 기자

종지협, '제12회 종교문화축제'

10월 25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서

이웃종교의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한마당이 열린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7대 종교지도자 협의체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10월 25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12회 종교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청소년들아, 마음의 스승을 만나자'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생명의 나무 점등식'을 시작으로 '종교문화 골든벨', '청소년 예능경연대회', '종교 북까페'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각 종교별 3개씩 총 21개의 부스가 설치돼 사명대사, 손양원 목사 등 위인과 경전을 접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청소년 종교문화탐방단의 사진전시 및 UCC 동영상 상영과 사진작가들의 종교건축물 사진전, 소년소녀 종교연합합창단의 공연과 김장훈, 별, 자두, 웅산 등 인기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02)792-5040 노덕현 기자

포교원, 청소년 특화 간화선 보급 나서

집중력향상 등 학업능력 배양으로 포교 활성 기대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청소년 간화선 프로그램 '나를 찾는 선' 수련회를 개최한다. 10월 25~26일, 11월 8~9일 2차에 걸쳐 남양주 봉선사에서 시범운영되는 수련회에는 원철 스님과 무각 스님의 지도하에 화계사 학생회와 동대부중 재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수련회는 일반인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청소년에 맞춰 특화된 기초수행법을 보급하는데 의미가 있다. 참가한 청소년들은 호흡법부터 심성교육까지 수행의 전반적인 기초지식을 배우고, 학업에 도움이 되는 좌선과 명상법을 체험할 예정이다.

혜총 스님은 "간화선을 익힌 청소년들은 집중력·주의력 향상과, 학업스트레스 해소가 기대된다"며 "시범 실시 후 장단점을 보완해 더 많은 이들에게 폭넓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02)2011-1907 노덕현 기자

나라안정기원 및 불교중흥대법회

총 회 전 문

우리불교가 세상에 태어난지 2600여년 중국의 실크로드를 거쳐 이땅에 절래된지 1600여년이 흘렀으며 수많은 세월속에 시시비비를 거쳐 오늘에 이르러서는 1988년 5월 28일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고 수없이 많은 종단이 설립되어 단일교단으로써의 단결과 화합만이 불교를 발전시키고 영구히 보존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내적으로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를 실천하고 외적으로는 일불제자의 진면목을 보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종단간의 우호증진과 화합을 목적으로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를 창회하여 선포하노니 사부대중 2천만 불자는 합심단결하여 불법홍포에 전력을 다할지니라.

1989년 10월 일

창회자 일동
일붕 서경보 스님외 7인

임 원 진

총 재 인왕 신판석(세계불교승왕청 대표)
부 총 재 보리 현 광(대한불교달마선종 종정)
부 총 재 청원 박수웅(대한불교불광종 종정)
부 총 재 법각 지 오(대승불교조계종 원로원장)
부 총 재 신풍 안병천(대한불교대원종 종정)
회 장 의륜 서주범(근본불교조계종 창종주)
부 회 장 일산 법 진(호국불교호예종 종정)
부 회 장 청암 도한수(대한불교 총남종 종정)
부 회 장 만주 조성수(한국불교대불종 총무원장)
부 회 장 심향 법 장(구산선문회 회장)
부 회 장 연화 덕 산(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총무원장)
자문위원 대천 문연우(한국불교지장조계종 종정)
자문위원 월담 성 인(세계불교해동화엄종 종정)
자문위원 법봉 박순균(천지불교태극종 종정)
감 사 해천 최진형(현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이 사 청파 안종억(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이 사 해광 문동춘(대승불교달마종 총무원장)
이 사 혜성 정 일(한국불교근본해동종 총무원장)
이 사 안심 박영주(종단세계선불교 대표)
이 사 월단 (대한불교용화세계미륵종 대표)
이 사 향덕 박승억(대중불교조계종 대표)
이 사 혜일 윤중희(한국불교미륵선종 총무원장)
이 사 의천 권흥수(한국불교문화진흥원 회장)
이 사 혜덕 월 명(한국불교여래조계종 대표)
이 사 원각 한경수(대한불교서각종 총무원장)
이 사 태원 최진동(대한불교일월종 총무원장)
※회원명단은 홈페이지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법 회 안 내

◇ 일 시 : 2008년 11월 17일 월요일(음, 10월 20일) 12시
입장 : 11시 30분(식전행사) / 법요식 : 12시

◇ 장 소 : 서울팔레스호텔대연회장(강남고속터미널 뒷편)
☎ 02)2186-6867~9

◇ 주 최 :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서울 구로구 구로4동 732-2)

◇ 문 의 : 011-352-7751 / 011-356-3427 /
팩스 02)3281-0108

◇ 자세한 내용은 연합불교방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CBC108.co.kr/TV 연 합 불 교 방 송 108TV.COM TV108.COM 108iTV.COM 108BTV.COM



전국비구니회, 보살계 수계산림 봉행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스님)는 10월 12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대법당에서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 초청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김성우 기자

오영교 총장 리더십에 빨간불

동국대교수회 설문 결과, 10개 문항 전부 부정적

중앙일보가 이달 초 발표한 '2008 전국대학평가' 결과 동국대(총장 오영교)의 종합순위는 28위였다. 경희대(10위), 중앙대(14위), 건국대(16위), 카톨릭대(19위)와는 점수와 등수 모두 크게 뒤쳐진 사실에 오영교 총장의 리더쉽에 문제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동국대 교수 75%가 오영교 총장에 부정적이라는 설문결과가 나와, 오영교 총장에 대해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됐다.

동국대 교수회(회장 유덕기)는 10월 14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교수회 임시총회를 열고 오영교 총장 중간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9월 5~26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전임강사 이상 교원 34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245명으로 응답율 70.6%를 기록했다. ▲오영교 총장의 능력과 자질 ▲교육의 본질 ▲구성원 의견 수렴 ▲제도의 학교발전 기여 ▲108프로젝트 학교발전 기여 ▲발전기금 성과 등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10개 문항 전체에서 평균 81%(최하62.3~최고92.7%)의 강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오영교 총장이 강조하던 학내구성원간 소통도 교수회와는 불통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성원 의견 수렴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4.5%가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오 총장의 학교행정 전반에 관해서는 82.2%, 108프로젝트는 62.3%가 부정적이었다. 총장의 대외활동에 대해서도 90.2%가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92.7%가 학교당국이 교수회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오영교 총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엇갈렸다. 원칙적으로 부정적(84.2%)이지만 44.4%가 기존정책 철회 후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39.8%가 즉각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덕기 교수회장은 "조사결과 자체가 총장의 불신임을 뜻한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현실화시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 말했다. 교수회는 금명간 대의원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지속적으로 오영교 총장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박서진 팀장(경영관리실 CS경영팀)은 "의견수렴이 잘못됐다는 데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오영교 총장만큼 학내구성원과 소통하고 있는 총장은 없었다"면서, "교수의 CS광장 이용율이 3%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시스템 자체는 열려있으나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촛불농성단 8명 조계사서 수계

조계사에서 농성중인 촛불수배자 8명은 천막농성 99일째인 10월 11일 조계사에서 수계법회에 참석해 불교에 귀의했다.

이번 수계법회는 불교청년학생단체연석회의, 조계사 촛불수행단이 주최한 '조계사 촛불수행 100일 대동한마당'의 일환으로,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이 계사를 맡아 연비의식을 진행했다.

수계법회에서 촛불수배자 8명은 진묵, 진경, 진연 등 '진(眞)'자로 시작되는 법명을 받았다. 청화 스님은 "밖에서는 수배자일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수행자들"이라며 "수계의 의미를 깊이 새겨 폭넓은 이해력을 갖춘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분열'

이사회 내홍 교수 · 학생 반발…46명 제적위기

'붓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정신과학계의 명문대학'을 목표로 2002년 개교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가 개교 6년 만에 학내구성원 분열로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6월 이사회의 황윤식 총장 해임으로 촉발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사태는 해임된 황윤식 총장의 복직과 직위해제를 반복했다. 그 사이 이사회에 대한 학내구성원의 불신의 골은 깊어졌고 급기야 학교 설립자인 덕해 스님의 명예이사장 지위도 박탈됐다.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교수는 보직해임 되고, 재학생의 1/3에 달하는 학생 46명은 학교 측의 등록거부로 제적당할 위기에 처했다.

학생들로 구성된 서불대 학원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0월 14일 서불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우려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문을 닫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권용식(요가치료학과 석사2년) 씨는 "등록 마감일인 9월 25일 학교 측이 입금계좌를 차단해 등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학생회장 문임숙(상담심리학과 석사2년) 씨는 "이사장 뜻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장과 명예이사장이 직위를 상실하고, 이에 반대하는 교수들 또한 직위를 위협받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수차례 학교 측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묵살됐다"고 말했다. 특별위는 '서불대 미등록학우 제적 반대, 교협 교수사직 및 해임 반대 서명'을 진행해 10월 15일 현재 재학 · 수료생 등 14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불대 교수협의회(회장 김명권, 이하 교협)도 10월 15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협은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라 ▲총장의 부당한 해임을 철회하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라 ▲이사회는 파행적인 학교운영을 철회하라는 내용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서정혜 교수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진행된 총장해임과 관련해 재학생의 3분의 1이 제적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불대 교학처장은 "이사회가 2008년초 황 총장이 몇몇 전임교수들과 의기투합해 재단 이사회를 전복하고 본교를 매각하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황 총장을 긴급 해임하고 학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현재의 학내분규는 황 총장과 일부 교수의 조직적인 음모 때문"이라 반발했다.

하지만 학교 측의 주장은 설립자 덕해 스님의 명예이사직 박탈과 재적학생의 1/3을 제적처분 하려했다는 강경한 대응으로 불교계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조동섭 · 김진성 기자

고교입학원서 종교란 신설

종자연, 교과부 정면 비판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이하 종자연)은 교육과학기술부가 10월 10일 고교입학배정원서에 종교란을 신설한 것에 대해 10월 14일 논평을 내고 강력히 비판했다.

종자연은 "고교입학원서에 종교란을 신설해 학생의 종교와 동일종교학교에 학생을 배정하겠다는 것은 학교 내 종교갈등 해결 보다, 학생의 종교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종자연은 이어 "939개 사학 중 종교사학은 227개로 그 중 개신교사학은 165개(72.4%)에 달한다"며, "학교의 종교성향 자체가 편중된 상황에서 종교성향을 고려한 학생배정은 편법에 불과하다. 강제적인 종교교육 근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종자연은 서울 상계동의 한 고등학교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명사강연을 빙자해 특정종교를 강연했다는 제보와 대전 모 국립대 내에 교회를 설치해 특정 종교활동을 장려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구독신청 · 기사제보
02-2004-8200

개운사 마애불 공사로 훼손 우려



안암동 개운사에서 60m 떨어진 곳에서 진행 중인 고려대 기숙사 신축공사를 두고 개운사와 성북구청, 고려대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개운사(주지 범해)는 "보타사 마애불(사진)이 고려대 기숙사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에 훼손될 수 있다"며 수차례 공사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성북구청과 고려대측은 법적(50m이내)으로 하자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 중이다. 조동섭 기자

천안 구룡사, 법화경 사경봉안 대법회 개최

11월 8일, 산사음악회 및 서화문화축전도 겸해

제주에서 20년 동안 매해 광복절만 되면 수 만명의 불자들과 함께 민족의 평화통일과 구국 안민을 위한 법화경 사경봉안 대법회를 봉행해 온 도림 스님(사진). 서울 법화정사와 제주 평화통일불사리탑, 천안 구룡사 회주인 도림 스님이 이번에는 천안 구룡사에서 1만여명 이상이 동참하는 법화경 사경봉안 대법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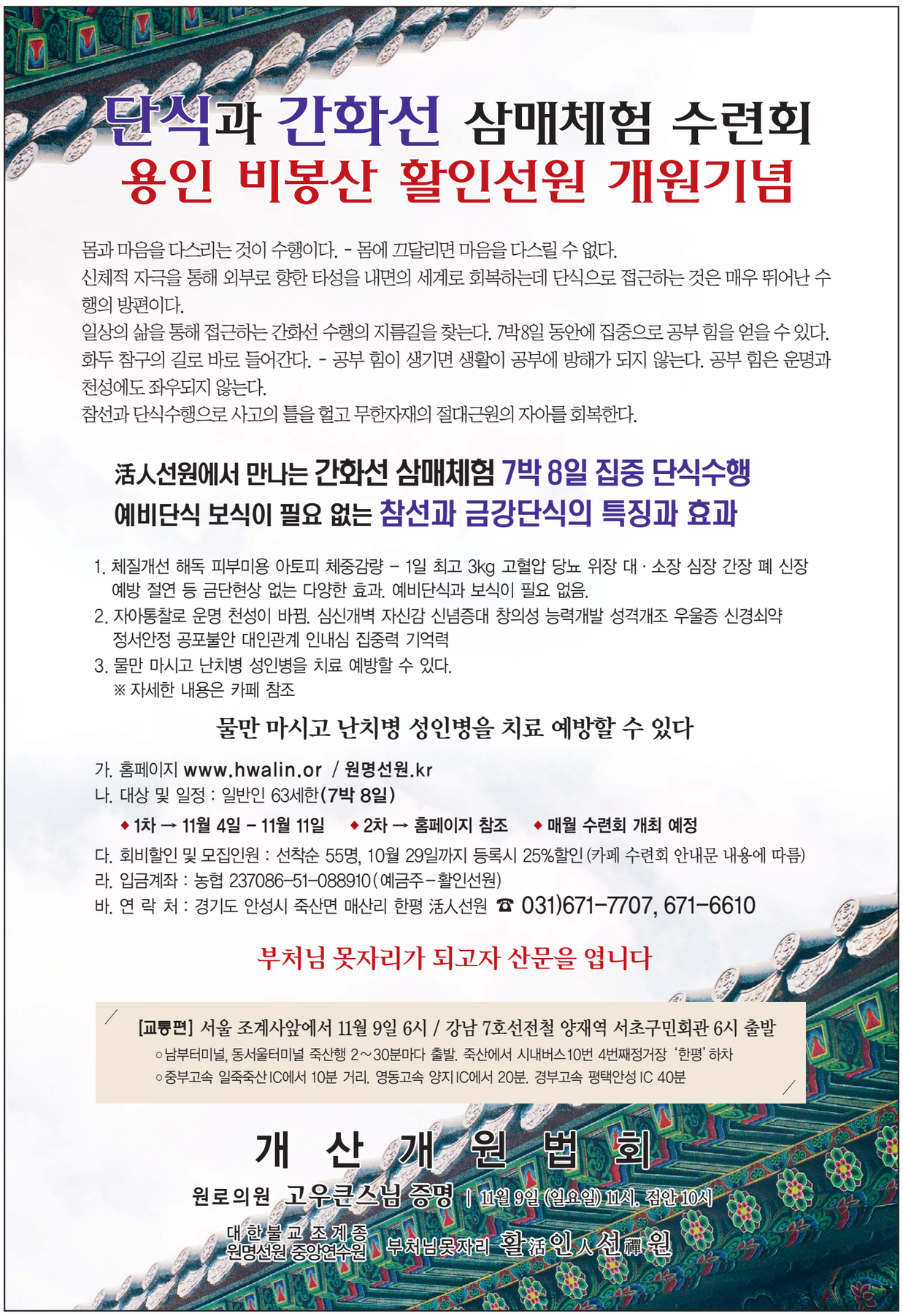
11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이번 대법회는 산사음악회 및 서화문화축전을 겸해 열린다. 법화행자들이 정성껏 필사한 법화경 사경을 탑속에 모시는 사경봉안법회에 이어 8인의 불자가수들(송춘희, 남강수, 김국환, 김활선, 박정식, 신현돈, 오시원, 진미령)이 2년여 작업 끝에 완성한 법화예찬의 노래발표회와 한국을 대표하는 서화문인들의 서예작품전시회도 함께 열린다.



도림 스님은 "전 세계의 불자 200만명이 써서 모은 법화경 사경본이 이미 20만여권에 달한다"고 말했다. 도림 스님은 "제주불사리탑에서 시작된 사경운동은 분열된 민족이 저절로 하나로 뭉치게 하고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며, 어린이들에게는 한글 바로쓰기 운동의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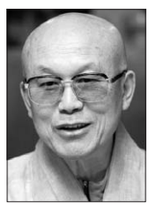
(02)928-1331

김성우 기자



원명선원, 중앙연수원 황인선원 개원

11월 4~11일 7박8일 집중단식수행



30여년간 재가자 참선 수행 지도로 큰 성과를 얻은 제주 원명선원(선원장 대효 스님 · 사진)이 용인에 중앙연수원인 활인선원을 개원한다.

원명선원은 11월 9일 오전 10시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금봉사 조실)을 증명법사로 개원법회를 열고 수도권 참선 포교에 나선다. 원명선원은 개원기념으로 11월 4~11일 7박8일간 간화선 삼매체험 집중단식수행을 실시한다.

대효 스님은 "몸에 끄달리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신체적 자극을 통해 외부로 향한 타성을 내면의 세계로 회복하는 데 단식은 뛰어난 수행방편이 된다"면서, "집중적인 참선과 단식수행으로 사고의 틀을 헐고 무한자재한 절대근원의 자아를 회복하자"고 말했다.

문의 (031)671-7707

김성우 기자

파욱 사야도 집중수행 지도

수행공동체 '제따와나' 11월 3~30일 집중수련회



남방불교 수행의 종주국 미얀마에서도 최고의 수행승으로 손꼽히는 파욱 아친나 스님(Pa Auk Achinna Sayadaw · 사진)이 국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달간의 집중수행을 지도한다.

마하시 계통에서 사마타(선정 · 止)를 그리 중요시 하지 않는 것과 달리, 깊은 사마타 수행 없이 위빠사나(마음챙김 · 觀)를 제대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는 파욱 스님은 아나빠나사띠(호흡관)을 중심으로 실참수행과 법문, 문답을 통해 수행의 정수를 전한다.

'숨 붓다의 호흡 명상 수련회'라고 이름 붙인 이 수련회는 스님과 정신과 의사, 상담심리사 등이 주축이 돼 만든 수행공동체 '제따와나'가 1년여 간 준비한 법회.

11월 3~30일 한 달간 경기도 남양주시 축령산 자연휴양림 내 오덕훈련원에서 열리는 이 수련회는 한 주일을 단위로 모두 4차례에 걸쳐 나눠 진행된다. 파욱 스님과 그 제자인 우레와따 스님이 매주 화~토요일 좌선과 경행을 지도하고, 법문과 문답을 통해 수행을 점검한다.

파욱 스님은 또 11월 13일 오후 2~4시 대원불교대학, 21일 오후 7시30분~9시 불광사, 22일 오후 3~5시 마음공부전문 인터넷방송 '유나'센터, 23일 오후 2~4시 상도선원 등의 일정으로 특별법문도 할 예정이다.

일묵 스님은 "파욱 큰스님의 지도로 부처님의 호흡명상법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삶의 기쁨을 누려보자"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출범한 '제따와나(기원정사의 빨리어)'는 전문 지식과 불교수행을 접목해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 지식인 위주의 수행공동체다. 운영위원은 조계종 중앙승가대 교수 미산 스님, 일묵 스님(서울대 수학과 박사과정), 위빠사나 붓다선원 대표 김열권 법사, 전현수신경정신과의원 전현수 원장 등 13명. 이들은 2002년 불교와정신치료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수행 경험을 현대 과학에 상충되지 않는 보편적 언어로 만드는 실험을 거친 뒤 지난해 '제따와나'로 이름을 바꿔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현재 회원은 수행자,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치료사 등 6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자살,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 사회문제에 대한 불교적 처방을 제시할 계획이다. (070)8267-0108.

김성우 기자

가을을 여는 진중음악회

태풍부대 군장병·가족 열기 뜨거워



10월 11일 28사단 신교대 강당에 군장병과 일반인 800명이 모여 '가을을 여는 진중음악회'를 만끽했다.

산사음악회로 전국 사찰이 풍성한 가을을 노래하는 가운데 병영에서 산사음악회가 열려 화제다.

10월 11일 저녁 6시 30분 동두천시 육군 28사단(사단장 박종선 소장) 신병교육대 대강당에는 군장병 600여명 , 군인간부 및 군인가족 150여명, 출연자 90여명의 열기로 가득 했다. 호국광명사(김대성 주지 법사) 주관으로 열린 이색 음악회는 불교적인 색채가 가미되어있으면서도 종교적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수준 높고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매료시켰다.

28사단 홍보자료 방영을 시작으로 군악대, 금강정사 · 봉은사 혼성합창단, '메주와 첼리스트' 도완녀, 성악가 유현주,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마애불 풍물패 공연 등으로 진행된 음악회는 군장병들의 댄스경연대회에 따른 휴가 포상으로 참여의 기회도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가족과 함께 온 이소은 씨는 "불교방송에서 산사음악회를 다운받아서 보다가 이렇게 직접 보게 되니 감격스럽다"며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통일을 염원하는 '그리운 금강산'과 '한 오백년'등을 연주한 '메주와 첼리스트' 도완녀 보살은 "된장공장이 28사단 구역 내에 있어 군대 공연은 많이 했지만, 오늘처럼 청중과의 교감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불자 장병의 사기진작과 일반 장병들의 불교에 대한 우호적인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 진중 산사 음악회를 준비한 김대성(성원) 사단법사의 포교 의지는 대단했다. 올해 7월 호국광명사로 전입해 100일 기도를 시작한 김 법사는 "오늘이 100일 기도 회향날인데 이렇게 무사히 행사가 마무리 된 것은 부처님의 위신력"이라며 "포교를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한 끝에 장병들에게 재미있는 불교를 보여주고 싶어 음악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법사는 "법당이 1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사단 법회 인원을 1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려 군에서의 불교 인연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며, "사단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곡지역 신행단체인 향지회, 구룡사, 사암연합회를 비롯한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도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종선 28사단장, 오세창 동두천 시장 등 각계 인사가 자리를 빛냈다.

이상언 기자

철장 안의 가족애와 孝

제3회 전국교도소 효편지 공모 당선작 선정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가 주관한 제3회 전국교도소 수형자 효편지 및 수필 · 가족편지 공모전 당선작이 선정됐다.

대상 수상작은 시 부문에 청주교도소 이 모씨의 <늙은 어머니>가, 수필부문에 순천교도소 최 모씨의 <그리운 어머니>가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충주구치소 조 모씨 <그리운 어머니>와 광주교도소 김 모씨의 <부처님이 들려주는 효 이야기> 등 2편이 선정됐다. 우수상 2편은 홍성교도소 송 모씨의 <외면하지 마세요>, 청주여자교도소 박 모씨의 <사랑하는 아빠 엄마> 등이 선정됐다.

신설된 그림부문에는 10여 편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임 모씨의 <항상 그립고 생각하는 엄마께>와 이 모씨의 <공양의 마음으로> 등 2편이 우수상에 선정됐다.

대성사는 전국 51개 교도(구치)소 수형자를 대상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10월1일까지 작품을 공모해 지난 10일 혜철 스님, 보덕 스님(견불사 주지), 혜전 스님(석문사 주지)과 충남 · 북 지역언론 문화부 담당 기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30여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오는 12월 20일 각 교도소에서 진행된다. 수상작은 연말 당선작 모음집 <길, 누군가와 함께 3>으로 발간된다.

노덕현 기자

제5회 불교소장학자 연구·번역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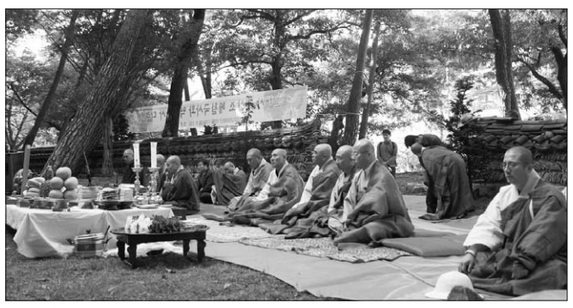
사단법인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이사장 법상)가 주관하는 '제5회 불교소장학자 연구 · 번역 지원사업'에 공만식 박사(동국대 불교학과)와 정천구 박사(부산대 한문학과)가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공만식 박사의 <분별론>이 아비달마 교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것은 기대한다"고 평했다. 정천구 박사가 번역할 <원형석서>는 일본 최고(最古)의 승려 전기집으로 일본사 연구의 중요문헌으로 평가됐다.

선정자는 각 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별도의 출판지원비도 보조받는다. 수여식은 10월 27일 오후 2시 강남포교원에서 열린다. (02)539-2631

조동섭 기자

은해사 창건 1199돌 개산대재 봉행



은해사 창건 1199돌 개산대재가 10월 12일 봉행됐다. 은해사 前 주지 법타 스님, 정희수 국회의원, 김태옥 영천시의회의장, 김영석 영천시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개산조인 혜철 국사와 역대 조사 다례재(사진)를 시작으로 헌공 법요식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故박정희·육영수 대통령부부 영정 이운법회



옥천 대성사(주지 무애)는 10월 12일 마애여래삼존불 봉안법회 및 故 박정희 대통령 · 육영수 여사 영정 이운법회를 봉행했다. 이날법회에는 태고종 중앙종회 부의장 원봉 스님과 김재철 옥천군의회 의원, 안철호 검찰청 영동지청 행형자문위원장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지구촌공생회, 라오스 쌈본·화계초교 완공



불교계 국제개발구호단체 지구촌공생회(대표이사 월주)는 10월 9일 라오스 비엔티엔시에서 쌈본 화계초등학교 완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완공식에는 월주 스님, 진만 스님(화계사 재무국장), 비엔티엔시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한 사부대중 400여명이 참석했다. 후원 (02)455-9696 노덕현 기자

국민대화합 국토수호대장정 회향



'국민대화합 국토수호대장정 순례단'은 10월 10일 부산역 광장에서 한 달 동안의 여정을 회향했다. 대장정에 참가한 마조 스님(명화누리불교연대 상임대표), 지훈 스님, 무영 스님 등은 불상 · 단군상 · 십자가를 등에 지고 9월 11일 서울 파고다 공원을 출발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불기 2552년
2008 해인사

비로자나불 무생계(보살계) 수계대법회



비로자나불이 설하고 문수보살이 전해 온 법신계를 보살계로 한단계 진전시킨
비로자나불 무생계.
오직 해인사에서만 설하는 국내 유일의 보살계로 오늘날 모든 불자들이 수지해야 할 신행규범입니다.
특히 2008년 비로자나불 무생계 수계 대법회는 법전 종정예하께서 직접 주관하시어 봉행되는 바,
꼭 동참하시어 큰 공덕을 짓고 마침내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 **법회명칭** 2008 비로자나불 무생계 수계 대법회
- **일 시** 불기 2552년 (2008년) 10월 25일 토요일 (음 9월27일) 오전 9시~오후 5시
- **장 소** 해인사 대적광전 앞 탑마당
- **전계대화상** 도림 법전 대종사(대한불교조계종 종정예하)
- **갈마아사리** 연담 종진 대율사(해인총림 율주)
- **교수아사리** 지엄 경성 율사(중앙승가대 교수)
- **존 증 사** 동참 사찰 주지스님

法寶宗刹海印寺
www.haeinsa.or.kr





◈ **동참금** | ① 무생계 수계 동참금 3만원
② 영가천도 동참금 1위당 1만원
◈ **문의 및 접수처** | 종합접수실 055) 934-3105~6, 팩스 : 055)934-3107
◈ **온라인 접수** | 농협 843174-51-013620 (예금주 : 해인사)

❖ 계첩 작성 관계로 10월 20일까지 단체는 사전접수를 부탁드립니다.

주요행사내용 (수계식, 달마도 시연 퍼포먼스)

일시 : 2008년 10월 25일 토요일(음9월27일)
오전 9시~오후 5시

▲ 국내 최고의 쌍둥이 목조 비로자나불
장소 : 해인사 대적광전 앞 탑마당

현장속으로





창립 10돌, 불자약사보리회 100만인 투약 현장

“어르신 건강은 저희가 지켜드려요”

민족의 애환과 아픔이 서려있는 곳, 짙어가는 단풍의 가을 속 10월 12일 독립공원은 어르신을 보살피는 손길로 가득 찼다.

불자약사보리회(회장 유천수)가 어르신 의약봉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 날은 불자약사보리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더욱 뜻 깊었다. 불자약사보리회는 지난 10년 동안 총 100만 명에게 의약봉사를 해왔다. 이날 독립공원에는 30명의 약사들과 의약봉사를 받기위한 2000명의 어르신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길게 늘어선 줄에서도, 삼삼오오 모여 아픈 곳을 얘기하는 곳에서도, 약왕보살(藥王菩薩)을 만난 어르신들의 표정에는 힘든 구석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작은 약봉지에 큰 행복을 담고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가 지끈거려서…” 동네약국에 가면 흔히 들리는 말들이 공원에서 들린다. 약사 10여명이 일렬로 앉아있는 진료대로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말하는 어르신들이 끊임없이 줄지어 들어온다.

이마에 손을 대보고, 증상을 듣고 약을 처방하는 모습에서 관세음보살의 모습이 언뜻 비쳐진 것은 왜일까. 진료를 받고 약을 타서 공원을 나서는 부부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홍제동에 사는 손기정(75) · 최영순(71) 부부는 “마땅한 수입도 없는 처지에 늙어 갈수록 잔병치레가 많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도 힘들어 나들이를 겸해 공원에서 약 타가는 기쁨이 크다”고 말했다. 손기정 씨는 무릎 관절염으로, 최영순 씨는 요실금과 허리, 다리 통증으로 수지침 등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았다. 손기정 씨는 “우리 부부는 절에 다니지만,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진료를 받고 너무 감사해 한다. 종교에 관계없는 봉사에 나까지 절로 뿌듯해진다”고 말했다.

#수지침, 약손 등 다채로운 봉사

이 날 불자약사보리회의 봉사는 의약봉사만 진행된 것이 아니다. 큰 마당 아래에서는 어르신들 안마를 해드리는 코너와 수지침을 맞을 수 있는 코너가 개설됐다. 홀로 사는 독거어르신들에게 오늘만큼은 약사들이 아들 · 딸 · 손자손녀를 대신했다.

정홍제(75 · 북아현동) 할아버지는 “어깨가 자꾸 결리고, 쑤셔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오늘 약손을 받았다. 약손을 해준 약사분이 마치 우리 손녀딸 같아 너무 기분이 좋다. 집에 가서도 푹 잘 수 있을 것 같다”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성주현(74 · 아현동) 할아버지는 “허리가 안 좋아 수지침을 맞았다. 평상시 친구들과 공원에서 바둑을 자주 두는데 의료봉사가 있어 함께 치료를 받았다.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들 “바쁘다 바빠!”

약사들의 활동 뒤에는 묵묵히 뒷바라지를 하는 연령을 불문한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다. 공원 한켠에는 끊임없이 약을 쪼개 가루를 내고, 무게를 달아 약봉지에 담는 자원봉사자들과 질서유지를 위해 스스로 나선 어르신들, 수지침을 뽑으며 소독해 주는 어머니들이 있었다.

고양시에서 아들 임유신(18)군과 함께 봉사활동을 나온 홍정자(47) 씨는 아들과 나란히 앉아 약을 반으로 쪼개어 한 군데로 모으고 있었다.

홍정자 씨는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한다. 작은 것이나마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노적사에 다니는 도반이 함께 봉사활동에 가자고 해 인연이 닿아 매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힌 그녀는 “아들도 작년에 몽골의료봉사를 가는 등 봉사활동에 의욕이 많다. 교육적으로도 주말마다 봉사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줄지어 진료받는 어르신 행렬에도 봉사자들과 약사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시질 않는다. 자신의 노곤함이 어르신들의 작은 행복임을 안 까닭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행렬도 보살행속에 끝이 나고 날이 저물었다. 공원에 수북히 쌓인 빈 약통. 그 약통 하나 하나에는 우리사회 소외받는 모든 이를 위한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 차 있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Tip 여기서 잠깐!

Q: 의사 처방없이 직접 투약 가능한 까닭은?

A: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의 조제가 가능한 경우는 약사법 23조 3항 4호인 사회봉사에 의한 예외조항에 의해 가능하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사회봉사의 경우 대부분 관절염과 신경통 위주이기 때문에 표준처방에 의해 영양제와 일반약, 자연요법 등을 처방하고 있다.

바로잡습니다.
701호 해군중앙법당 ‘진필승 주지 법사’를 ‘진필승 주지 법사(실원 스님)’으로 정정합니다.

불자약사보리회 유천수 회장

“의사 단체와 연계 필요…더욱 다양한 활동 계획”



“불교계 의사봉사단체와 약사봉사단체 간 연대가 강화돼야 합니다.”

불자약사보리회 유천수 회장은 “천주교의 경우 김수환 추기경이 중심이 된 라파엘클리닉에서 의료 연계 활동을 하고 있다”며 “불교계도 의 · 약사단체 간의 연대를 강화해 규모를 키우고 지원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어 “사회봉사에 한해 약사의 조제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향후 다양한 활동으로 부처님의 자비를 펴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불자약사보리회는 1998년 창립돼 2001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NPO)로 등록됐다. 매달 둘째 주 일요일 저소득층 의료봉사(독립공원), 매주 월 · 화 · 금 서울역 노숙자진료소 운영, 매주 목요일 마포 장애인종합복지관 의료봉사, 매달 둘째 주 일요일 외국인이주노동자 의료봉사(독립공원) 등 꾸준한 활동을 펴고 있다. 2004년부터는 북인도 다람살라, 슈라바스티 등에 매년 각각 3000명분 의약품을 지원하고, 해외 재난 구호봉사단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국내 · 외를 가리지 않는 약사여래의 행보를 걷고 있다.

특수 기술로 개발 조성한 부처님


개금불


비취옥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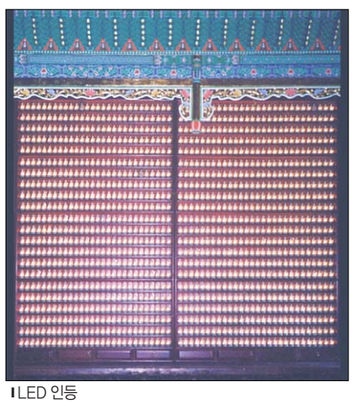

백옥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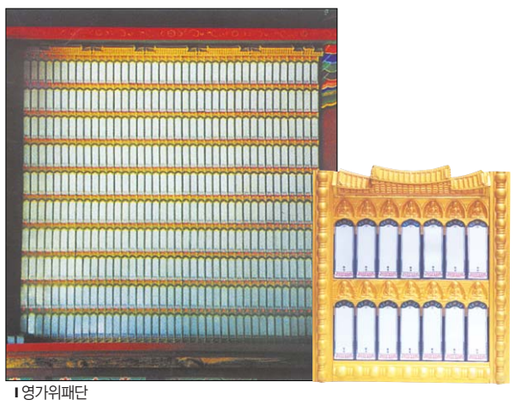

대나무숯불

규격 : 소불 – 5치. 7치. 9치. 1자(108–1,000불) / 대불 – 2자. 2자반. 3자. 3자반(법당 內)

LED인등 및 영가 위패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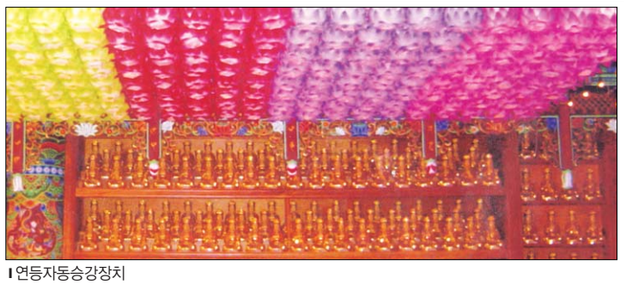
디자인 등록 제 30–0477206호
실용신안등록 제 20–0439285호


LED 인등


영가위패단

- 안전하고 편리하며 누전이 없습니다
-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 전기료가 기존인등의 1/10 미만입니다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설치해 드립니다

전선 자동 연등 승강장치


연등자동승강장치


LED 전구

- LED전구는 국산품만 사용합니다
- 전문기술진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전선은 KS 케이블을 사용하며 안전합니다
- 버튼 하나로 上下 조절하며 명찰과 연등 달 때 편리합니다

정우불교예술원(구. 정심원) 취급품목

각종불상. 특수불. 옥불. 대나무숯불. 영가위패단. LED인등.
LED전구(연등용). 옥촛대. 연등전선승강장치

正宇불교예술원 (구. 정심원) www.jeongwoo.info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1474 전화 031)969–6310 / 직통 011–724–0455 대표 **이정옥(진성)** 합장

※ 전화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방문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

일주문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체육대회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회장 도후 스님은 10월 26일 서울 진선여고에서 '서울·경인지역 불교청소년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한다.(02)2011-1903



동해사 감로법비 16돌 기념법회

양양 동해사 회주 의륜 스님은 10월 29일, 매년 40여 일간 내리는 감로 법비 광명 봉축 16주년 기념 경로잔치와 수계산림법회를 연다. (033)672-2900



금산사 복지회 후원 바자회

전북사암승가회장 원행 스님은 금산사 복지회 후원을 위한 바자회를 10월 23~25일까지 전주 옥성문화센터 3층에서 개최한다.



금강산림대법회 봉행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10월 16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8회에 걸쳐 금강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061)755-0108



화엄사 영성문화제 '2008 화엄제'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은 10월 25일 '고요함 가운데 깨달음을 주는 음악'을 주제로 영성음악축제 '화엄제 2008'을 개최한다.



난치병 어린이돕기자선음악회

생명나눔 광주전남지역본부장 현지 스님은 10월 22일 5·18기념문화관 민주홀에서 난치병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병철 학장 AACSB예비인증 획득

동국대 경영대학 이병철 학장은 국내 최초로 경영학교육 최고인증과 미국경영교육인증원(AACSB)의 예비인증을 획득했다.

"신도단체 도약 디딤돌 놓는데 최선 다할 것"

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4대 회장 취임 김의정씨



"신도회장 취임에 무한한 긍지와 더불어 책임을 느낍니다. 불법 홍포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10월 1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4대 회장으로 취임한 중앙신도회 제24대 김의정 회장은 "중앙신도회는 삼보호지와 교단외호를 사명으로 1955년 창립한 이래로 거친 풍상을 이겨내며 정법을 묵묵히 실천해왔다. 7월 12일 대의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선출된 순간 말할 수 없는 책임과 함께 무한한 긍지를 느꼈다"며 "중앙신도회를 비롯한 신도단체들이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종회의장 자승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정태근 국회의원(한나라당), 김충용 종로구청장, 백도웅 목사(한국종교인평화회의 명예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법회에서 김의정 회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상에서 교단을 외호하는데 출가와 재가의 합심과 화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50여년 숙원이던 신도회관 건립으로 소통과 결집이 더욱 용이하게 됐다"며 "이를 종자(種子)로 삼아 불교와 사회 발전에 신도들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용맹정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의정 회장은 ▲인재양성 ▲사회기반확대 ▲국제사회 참여를 통한 불교의 세계화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특히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불교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며 "자립기반을 갖춘 인프라와 세계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 미래지향적 경영전략을 통한 비영리 단체의 선진화 등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김의정 회장은 여성으로서 최초로 제23대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에 당선됐고, 중앙신도회 산하 신도단체 설립 및 중앙신도회관 건립 등 불교발전에 많은 공로를 세웠다.

김의정 회장의 어머니는 조선 마지막 상궁 2명에게서 전수받은 궁중 다례(茶禮)와 초의 선사로부터 이어져 온 다도를 섭렵해 '명원 다례법'으로 정리한 명원 김미희(茗園 金美熙 · 1920~1981)여사, 아버지는 쌍용그룹 창업자인 성곡 김성곤(省谷 金成坤 · 1913~1975) 회장이다.

현재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7호 궁중다례의식 보유자로 한국 차문화를 복원 · 보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노덕현 기자

"전통 위에 세련미 가미"

불미전 조각 이재윤·회화 이수정 수상





"현대적인 불교미술을 재조명하고 연구 · 발전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제23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운영위원장 지관) 시상식이 10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거행됐다. 조각부문 이재윤(**사진 왼쪽**) 作의 '석가모니불'과 회화부문 이수정(**사진 오른쪽**) 作의 '겁(劫)'이 공동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 전시는 10월 15~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된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재윤 작가는 "기존 불상의 옷 주름에 주목했다. 근대 이후 끊긴 불교 조각의 이력을 보존하고 계승된 조각 기법을 따르되 이 시대에 맞는 세련미를 찾기 위해 고심했다. 인체 골격과 불신의 골격을 비교해 안정된 상호를 조성하고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온화한 미소를 전할 수 있는 완만함을 찾고자 했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동국대 일반대학원 미술학과에서 서양화 전공중인 이수정 작가는 "기존 회화는 장지 · 비단에 그리는 탱화 위주의 기존 회화와 달리 아크릴과 같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했다. 화면에 보이는 기하학적인 조형물들이 현대적인 법당으로 묘사됐다"며 금니 기법과 함께 캔버스에 활용된 혼합매체를 통해 현대적인 회화를 시도했음을 전했다.

최완수 심사위원장은 "올해는 대상 수상작이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평준화 되고 수준 높은 작품으로 점차 발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신한 구도·색상·표현·기법 등에서 개성이 넘치면서 동시에 전통을 고수하는 작품들이 다수 있었다"고 총평했다.

가연숙 기자

"희망으로 전법 매진할 터"

개교 20주년 전북불교대학 한광수 학장



"불교의 더 넓은 저변확대와 더 큰 인재불사도량으로 거듭나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불교대학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중생을 부처로 세상을 정토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988년 개교한 전북불교대학 한광수 학장(**사진**)의 조용하고 힘 있는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친다.

한 학장은 개교20주년 기념사업으로 올 한해 매월 마지막 주마다 선지식 초청법회를 개최중이다. 이미 혜거스님(금강선원장) 등 선지식을 모셨고, 10월 26일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초청법회를 계획하고 있다. 12월에는 앙코르와트 성지순례와 전 동문이 동참하는 '전북불교대학인의 밤'을 개최한다.

전북불교대학 발전 역사를 담은 활동사진전 개최와 <개교20주년 기념책자> 발간 계획도 있다.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한 사이버 포교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한광수 학장은 현재 전북불교대학이 위치한 완산불교회관의 각 120평에 이르는 2층과 3층을 선방으로 개편하고, 신행공간으로 활용해 누구나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광수 총장은 "최근 강건기 前 학장 정년퇴임으로 인한 공백과 신입생 감소, 외부강사 섭외 고충 등 문제가 있었지만 학내 신행단체들과 교직원들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며, "희망을 갖고 교육과 전법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농촌총각 결혼 앞장 선 공로"

옥천군민대상 혜철 스님 선정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본지 충청지사장 · **사진**)은 10월 15일 제18회 옥천군 군민대상 윤리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혜철 스님은 2000년부터 옥천연대 정기법회 및 민간인 성직자 위촉 '충효사상' 교육 등을 개최하고, 2005년부터 '선남선녀 인연맺어주기'를 주선해 농촌총각 결혼보내기에 앞장 선 공로로 선정됐다. 개발부문에는 김해자(56 · 옥천군새마을부녀회장, 청성면 구읍리)씨, 문화부문에는 이명식(50 · 옥천읍 산업담당, 옥천읍 가풍리)씨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11월 8일 제34회 옥천군민체육대회 개회식을 겸해 열릴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불국사 '제36회 신라불교문화영산대재'



불국사(주지 성타)는 10월 11일 경주 불국사 범영루 앞 광장에서 '제36회 신라불교문화 영산대재'를 개최했다. 영산대재에는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 백상승경주시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제15회 백제 고산대제 · 삼천범종 타종식



운주산 고산사(주지 법산)는 10월 11일 백제호국영령을 추모하는 '제15회 백제고산대제'에 맞춰 삼천범종 타종식을 거행했다. 타종식에는 최경식 대령(37사단 옥천연대 연대장) 등 300여 명이 동참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옥천경찰서 경불회 사찰순례



옥천경찰서 경불회(회장 전동호)는 10월 12일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로 2008년 하반기 사찰순례를 거행했다. 지도법사 경승 지원 스님(대림선원 주지)과 법성 스님을 비롯한 경불회원 40여명이 동참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성주불심회 2대 회장 이 · 취임식



경북 성주불심회(회장 이기봉)는 10월 10일 경북성주 웨딩홀에서 2대 이기봉 회장 이 · 취임식을 봉행했다. 성주군 사원연합회장 법원 스님을 비롯한 스님 20여명과 신도 150명이 참석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한국불교정토종 10월 9일 수계식 봉행



한국불교 정토종(종정 지산)은 10월 9일 인천 덕흥사에서 승가고시 합격자 20명, 전법사고시 합격자 10명에게 품수 · 계를 내렸다. 이날 수계식에는 종정 지산 스님, 종회의장 무각 스님을 비롯한 3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국의 민중의술계에서 신화 같은 기적을 일으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三奉스님은 누구인가?

칠대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 이겨 13세부터 육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78세가 된 이 시간 까지도 인간은 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떠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정신수련 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의란 불로장생하는 하늘에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 어떻게 하나 1.2.3권 저자 전 울산 지방법원 황종국 부장판사가 현직에 있으면서 민중의술신문 2006년 12월 7일 10면과 11면, 2007년 1월 31일자 8면과 9면에 민중의술 명의열전 "김영생과 천의선도" 천의선도는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다 라는 제목으로 안내되었던 천의선도 창도자 김영생 대한신불교천우종 포교원장 삼봉(三奉)승이 대덕고승님 앞에 감히 권유의 말씀 올립니다.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달래주고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며 부처님 뜻으로 인류평화에 기여하자고 말입니다. 천의선도는 전수받는 순간부터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를 촉감으로 느껴볼 수 있으며 시험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0년 두통 환자가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려 나갑니다. 당신의 머리 백회를 통하여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몸속으로 들어가면 가뭄에 시들던 초목이 이슬비 맞으면 싱싱해 지듯이 모든 세포가 활성화를 이룹니다. 천의선도 수련을 몇 시간 계속하면 당신의 손이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밑에서는 벌어지고 위에서는 자석의 당기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손이 오르라 들면서 이 신비속에 접어든지 얼마간이 지나면 감기를 들었을 때 콧물이 주르륵 흐르는 느낌이 들고 나면 수련자는 무아상태에 들어갑니다. 앞이마 안쪽에서 몰핀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삼매경에 들게 됩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30여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차는데 삼키면 또 차고 삼키면 또 차는데 천상영계에선 이 침을 생명의 감로수라 하고 현대의학으로 보면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이 분비된지 얼마간이 지나면 희열의 환희속에 접어들면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건지 나의 의무와 사명감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간뇌에서 다이놀핀이 분비됩니다. 엔돌핀은 몰핀의 200배 진통치유능력이 있고 다이놀핀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치유능력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모든 병의 원소가 소멸되고 병든세포가 새롭게 회복된다는 것이 영계의 메시지인데 천의선도를 17년간 전수시키다 보니 낳으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손발이 뒤틀린 20대 여성이 수련 2년만에 정상으로 회복되고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뇌종양환자 간암환자 식도암환자 폐암환자 재생불능성 빈혈환자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10여년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중풍으로 5년간 누워 계시던 한의학 박사님이 수련 5개월만에 정상으로 회복되어 의료업에 종사하고 30년 두통환자도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견비통 위하수 이명증 생리통 요실금 전간(간질병) 전립선 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수련시키면서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2.3차 주입시켜 주었더니 신화같은 기적으로 회복된 분이 3000여명이 넘는 체험을 해봤는데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대덕고승님 제 나이가 78세입니다. 이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장시킬 수가 없어 내 의식이 생생할 때 천하제일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전 인류에 봉사하며 살자고 이글을 올립니다. 이 치료법은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하늘의 의술입니다. 일반인에게 공개하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염려도 없지 않아 스님들에게만 안내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 노승을 시험해 보시고 믿어지거든 고정관념 훨훨 털어버리고 종파를 초월해서 노승을 찾아 주시면 천의선도 전수식부터 조상천도식 기적의치료법 선단제조법까지 3박4일이면 천하제일의 명의로 환신시켜 드리겠습니다. 아토피성 소양증과 탈모도 방지되는 비누도 개발되어 시험을 끝마쳤습니다.

■ 수련장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천의선도 전수도장
■ 연 락 처 : 010-4933-4528
· 1차 : 11월 13일 오후 1시 개강 – 16일 12시 수료식
· 2차 : 한국 땅에서 마지막 강의 – 11월 20일 1시 개 강
11월 23일 12시 수료식
· 전수비 + 환신비 + 교재비 : 150만원
· 내선침 값 500개 : 50만원

■ 저 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00년 사상의학 팔상체질 분류비법
· 1994년 천명전수 전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어라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천의선도 대체의학 연구가 · 세계침구사학회연합회 대한침구사 협회 회원 · 대한신불교 천우종 포교원장 삼봉 김영생 법하

'미국=기독교종주국' 이란 오해 먼저 벗어라

해외불교칼럼

경주에 계신 한 젊은 스님의 말씀이다. "지금 한국불교가 대처해야할 가장 큰 문제는 일부 광신집단의 비이성적 적대행위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미국이 마치 옛 로마제국인양 정치경제문화는 물론 영혼의 통치자처럼 떠받드는 신사대유종의 신앙적 노예근성과 호가호위(狐假虎威)의 허세입니다."

정작 호랑이는 아는 체도 안하는데 멀찌감치 앞장 선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어 한참 촐랑대는 꼴이란 지적이다. '선진미국은 곧 기독교 종주국'이란 무지몽매한 등식으로 인해 간혹 일부 순진한 선남선녀들은 마치 불교가 해묵고 낡은 신앙인 듯 현혹되기도 한다.

그 스님의 답답한 비유다.

"오랫만에 고향마을에 내려간 자식에게 시골어머니는 왠지 초라하고 쭈글스러운 촌 아낙네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자신이 그분의 쭈그러진 배에서 태어나고 그분의 납작해진 가슴을 빨며 자랐음을 잊은 것이다."

오늘날 한국인들이 불교가 자신의 영혼의 어머니임을 망각하는 죄업을 짓는다는 뜻이리라. 또 얼마 전 어느 흥행사는 자신의 로드쇼에 너무도 업(up)이 되신 나머지 '서구기독교 국가를 보라, 기독교를 안 믿으면 못산다'는 투로 꽤나 오버(over)를 하셨다. 하긴 얼마간 이해되는 일이다. 좀 덜 무식해서 훨씬 더 용감한 분들도 모처럼 외국 나들이에 나서면 시골 장터 구석에서 골골대는 촌닭마냥 온통 얼이 빠질 수도 있을 테니까. 선교를 내세워 살육약탈을 저지른 서구 기독교제국의 과오를 오히려 피해당사자인 동양인이 감격 찬양하는 그 희극적인 동영상은 우리말로만 돼있다. 웬일로 그분께는 알량한 외국어나마 읊조릴 혀의 은총이 안 내린 걸까? 아무튼 거기에 외국어 자막이 안 깔린 덕분에 모든 한국인이 또다시 국제사이버망신을 당하는 비극은 면했다.

오늘날 서구에선 날로 불교가 확산된다. 이는 소위 '영혼종주국 미국'이란 짝퉁상표를 내흔들며 한철 장사에 목이 쉰 이 땅의 '영혼장사치'들의 좌판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격이다. 이제 그럼 기독교를 믿어서 잘산다는 미국인들이 '잘못 살고 파서(?)' 믿는 불교의 다른 모습을 보자. 지금 미국의 불교는 어디까지 가고 있을까? 다음은 9월 29일 미국의 한 대중음악 전문지에 실린 기사의 일부다.

'펑크'(Punk)란 낱말에서 곧장 불교와 참선을 떠올리긴 어렵다. 그러나 불교를 가슴에 껴안은 미국인들 가운데 의외로 펑크록 음악의 열성팬이 많다. 불교와 펑크록은 어떤 사이일까? 선승이자 펑크음악가인 브래드 워너 스님의 설명이다.

"불교와 펑크는 기독교전통의 제도적 권위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종교적 타율이 아니라 자율과 자아의 책임의식을 공유한다."

또 다른 스님의 경우다. <다르마 펑크스>란 회고록을 저술한 노아 레빈 선사는 보통불자와는 거리가 멀다. 삭발에 온몸 가득 문신을 새긴 그는 흔히 연상하는 선사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그 문신들을 가까이 보면 모두가 붓다의 삶을 상징한다. 즉, 그는 '움직이는 불화'다. 펑크록을 포함해 그의 온몸이 전법도구다. 그가 불문에 든 인연도 남다르다. 그의 부친은 불교저술가이자 법사지만 그 자신은 불교에 거의 무관심했다. 그가 불자가 된 것은 자기 삶이 막장에 이르러 교도소에 복역할 때부터다. 이미 열 살 때 마약에 중독돼 십대를 보낸 그는 결국 마약운반책으로 전락한다.

"제 맘은 늘 분노로 가득 찼었죠. 그러나 참선을 통해 한걸음씩 붓다의 가르침에 다가선 거죠."

이제 그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간다. 문제청소년, 범법자, 노숙자 등 힘든 이웃들에게 참선을 지도하고 불법을 펼친다. 그의 참선지도와 교화방식은 미주와 유럽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다. 또 그의 윤리관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참선과 소멸'은 불교와 참선, 그리고 펑크록과 자아혁신과정을 현장감 넘치게 전달한다. 참선에 대한 그 나름의 변이다.

"저의 참선수행법은 펑크록과 참 닮았죠. 둘 다 저항적이거든요. 생각을 멈추고 호흡에 집중하라고요?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 생각을 멈추든 펑크록을 듣든 제 하고픈 대로 수행하는 거죠. 우리의 법은 무법(無法)이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영적 아나키스트'(spiritual anarchist)라고요? 하하, 거참 멋지군요! 고마워요."

그는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무법자며, 다르마의 우주적 질서를 따르는 진정한 자유인이다.

편역: 성휴 스님
출처: Buddhism And The Zen of Punk Rock(Day to Day)

"Who on Earth has started a sin of lying?"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거짓말의 죄를 시작한 게 도대체 누구지?

A minister told his congregation, "Next week I plan to preach about the sin of lying. To help you understand my sermon, I want you all to read Mark 17." The following Sunday, as he prepared to deliver his sermon, the minister asked for a show of hands, "How many of you have read Mark 17?" Every hand went up. He smiled and said, "Mark has only 16 chapters. I will now proceed with my sermon on the sin of lying." Then a little girl blinked her eyes, "Who on Earth has started a sin of lying?"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말했다. "다음 주엔 거짓말의 죄에 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교우님들께서 마가복음 17장을 미리 읽어 오시면 제 설교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일요일이 되자 그는 강론을 준비하며 교인들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했다. "어디 몇 분이 마가복음 17장을 읽으셨을까요?" 모두의 손이 올라갔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만 있어요. 이제 그럼 거짓말의 죄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자 한 꼬마 소녀가 눈을 깜박 깜박였다. "거짓말의 죄를 시작한 게 도대체 누구지?"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불교강좌 확대개편
英 자유불교방송 법보시

10월 3일 영국의 '자유불교방송'은 아스바고샤프로젝트와 카루나재단의 공동후원으로 2005년 이래 실시해온 전법 및 각종 불교 강좌를 확대 개편해 '다르마차크라의 포드캐스트'로 무료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1만여 명이 아이튠(itune)을 통해 접속 중인 이 사이트는 총 35만여 회에 달하는 법문 및 교양강좌 등의 법보시를 펼쳐오고 있다.

동 사이버 불교방송은 법문 이외에도 영상현장취재, 창작찬불가 소개 및 알코올중독, 가정폭력, 아동건강 상담 등 다양한 지역과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있다.

출처: WFFB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브루스 조엘 루빈 ❷

영화, 서구 불교 홍포의 공신

'사랑과 영혼' 중생구제 염원 보살행의 상징 보여줘
이승 떠도는 영혼에게 음식 베푸는 불교의식도 중요

여러 번 소개했듯, 영화는 불교가 미국 등 서구사회에서 단기간에 뿌리를 넓히는데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영화 '리틀 붓다' '티베트에서 7년' 등은 불교소재를 직접 활용한 경우며, '스타워즈'처럼 서구인들에게 생소한 팔정도, 사성제 등 불교철학을 대중영상물을 통해 쉽게 풀어가기도 한다. 조지 루커스, 올리버 스톤 도반 등 불자 감독, 또 지금 얘기하는 브루스 조엘 루빈 도반처럼 극작가나 소설가 등 불자문인도 열거하지 못할 만치 많다. 그런가 하면,


사랑과 영혼의 한 장면.

영화감독에서 선승으로 인생행로를 전환한 테이건 댄 레이튼 스님의 경우도 있다. 일본 정토종에서 수계한 그는 컬럼비아대학에서 동아시아연구를 전공한 문인으로 불교영화에 조예가 깊다. 그의 폭넓은 해설을 따라 '사랑과 영혼'에 실린 불교적 의미를 되새겨보자.

뉴욕의 월스트리트의 젊은 금융가인 샘은 도예가인 몰리와 행복이 넘치는 동거생활을 한다. 그는 몰리가 "사랑해요"라 할 때마다 '마찬가지(ditto)'란 대답밖에 못하는 순박한 사내다. 어느 날 은행계좌에 이상을 느낀 샘은 이를 동료인 칼에게 말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다. 샘은 몰리와 연극을 보고 돌아오던 밤길에 그녀에게 정식청혼을 한다. 그때 갑자기 괴한의 총격을 받은 샘은 어이없이 목숨을 잃는다. 샘의 시체를 끌어안고 슬피 우는 몰리 위로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온다. 이내 샘의 육신에서 그의 영혼이 떠난다. 샘은 자신의 육신이 쓰러져있고 몰리가 흐느끼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이젠 영혼의 존재가 됐음을 깨닫는다. 이튿날 연인 몰리, 친구인 칼과 동료들이 참석한 샘의 장례식이 치러진다. 한편, 영혼인 샘은 지하철에서 만난 어느 유령으로부터 물건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문이나 벽도 통과하며 내달리는 지하철에도 올라타는 등 영혼세계의 능력을 터득해간다. 하지만 보통 인간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유령일 뿐인 그를 몰리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레이튼 스님의 해설이다. "육신이란 껍데기에서 벗어나 영혼만 남은 샘이 이승에 머물려한 까닭은 뭘까? 그것은 물론 몰리와의 이별을 거부하고 매달리는 '집착' 때문이다. 그와 아울러, 이는 중생구제를 염원하는 보살행의 상징적 표현이다. 대승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보살이 나아갈 바는 윤회의 쳇바퀴를 내닫는 끝없는 고통에서 오직 나 자신만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나 스스로 이승에 머물며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자신을 죽인 자들이 몰리마저 해치리라 우려한 샘은 우연히 자신의 말을 알아듣는 점쟁이 오다메를 만난다. 그의 부탁으로 오다메는 몰리에게 위험을 알려준다. 오다메를 통해 몰리에게 '사랑한다'고 전한다. 그러나 몰리가 믿지 않자 샘은 "마찬가지"라 말한다. 비로소 샘의 영혼임을 믿는 몰리. 샘은 친구인 칼이 거액을 빼돌리고자 자신을 죽게 한 사실에 분노한다. 샘은 오다메를 시켜 은행에서 칼보다 먼저 돈을 찾아 수녀원에 기부해버린다. 은행계좌가 텅 빈 것을 알게 된 칼 역시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그의 영혼은 악마들에게 끌려간다. 마침내 천국으로 떠나는 샘은 처음으로 몰리에게 "사랑해, 늘 사랑했었고"라 말한다. 눈물범벅이 된 몰리가 샘에게 속삭인다. "마찬가지"라고. 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 샘은 찬란한 빛을 흩뿌리며 하늘 속으로 사라진다.

다시 레이튼 스님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자. "이 영화에서 따로 주목할 점이 있다. 살해를 당한 샘은 영혼만 남겨져 떠돈다. 미처 해원(解寃)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굶주려 떠도는 영혼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불교의식은 큰 의미를 지닌다. 샘과 같은 영혼이 복된 길로 떠나는데 짐이 되는 온갖 착심(着心)을 내려놓도록 돕기 때문이다." '사랑과 영혼'에서 사십구재의 중요성으로 이어지는 레이튼 스님의 자상한 해설은 생략한다. (계속)

성휴 스님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퇴마,최면을 배우실분 ●자기최면,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 최면시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 빙의(귀신병) 퇴마,최면? 100% 전수 – 치유
-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 비염, 발기부전 특효

서울지사 :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251번지 연세빌딩 후문앞 지장사
☎ 02)796-7579 / H·P 010-3056-3315

●부산교육 : 월, 화, 수, 목 ●서울교육 : 금, 토, 일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TEL 051)364-5586 / 010-3056-3315 HTTP://WWW.JIJANGSA24.ORG

‘유가사지론’ 연구 50년 결실 돌아봐

금강대 ‘유식’ 주제 국제학술대회 개최

불교를 설명하는 말 가운데 ‘마음의 종교’라는 표현이 있다. 마음의 학술적 분석에는 인식론적 접근이나 관념론적 설명이 따른다. 마음에 대한 불교적 이론 고찰은 유식사상이라 불리며 대승불교 교학의 한 분야로 주목받았다. 이런 가운데 세계 유식학 권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눈길을 끈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안성두)는 10월 13~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유가사지론>과 유가행자’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비판적 문헌학의 선구자로 세계 최고의 불교학자로 손꼽히는 람버트 슈미트하우젠 교수(독일 함부르크대)와 문헌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불교사상사를 감동적 서사 형태로 풀어쓴 아라마키 노리토시 교수(일본 교토, 코카여자대), 인도-티베트 밀교 사본 연구 권위자 하루나가 아이작슨(독일 함부르크대) 등 4개국 14명 불교학자들이 14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람버트 슈미트하우젠 교수는 ‘선(善, kusala)과 불선(不善, akusala)’을 주제로 발표했다. 슈미트하우젠 교수는 ‘선’과 ‘불선’은 불교적 정신성과 윤리성의 핵심개념이라며, 능숙함과 능숙하지 않음, 선과 악, 바름과 그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랑스 커진스의 학설을 반박했다.

아라마키 노리토시 교수는 주제발표 ‘대승불교의 존재론적 철학’에서 붓다의 가르침에 숨겨진 심오한 의미가 세 가지 본질성과 비본질성의 철학으로 계승됐는지, 세간적 진리가 잠재의식의 철학으로 발달했는지, 궁극적 진리가 드러내 보이는 것에 그친 철학으로 발전했는지를 조명했다.

마틴 델하이 박사(독일, 함부르크대)는 ‘<유가사지론> 연구’를 통해 현존하는 <유가사지론> 관련 문헌자료를 재검토 했다. 델하이 박사는 “80%이상의 산스크리트본 <유가사지론>이 편집된 형태로 활용 가능하다”며, 티베트본의 비판적 편집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인도 여래장사상 권위자인 미카엘 짐머만 교수(독일 함부르크대)는 ‘‘보살지’ 계품에 관해’를 발표했다. 짐머만 교수는 ‘계품’이 도덕적 규칙을 단순히 수집한 것이라는 인식을 초월해, “편찬자의 의도가 대승의 도덕적 교의를 담은 경전과 관련된 것들을 혁신적인 구조와 형식으로 제시한 것”이라 주장했다.

초기선정문헌 권위자인 플로린 델레아누 교수(일본 국제불교학대학원대학)는 ‘보살지의 명상 수행’을 통해 “보살지는 유가행 유식학파 전통의 어떤 대표적 사상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델레아누 교수는 슈미트하우젠 교수 등의 학설을 인용해, “보살지의 기본 철학이 ‘유명론(唯名論)’이며, 삼성설(三性說)의 태동에 영향을 끼쳤다”고 강조했다.

불교의 찰나멸을 논리로 입증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던 알렉산더 로스팟 교수(미국 버클리대)는 주제발표 ‘수소성지(修所成地)와 그 수행관에 대한 소견’에서 수소성지가 어떻게 거룩한 다르마를 경청하고, 수행도의 다른 단계에서 지침을 받았는가를 설명했다.

레오나르드 반데어 퀘입 교수(미국 하버드대)는 ‘쟈나미트라의 <대승아비달마집론> 주석에 대한 소고’에서 티베트본과 중국본, 산스크리트본의 주석서들을 비교했다.

티베트의 마하무드라(大印) 전통 연구자 울리히 팀메 크라우 교수(금강대)는 ‘유심(唯心), 텍스트 부재’를 발표했다. 크라우 교수는 남부 티베트 닥뽀지방의 <닥뽀전집>과 <유가사지론>을 날실과 씨실의 관계로 설명했다.

세계적인 고대불교사본 연구자 마츠다 카즈노부 교수(일본 불교대)는 ‘<해심밀경> 산스크리트 사본 단편’에 관해 발표했다. 마츠다 교수는 네팔 카트만두 국립고문서실과 독일 투르판 콜렉션에서 발견한 산스크리트 단편 사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시 제작된 상당수의 유사경전에 <해심밀경> 5품의 내용이 수록됐다”고 주장했다.

유식사상과 심층심리학을 비교연구중인 사쿠마 히데노리 교수(일본 츠쿠바대)는 ‘현장의 오성각별설, 인도에서 실제 찾을 수 있을까?’를 주제로 발표했다. 사쿠마 교수는 “오성각별설은 현장이 번역한 <불지경론>에 소개된 다섯 종성(種姓)의 체계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하루나가 아이작슨 박사(독일 함부르크대)는 주제발표 ‘유가행파와 금강승’에서 유가행파와 중관파의 관점에서 진언승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인문한국프로젝트 일환으로 개최됐다. 안성두 소장은 “세계적인 권위자들을 초빙해 <유가사지론>에 대한 지난 50여 년의 근대 불교학의 연구를 돌아보는 자리”라며, “이러한 담론이 한국 불교학계의 문헌학적 · 철학적 · 종교학적 문제의식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심, 텍스트 부재’를 발표한 울리히 팀메 크라우 교수(금강대).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김진성 기자 yearn@buddhapia.com

Tip 여기서 잠깐!

유식(唯識)은 “일체 만물이 오직 인간의 분별작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는 만법유식(萬法唯識)이란 말과 상통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유식설을 만들어 내고 발전시키고 계승하는 사람들을 유가사(瑜伽師)라고 칭한다. 미륵이 말하고 무착이 편찬했다는 <유가사지론>은 인도 유식학파의 기본문헌이다.

“불교근대화 위해 노력한 대표적 스님”

월초문도회 ‘월초 큰스님과 근대 교육사업’ 학술회의

동국대학교의 전신 명진학교와 경기도 남양주 사학명문 광동학원을 설립한 월초 스님의 업적을 재조명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월초문도회(문장 월운)는 10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월초 큰스님과 근대 교육사업’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월초 스님 열반 74주기를 기념한 이번 행사는 신용철 명예교수(경희대)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한동민 학예연구사(수원역사박물관), 김광식 교수(부천대)가 발표했다.

신용철 교수는 ‘한국 불교의 근대화와 교종(敎宗)의 본찰(本刹), 봉선사의 공헌’ 주제의 기조발표에서 월초 스님 시기의 시대적 사명과 스님의 업적을 설명했다.

신 교수는 “스님은 무너져가는 조선왕조 말 혼란기와 일제강점기를 살면서 선각자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운암 스님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봉선사에 머물던 운암 스님에게 월초 스님은 “총칼을 들고 일본 놈들과 맞서 싸우는 것만이 독립운동은 아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글을 모르고 배운 것이 없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서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분연히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계몽하는 것도 독립운동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월초 스님의 말에 운암 스님은 독립운동을 미루고 봉선사에 머물며 불교 교리를 배우고, 국민 계몽에 힘썼다. 3 · 1운동에 참가해 옥고를 치른 후에는, 상해임시정부에 참여하는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쳤다.

신용철 교수는 “월초 스님은 일제의 침입으로 야기된 혼란과 무기력 극복, 불교 근대화를 위해 노력한 대표적 스님”이라며, “1900년 국운의 안녕을 위해 수국사를 중건하고, 아관파천으로 위기가 고조되자 전국 각도의 사찰을 통하는 직제를 만드는 등 많은 업적을 세운 근대 불교의 선구자”라고 평가했다.

한동민 학예연구사는 주제발표 ‘한국근대불교사와 홍월초 스님’에서 “월초 스님은 1927년 봉선사 주지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그동안 받은 주지 월급을 봉선사에 환원해 모범적인 주지 상을 정립했다”고 말했다. 한 학예연구사는 “월초 스님은 올바른 승려 · 스승의 모습을 보여준 선지식”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식 교수는 주제발표 ‘홍월초의 꿈, 그의 교육관에 나타난 민족불교’를 통해 월초 스님의 교육관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월초 스님은 조선시대 산중불교를 민족불교로 되돌리겠다는 원력으로 교육불사에 정진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불교근대화를 추진한 불교연구회 회장 ▲명진학교(현 동국대학교) 교장(1905년) 및 이사장(1906년) ▲광동학원 설립 등 교육분야에 독보적 업적을 세웠다.

한편 월초문도회는 이번 학술회의를 시작으로 월초 스님이 건립했던 홍법강원 복원과 <수기집> 발간, 교육 및 학술 출판 사업 등 다방면으로 문조현양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수행사찰 요구·일본 잔재척결 의지로 ‘정화’”

금오선수행연구원 ‘금오 스님과 불교정화운동’ 발간

“정화운동은 종단 쟁탈전이 아닌 수행사찰 확보 운동이다.”

비구 · 대처간 다툼으로 알려진 정화운동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는 책이 출간됐다.

금오선수행연구원(원장 월서)이 금오 스님 열반 40주기를 맞아 10월 16일 발간한 <금오 스님과 불교정화운동>(전 2권)에 따르면, 정화운동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로 인한 조선불교의 몰락에 반발해 시작됐다. 책은 “국권침탈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불교정화운동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적었다.

한일합병 당시 비구승들은 대처육식하며 부처님 계율을 어지럽히는 대처승들에 깊은 반감을 갖고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시퍼런 서슬 앞에서 의지를 표출하기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랐음에도 용성 스님의 건백서 이후 금오 스님 등 몇몇 비구승들의 수행사찰 요구가 계속됐다.

비구승들의 잠재된 정화의지를 정화운동의 근간으로 서술한 책은 “한국불교정화운동은 수행사찰 요구와 이승만 정권의 일본잔재 척결 의지가 합쳐 일어난 운동”이라 주장했다.

같은 날, 세종문화회관에서는 금오선수행연구원 주최로 <금오 스님과 불교정화운동> 출판 기념 법회가 봉행됐다. 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자승 스님(중앙종회의장), 혜자 스님(도선사 주지), 세민 스님(조계사 주지) 금오문도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10월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혜정 스님 등 금오문중 스님들이 기념떡을 자르고 있다.

지관 스님은 축사에서 “정화운동은 금오·동산·효봉·청담·자운 선사와 같은 대선지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금오 스님은 앉아야할 때 앉고, 떠날 때 떠나고, 머물러야할 때 머문 청정수행인”이라고 말했다. (02)919-0211 조동섭·김진성 기자

선 · 정토 특이·동질·일치성 살피니 ‘선정일치’ 경향

한국선학회 ‘선과 교학의 만남’ 추계학술대회

자력 수행(선)과 타력 수행(염불)이 만나는 곳은 어디일까? 불교계 각 종단에서 뚜렷한 입장 없이 대표 수행법으로 선과 염불이 사용되는 가운데, 선과 정토의 관계를 진단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한국선학회(회장 김영두)가 ‘선과 교학의 만남’을 주제로 10월 10일 동국대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법상 스님(동국대)은 ‘선과 정토’를 주제로 발표했다. 스님은 선과 정토를 특이성, 동질성, 일치성으로 나눠 한국불교의 선정일치 경향을 정리했다.

이날 대회에는 최기표 교수(금강대)가 ‘한국의 선전통과 천태종’, 정성준 연구교수(동국대 BK21)가 ‘유가행을 통한 선과 밀교의 소통 고찰’, 윤양호 교수(원광대)가 ‘점수와 돈수의 관점에서 본 현대미술’, 정운 스님(동국대)이 ‘<능가경>의 선관 소고’, 김호귀 연구교수(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가 ‘규기 <금강반야경찬술>의 분과의 내용과 특징’을 발표했다.

조동섭 · 김진성 기자

문화재연감 2008 발간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2007년 동안 추진된 문화재청의 정책과 성과 등을 담은 <문화재연감 2008>을 발간했다.

연감에는 2007년도 문화재 지정 · 등록, 보수 · 정비 및 조사 · 연구 실적과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세계유산 등재, 문화유산 교육 및 1문화재 1지킴이 활동 등이 수록됐다. 조동섭 기자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 화 사

양화사 건강원 귀 자원봉사의 집 귀 서금요법수지침술

▷전국불우 이웃 및 소년 소녀가장「무료봉사」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 ◁

인간 생명의 존중과 복지사회구현을 실현하여 건강백세의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기위한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 드리기 “자원봉사의 집”양화사 입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근본이념으로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전국에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이웃(생활수급자 · 생활보호대상자 · 소년소녀가장)분들에 대하여 건강을 찾아서 사회의 일원이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원봉사의 집”입니다.
※전국에 거주 하시고 계시는 몸이 불편하신 불우 이웃분들에 대하여 관할지역 읍 · 면 · 동사무소의 “확인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주시면 최선의 노력으로 “무료봉사” 하여 건강을 찾아 드리는 일에 성심을 다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성인성,부인성 질환)(아토피,피부질환)(신경통,관절질환)(디스크,혈압질환)(불치,난치성질환)(희귀성질환) 등에 대하여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등으로 “무료건강상담”하여 드립니다.
(서금요법, 수지대체요법, 자연치유법, 체질개선)(수지기능식품, 자연식품, 건강식품)등으로 "무료봉사"하여 건강을 찾으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금요법 · 수지대체요법 · 수지침 ·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전국불교종단, 사찰, 불교대학, 불교단체등에 대하여서는 "무료출장교육"하여 드립니다.
※ 서금요법,수지침은 건강관리와 "수지침자원봉사" 고령화시대에 가장효과적인 대체의학이며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면 "자원봉사"에 참여 하실수가 있습니다.
※ 서금요법,수지대체요법,수지침,전국각종단체등"무료출장교육"신청삼담을 받고있습니다.

서금요법 · 고려수지침술요법학회 남수원지회. 분회 (지회장 : 한상기 / 분회장 : 천광)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7-4번지 201호
※ 문의 및 상담전화 : 031)251-2213,254-2213 / 휴대폰 010-3013-2213 / 팩스 031)258-2213 ※ 불자님들의 정성이 어둡고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에 밝은 희망의 등불이 됩니다.
※ 후원계좌 : 농 협 207186-51-050820 / 국민은행 877001-01-362102 / 제일은행 604-20-378236 / 우체국 104323-01-001733(예금주 : 한국근본불교조계종양화사)
※ 불자님들의 후원금과 불사금 및 수익금 전액에 대하여서는 전국불우이웃 “무료봉사” 건강찾아주기 “자원봉사의 집”에서 포교 및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 근본불교조계종 양화사 (자원봉사의 집) 주지 천광 합장

종무원 구함

참사람 수행도량 〈백운암 상도선원〉에서 종무원을 모집합니다.

◆업무 : · 종무행정(재무)
· 컴퓨터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등)
◆연령 : 40세이하
◆구비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진
◆급여 : 추후 결정
◆기타 : 출퇴근 가능자, 4대 보험 적용
1차 서류전형 후 개별 연락

※접수 및 문의는 이메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sangdo3391@naver.com

대한불교조계종 백운암 상도선원
서울 동작구 상도동 79-60 02)815-0198



“장인의 비결은 바른 생각과 안목”





“이 사람아! 이음새 하나가 천년을 결정 하는겨”라는 모 증권회사의 CF광고 한마디는 시청자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전통문화를 알리고 싶었던 최기영 대목장이 건축현장에서 중요한 ‘이음새’를 광고 멘트에 넣은 것이다.

#이음새 하나가 천년을 결정

“그 한 마디는 후배 장인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 우리의 전통건축물은 이음새 하나로 백년을 가기도 하고 천년을 훨씬 넘기도 혀. 봉정사 극락전이 천이삼백 년 된 건물인데 아직 건재하잖아요.” 예부터 ‘대목장(大木匠)은 정승감이어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 조선 세종시대 기록에 의하면, 1497년 숭례문 개축공사 때는 대목장이 정 3품 벼슬에 임명되기도 했을 만큼 우대했다. 현재 국보급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들이 대부분 목조 건물인 것을 인식할 때 오늘날에도 대목장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리는 ‘제9회 한국문화재기능인작품전’ 준비로 분주한 최기영 회장을 만났다.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대목장 도편수 보유자이자 (사)한국 문화재기능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기영 대목장은 육십 다섯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몸은 다부져 보였고, 목소리는 우렁찼다. 전통문화에 대한 그의 애착이 남다르다 보니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에 쏟는 정성 또한 대단하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전’의 공신력과 위상은 대단히 높다. 올해는 대목, 소목, 목조각, 석조각, 칠공예 등 13개 분야에 150여명이 참가하여 200점에 달하는 작품을 내놓았다.

#실기 이론 고루 갖춘 장인 배출

최기영 대목장은 지금 남양주에 대지 1만600여㎡에 건평 5000여㎡에 달하는 ‘중요무형문화재 대목장 전수교육관’을 건립하고 있다. 사재를 다 털어서 건립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길이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전통건축을 공부하는 후배 장인들을 위함이다. 각 시대의 대표작품과 무형문화재의 작품 등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한 눈에 다 볼 수 있도록 전시할 계획이며, 강의실을 마련하여 실기 뿐 아니라 이론에도 능한 장인들을 배출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최기영 대목장은 10대 시절 궁핍했던 집을 떠나 불제자가 되고 싶어 오대산 상원사로 들어갔다. 머리 깎고 탄허 큰스님 시중을 들면서 행자로 지냈다. 행자 생활을 한 지 8개월이 지났을 무렵 상원사에 큰 불사(佛事)가 있었다. 깊은 산중에서 진행되는 불사의 현장을 지켜보았던 열일곱 살 소년은 무언가 끌리는 것이 있어 일 좀 배우게 해 달라고 졸랐다. 그것이 목수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되었고 오늘날의 중요무형문화재 최기영 대목장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다.

“난 그냥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일이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일해 왔어.”

17살 때 시작한 목수 일이 두 해가 모자라는 50년 세월을 앞두고 있으니, 반세기를 달려 온 셈이다. 2000년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도편수 대목장’ 보유자로 인정받았으니, 그동안의 모진 고생이 헛되지는 않았다.

목수일의 시작은 끌 다루는 일부터 시작하여 끌질에서 대패질, 대패질에서 자귀질, 자귀질에서 드디어 먹 긋는 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남달리 눈썰미가 좋고 손 맵시가 있던 최기영 대목장은 먹 긋는 일은 단연 으뜸이었다. ‘먹을 긋는다’ 것은 건물을 설계하고 구조를 결정하는 일인데, 먹 긋는 솜씨를 갖추어야만 대목장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그가 이제까지 해체 보수하거나 새로이 지은 건물은 안동 봉정사, 마곡사, 송광사, 다산서원, 용문사, 태안사, 왕건 사당, 봉은사, 청평사 등 200채가 넘는다. 그중에는 최고 문화재급 건축물도 많다.

#백제의 건축을 되살리다

대목장은 기술뿐 만아니라 재료를 골라내는 탁월한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며, 풍수지리에도 능해야 하니 다재다능한 것은 틀림없다. 목재에 대해서 물었더니, “우리나라의 소나무는 사계절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강(剛)과 유(柔)가 반반씩 섞여 있어 재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송진의 질도 좋아 제일로 치지요. 그리고 목구조는 찢어지고 망가지면서도 스스로 버티어 낼 수 있을 때까지 버티어 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답했다.

“장인의 비결 별 것 아녀. 바른 생각과 안목을 가져야 해. 스승이 열 개를 알고 있으면 가르쳐 주는 것은 세 개 정도야. 그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야 혀. 남 잘 때 덕수궁 담장을 셀 수 없이 넘었고 그곳에서 밤을 새기 일쑤였어. 남 쉴 때 대패질과 못질을 한 번이라도 더 했으니 여기까지 온 겨.” 그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 본 일 없고, 일 년에 일주일 이상 쉬어 본 적이 없다”고 회고했다.

최기영 대목장은 고궁의 건축양식과 문양 등을 살피며 독학으로 연구하였고, 건물의 설계도면까지 그려낼 정도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하고 있다. 뒤늦게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고 2002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사학위를 받았다. 막내아들과 같이 대학원 수업을 들으며 건축학을 공부했을 정도로 그의 학구열은 뜨겁다. 지금은 한양대, 고려대, 목원대, 중앙대, 인하대 등 여러 곳에 강의를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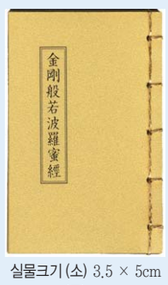
한수 이남에선 천년 역사를 넘나드는 또 한편의 대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책임 감독을 최기영 대목장이 맡고 있다. 충남 부여군 합정리 일대 백만 평에 들어선 <백제역사 재현단지>는 백제가 부여를 도읍으로 삼았던 서기 600년대 한옥 184동을 되살리는 작업이다.

천 년 전 전란 속에 불 타버려 국내에선 이미 사라진 백제 건축양식을 찾기 위해 백제와 활발하게 교류했던 중국의 낙양 · 서안과 일본의 교토 · 나라 등을 20여 차례 답사하여 고증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대들보와 서까래에 걸친 목재가 지렛대 역할을 해 처마의 하중을 버텨주는 백제시대 ‘하앙식(下昻式) 공법’을 밝혀내었고 그것을 백제 궁궐에 적용했다. 200채가 넘는 건축물 가운데 최고 작품은 무엇인지 궁금하였다.

“기능인의 작품이란 세월이 흐를수록, 숙련 될수록 더 좋은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현재보다 좋을 수는 없는 것이여. 그래서 나는 현재 짓고 있는 작품이 최고야.”

이 한 마디에 사람들이 왜 그를 두고 ‘최고의 장인’이라 칭하는데 주저하지 않는지를 알게 되었다. 최기영 대목장이 천 년도 거뜬히 버티어 낸다는 소나무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복장의 식 상량 식 불사 장엄 소영 사용 가천 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 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옴마니반메훔족자
60 × 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온열뜸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용품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안출원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지유 스님 '수심결' 법문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사진**)의 특별한 법석이 4일간 마련된다.

부산 범어사는 10월 21일부터 4일간 매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동안 침계루에서 조실 지유 스님의 <수심결> 특별 법문을 연다.

참가비는 5만원이고, 범어사 종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051)508-3112

박지원 기자

정토사 동문 함께

제8회 한마음체육대회



정토사는 제8회 한마음체육대회를 10월 12일 개최했다.

울산 정토사와 정토사 불교대학 졸업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의를 다졌다. 정토사(주지 덕진)는 10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동천실내체육관에서 제8회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정토사 불교대학 1기부터 24기 주·야간 수료생을 각 50명씩 보시팀, 인욕팀, 선정팀, 지혜팀 등 총 4개 팀으로 나눠 계주·피구·족구·줄넘기·훌라후프·제기차기 등 다양한 경기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주지 덕진 스님은 "불교도, 체육도 한마음이 돼야 한다. 나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보살행을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는 정토사 창건 20주년으로 불자들이 한층 더 신심을 낼 수 있는 시민선원을 개원했으니 단합된 한마음으로 불법홍포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1월 7일 오전 10시 정토사 창건 20주년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세계속 한국불교 터전 만들어요"

홍법사 10월 13일 대웅보전 상량식

불심의 도시 부산에 국제종합불교센터가 들어선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10월 13일 오전 11시 건립 중인 대웅보전 상량식을 갖고, 국제종합불교센터로 도약할 기틀을 마련했다.

홍법사가 현재 건립 중인 국제종합불교센터 대웅보전은 지난 6월 27일 기공식을 갖고 연건평 1980㎡, 3층 규모의 대불을 포함해 총 7층 규모로 건립된다.

대웅보전 내부에는 기도와 법회만을 위한 기존 법당의 개념을 넘어 제사와 참선, 문화 기능을 두루 갖추게 된다. 또 요사채는 침대와 샤워시설을 현대식으로 완비해 호텔에 못지않은 편안한 숙식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상량식에는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동국대 경주캠퍼스 손동진 총장, 열린종교 방영식 목사 및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진행됐다.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법어에서 "홍법사가 장차 국제종합불교센터라는 큰 뜻을 이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는 열린 종교의 중심지가 되어 세계로 뻗어나가야 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정우 스님은 홍법사의 발전을 기원하는 금강저를 심산 스님에게 선물했다.

상량식이 끝난 후 대불이 모셔질 대웅보전 옥상을 외부인에게 처음 개방해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지원 기자hdbp@hanmail.net



홍법사는 10월 13일 대웅보전 상량식을 열고 국제종합불교센터로 한걸음 다가섰다.

인터뷰-심산 스님

"초심 잃지 않고 최선"

"초심을 잃지 않고 국제불교센터로서의 위용을 갖추는 그날까지 지극한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종합불교센터로 세계 불교의 중심이 될 홍법사의 새 대웅보전은 일반적인 사찰 양식이 아닌 미래에서 온 듯한 커다란 우주선을 닮아있다.

심산 스님(**사진**)은 "원형으로 설계해 동, 서, 남, 북 어느 한 방향이 아닌 모든 곳으로 두루 원만하길 바라는 뜻이 담겨있다"며 "굳이 옛것을 따를 것이 아니라 현대의 양식으로 가장 우수한 건물을 지어 후세에 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오늘은 신도님들의 신심·원력이 봉우리를 맺는 날이다. 완성이 아닌 시작에 서 있는 것으로 앞으로 이뤄나가야 할 과제가 더 많다"며 포교에 관한 뜻을 밝혔다.

박지원 기자

산보다 높은 불심으로…

김해·천안·원주·포항불교산악회 연합법회



10월 12일 김제 청암사에서 김해·천안·원주·포항불교산악회가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김해, 천안, 원주, 포항불교산악회가 10월 12일 오후 3시 김제 청암사(주지 상덕) 자양전에서 김해산악회 주최로 500여 명의 산악인들이 모인 가운데 연합법회를 가졌다. 김해 사암연합회장 성남 스님의 축사에서 "인연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좋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이렇게 좋은 만남을 한번으로 끝낼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인연으로 이어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해산악회 천상조 회장은 개회사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부처님법을 널리 알리는 큰 뜻을 지닌 만남의 법회인 만큼 진정한 불자산악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약속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집중수행으로 화두타 파!

벽송사 11월 1~8일 재가자 선회

한국 간화선의 근본도량 벽송사에서 재가불자를 위한 간화선 수행의 이론과 실참 향상과정인 벽송선회를 최초로 연다.

조계종 함양 벽송사(선원장 월암)는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제1회 재가불자를 위한 지리산 벽송선회를 개최한다.

이번 재가불자 벽송선회는 10월초 중창불사를 계기로 모든 재가불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명실상부한 사부대중의 수행처로 거듭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재가 수행자들이 선원에서 실참과 간화선 강의로 집중수행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박8일간 선교겸수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 새벽, 저녁에는 실참수행을 하고, 오전과 오후에는 간화선의 바른 길인 <간화정로>(클리어마인드 刊)를 강의한다.

첫날 입재식에는 덕숭총림 수좌 설정 스님의 입재 법문을 시작으로 둘째 날부터 '간화선의 역사' '정견의 확립' '돈오견성' '간화선 향상일로' '화두와 실참' '간화선과 일상생활' '간화선 수행의 요체' '간화선과 중생회향' '선과 노동' '동정일여의 수행' '한국 선사상' 등을 강의하고 모든 강의는 선원장 월암 스님이 맡는다.

선원장 월암 스님은 "벽송사는 만인의 수행귀의처로 거듭나기 위해 재가불자를 위한 벽송선회를 처음 열기로 했다"며 "사부대중이 한 자리에서 수행하는 모습은 불가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50명으로 참가비는 30만원이며 신청기간은 10월 10~25일 전화로 접수 가능하다. (055)962-5661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울산 월봉사 주지 오심 스님

전방위 포교, 만능 엔터테이너

"매일 아침 기대와 설레임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중략) 매일 보람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발원문의 청취자 여러분에게 행복한 하루를 열어줄까 해서 준비해봤는데요. 힘이 나시나요? 불기 2552년 10월 15일 오심 스님의 아침을 여는 음악 상쾌한 아침, 신나는 노래로 열어볼까요? 바스코가 부릅니다. 덤벼라 세상아!"

매일 아침 8시 20분 어김없이 라디오에서 편안한 스님의 목소리가 들린다.

울산 월봉사 주지 오심 스님은 적극적인 포교를 지향한다. 2002년 부산불교방송에서 '생활 속의 부처님 말씀'을 2년간 진행하고, 2008년 초에는 6개월간 불교TV에서도 출연한 만능엔터테이너 스님이다. 스님은 "신도들이 알아서 찾아오길 기다리기 보단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포교를 해야한다. 포교는 아무리해도 모자람이 없다"며 법회 뿐 아니라 TV, 라디오, 지역축제 등 불자들을 만나는 다양한 문을 열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스님의 열린 포교 마인드는 월봉사 앞에 붙는 수식어에서 한 눈에 알아차릴 수 있다. '달빛 고운 절' 월봉사. 사찰이름에도 브랜드 네이밍이 필요하다는 게 오심 스님의 포교전략이다. "언젠가 동해 근방의 어느 사찰에서 '세계희귀연꽃모음 절, 00사'라는 이름을 보고 감성을 자극해 오래 기억에 남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울산의 수많은 사찰 중에 차별화할 수 있는 월봉사만의 브랜드 네임을 만들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다도회의 이름도 '달빛 다도회'다.

오심 스님의 남다른 포교 마인드는 통도사 교무국장, 총무원 포교국장 등을 거쳐 월봉사 주지로 취임하며 정점에 이르렀다. 현재 월봉사는 어린이법회, 월봉사 유치원, 울산과학대 불교학생회, 교양대학 8기 등 19개 신행단체가 활동 중인 살아 숨쉬는 절이다.

최근에는 인접한 현대중공업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발길이 점점 잦아지고 있고, 타지의 불자들이 성지순례를 오기도 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회와 보다 체계적인 월봉사 탐방 프로그램 개발에 고심이다.

스님은 "월봉사는 신라 경순왕 때 일산 해수욕장에서 산을 바라보니 달이 휘엉청 밝아 있기에 그 자리에 절을 짓고, 앞으로 큰 사찰이 될 것이라 예언을 한 곳"이라며 "고풍스러운 법당이 전통 사찰의 감흥을 간직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찾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심 스님은 울산시립노인요양원의 원장으로 지역 사회에 한 발 더 다가선 포교를 하고 있다. "요양원도 다른 형태의 포교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 그림 한 장, 책 한 권 갖다놔도 포교 효과가 크죠." 이곳에 일하는 600여 명의 자원봉사자 역시 스님에게는 포교 대상이다.

근엄한 주지 스님이지만 때로는 신도들을 위해 나훈아의 '공'을 멋지게 불러줄 줄 알고,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자격증으로 개그맨보다 더 재미있게 어린이 캠프의 사회를 보는 오심 스님의 포교는 '열정'이다.

박지원 기자

사찰 이름에 브랜드 네이밍 도입…포교 다각화

장사 성공의 법구 금강삼고저

안되는 장사, 안되는 사업, 산재 사고도 예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법구인 금강삼고저는 밀교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가 보기만 해도 도망가고 화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며 사업장의 성공을 위해 동서사방에서 인연의 귀인들을 불러드리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심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문안쪽 위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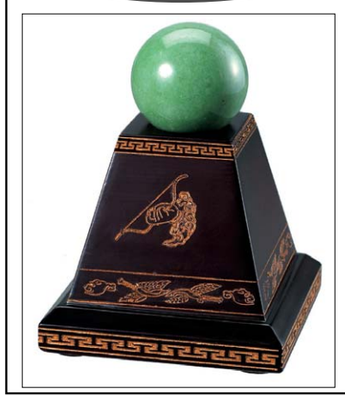
장사와 사업 흥왕의 비방 법구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영험의 구슬

보궁여의주

필승합격과 승진의 영험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것이 이루워 진다는 구슬이다.

전설에 따르면 아들형제를 데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머니가 남섬부주 바닷가에 떨어져 있는 구슬두개를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해 집에 가져왔다.

집에는 관료가 되어 어머니를 편히 모시겠다는 형제가 시험만 보면 번번이 낙방을 하며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아들에게 집에 오는길에 예쁜 구슬을 주었다고 보여주었다. 구슬을 본 형제는 참 신비한 구슬 갖어요, 어머니는 아들 형제에게 하나씩 주었다. 그후 매번 낙방만 하던 형제가 그해 관료에 등과되어 어머니는 소원을 이루고 건강장수 하고 관료가된 형제는 큰 공덕을 쌓으며다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각종 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와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만 있어도 독이 헤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 용궁에도 있고 여의륜관세음부처님 두손에도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가 이루워지는 비방의 법구로 삼고 있다. 시험을 보고나면 꼭 1~2점차로 낙방을 한다. 수험생들은 한두문제로 인해 1년을 또 고통속에 시험 준비를 하고, 승진시험도 승진심사날 심사위원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달려있다.

■시험을 보면 꼭 1~2점차로 낙방

보궁여의주는 수험생에게 부처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주고 부처님 가피로 승리하는 비방의 법구다.

불광사에서 필승합격과 필승 승진을 위한 축원불공을 마친 보궁여의주는 길상원목으로 품위있게 제작하고 수험생의 필승합격을 위해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준다. (신용카드분할가)

보시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염주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행운의 염주,불멸의 염주







특별선물 : 단주 또는 합장주 택1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 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의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 또는 합장주를 특별 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불교적 프로그램 운영할 것"

바라밀실버하우스 10월 15일 개원

광주에 불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개원했다. 사회복지법인 바라밀(이사장 현고)는 10월 15일 노인전문요양시설 바라밀실버하우스 개원식을 개최했다.

바라밀실버하우스는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1067-9번지 일대에 지상 2층, 지하1층 총 560평 규모 시설로 세워졌다. 노인전문요양원 60명, 단기보호 20명, 주간보호 20명, 방문요양 80명이 수용 가능하다.

개원식에는 영조 스님(송광사 주지), 현지 스님(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장), 무이 스님(광주불교사암연합회 부회장)을 비롯해 전갑길 광산구청장, 강박원 시의회의장, 김성이 前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10월 15일 광주 바라밀실버하우스 개원 기념 커팅 장면.

현고 스님은 인사말에서 "정부가 빌려준 민간위탁 시설에 의존해 정부 지침에 따라 피동적 복지사업이 아닌 불교만의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이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시민들의 안식처 되고파요"

원각사 7080음악회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는 10월 11일 원각사 마당에서 '추억의 7080 가을음악회'와 <대발해>의 작가 김홍신씨를 초청해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을 개최했다.

행사에서 김홍신 작가는 "중국의 동북공정이 진행되는 이때에 발해에 대한 역사적 조명은 오늘날 한국에 대한 역사적 정체성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대발해>가 작은 보탬이 되고, 국민들에게 발해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작가와의 만남에 이어 진행된 산사음악회는 인도네시아의 인형극을 포함해 광주지역 대표적 가수인 바위섬의 김원중씨와, 남성포크 트리오 '소리섬 사람들', 우리문화연구회 '소리노리' 등이 공연했다.



10월 11일 '추억의 7080 가을음악회'에서 '소리노리'가 공연하고 있다.

행사를 준비한 윤오준 사무국장은 "어려운 경제현실에 살아가는 많은 시민들에게 사찰공간이 작은 힘이 되는 공간이었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5회를 맞은 이번행사는 광주의 대표적 축제로 50만명이 참여하는 충장로축제의 일환으로 열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내장사서 각종 차 선보인 녹향제 열려

단풍과 차로 유명한 정읍 내장사(주지 대원)에서 10월 11일 녹향제가 열렸다.

내장사와 정읍지역 차(茶)인 모임(사)샘골 다례원(이사장 정기진)이 공동개최한 녹향제는 행위예술가 한영애씨의 길닦음 공연을 시작으로 동희 스님, 범밀 스님, 일구 스님의 영산재, 헌공다례와 대전방송국 금관5중주 등의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경남 의령(말차)을 비롯해 산청(흙차), 전북 남원(청차), 임실(연차), 정읍(황차), 완주 송광사(백차) 등 6대 다류 시음회와 들차회도 마련돼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생명·인격가치 가장 소중"

설정 스님 치명자산 성지 특별미사서 법문

지리산부터 묘향산까지, 진정한 소통을 위해 오체투지순례단이 지리산 노고단을 출발한지 38일째다. 설정 스님(수덕사 수좌)이 오체투지 현장을 찾아 10월 10일 전주 대성동 천주교 치명자산 성지 특별미사에서 강론해 눈길을 끈다.

천주교 치명자산 성지는 1801년 신유박해 당시 처형된 호남에 처음 천주교를 전파한 7명의 유택이 안장된 곳이다.

특별미사는 '사람의 길, 평화의 길, 생명의 길'을 주제로 열렸다. 오체투지 순례단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 전종훈 신부 외에 강론한 설정 스님, 신부 수녀님 등 700여 명의 대중이 함께 했다.

설정 스님은 '종교화합과 생명평화의 길' 주제 특별강론에서 "치명자산 성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오체투지의 정신을 되새기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을 함께 나누자"고 제안했다. 스님은 "최근의 종교편향 문제는 가장 모자란 사람들이 하는 편협한 행동이며 사람을 평등하지 하지 않는 것. 삶의 평화를 깨는 것"이라 질책했다.

스님은 "물질은 가장 하위 가치로 '자연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생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나와 삼라만상을 동일시하는 생명가치와 인격가치"라 주장하며 환경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스님은 "계층간, 노사간, 국민과 정부간, 종교간 신의가 무너지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오체투지의 진정한 정신은 정성스러움과 공경, 신의 원리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가치 창조에 있다"며, "참생명, 평화, 사람의 길을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10월 10일 천주교 치명자산 성지에서 설정 스님이 특별 강론을 했다.

설정 스님 법문 전 오체투지 순례단과 대중들은 치명자산 성지 주변도로를 3바퀴 순회하고 가야금 3중주 공연, 시낭송, 판소리 공연을 관람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오늘은 산사에서 추억 만드는 날…

임실 제6탄약창 장병 · 가족들 가을 산사 나들이

군장병들이 부대 울타리를 벗어나 가을 산사를 찾았다.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는 10월 12일 임실 제6탄약창 장병과 가족 120여명을 초청해 가을 산사 나들이를 개최했다

원행 스님은 법어에서 "세월은 유수(流水)와 같고 사람들은 오욕락(五慾樂) 속에 빠져 모든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상(無常)을 느끼는데 집착하지 말고 자기의 분수를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한순간의 판단으로 일생을 그르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자장병들은 점심공양 후 전주 전북지역 포교사단 김석삼 사찰문화 해설팀장의 사찰안내로 금산사를 참배했다. 이어 설법전에서 주지스님과 대화를 갖는 등 산사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임실 제6탄약창 호국장영사 지도법사 이성강(향적) 포교사는 "장병들이 부처님 품에서 무사히 군 생활할 수 있도록 군포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10월 12일 김제 금산사에서 열린 장병 초청 가을 산사 나들이에서 원행 스님이 장병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전통불교영산회 '전통불교의식교육'

사단법인 전통불교영산회(회장 호산)는 10월 14~20일 곡성 무각사에서 '제10차 전통불교의식교육'을 개최했다.

영산회 이사장 혜령 스님을 비롯한 회원과 신규 교육생 등 60여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사찰 상용의식과 영산의식에 관한 집중교육 강좌를 열였다.

교육은 첫날 혜령 스님의 시련, 신중작법으로 시작해, 둘째날 불교의식에 대한 강의와 사물 및 바라 등이 진행됐다. 대령, 관욕, 시식, 다비의식, 구병시식과 같은 재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호산 스님은 "불교의식은 불교 수행과 교리가 포함된 종합적인 수행체계이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기존 회원들은 더욱 정진하는 계기로 삼고, 새로운 회원은 여법하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광주불교환경연대 임상숙 사무국장

"불법 실천이 최고의 NGO운동"

빛고을 광주에는 사람향기, 꽃향기가 가득하길 기원하는 불교 NGO 단체, 광주불교환경연대가 있다. 임상숙 사무국장은 광주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범일) 살림꾼이자, 환경의 길잡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명존중 · 평등사상입니다. 불자라면 당연히 이를 실천하기위한 수행을 해 나가야죠."



광주의 많은 불교 신행단체가 대부분 복지나 신행단체 중심이지만 광주불교환경연대는 다르다. 창립 초기부터 지역불교의 NGO단체로서 명확한 자기정체성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이다.

광주불교환경연대는 4월 19일 광주 무각사에서 출범했다. 광주불교환경연대는 생명, 생태, 환경을 애호하고 불교환경과 자연환경과 삶의 환경을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단체다.

포교가 무엇인지 묻자 임 사무국장이 단순명료하게 답했다. "자기가 맡은 일속에서 부처님처럼 살아는 것이 포교입니다. 그로인해 가정과 주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포교가 됩니다. 꽃은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지만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멀리까지 향기가 난다고 했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임 국장의 모습에서 불교의 미래와 희망을 일구는 원력보살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래서 일까 광주불교환경연대는 짧은 기간 많은 일들을 진행 중이다.

광주전남지역 사찰을 돌아다니며 환경법회 · 빈그릇운동 캠페인을 매월 두 차례 열고 있다. 환경법회에서는 먹거리에 대한 교육과 빈그릇운동 캠페인을 통해 음식의 소중함을 알리는 다양한 실천사업을 한다.

5월에는 망월동 5·18구묘역에서 '꽃 진자리 피어나는 희망'이라는 주제로 음악회를 열고 망월동 구묘역을 참배하는 시민들에게 차 공양을 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9월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 '제1회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활동가 쌀나누기' 사업도 진행했다. 불교계가 우리사회 곳곳에서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1000kg의 쌀을 추석 즈음해 24개 활동가들에게 전달했다.

임상숙 사무국장의 꼼꼼한 준비 속에 사찰생태기행도 열렸다.

출범 6개월을 갓 넘은 단체로 많은 사업들과 회원 확보라는 두 가지의 일들을 이끌어가는 임 사무국장은 "가정에는 늘 미안할 뿐"이라 말한다.

"불교환경운동 한다고 매일 바쁜 저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마음 넓고 착한 남편과 사춘기를 힘겹게 지내는 중학교 2학년 딸아이, 바른생활하고 책임감이 강한 초등학교 4학년 아들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말한다.

어느 날 아이들과 시골 한적한 곳으로 외식하러 갔던 임상숙 사무국장이 식당 근처에서 폐비닐을 태우는 모습을 보고 신고하느라 부산을 떤 적이 있었다. 그때 아이들은 "엄마는 늘 도덕적인 사람이야"라고 말했고, 임 사무국장은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스스로 부처님의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공부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임상숙 사무국장의 말에는 환경운동이 곧 부처님의 법을 실천하는 최고의 NGO운동이라는 신념을 보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남여공용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품격!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통상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Ⅱ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Ⅰ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 "카필라"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자를 한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매우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냄새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 있다.

최고급 천연방수 "뉴벅" 사용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며, 스님께는 승복색상에 맞추어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가죽 뉴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청하고 있다. 또한"카필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귀와 잡귀를 미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것이 독특하다. 성불화 "카필라"는 남여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싸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격 88,000원

레저, 등산엔 **아이젠 트래킹화!**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목·기관지가 불편할때

도라지 진액 상쾌 출시!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환절기에는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본인 모두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토종도라지를 눈여겨 보자.

도라지에는 탄수화물을 비롯한 칼슘, 철분이 풍부할 뿐아니라 라시코틴이란 성분이 목보호에 도움을 주어 예로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고려한방제약에서는 과학적인 연구토대로 이 사실을 알게되어 목, 기관지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토종도라지에 더욱 좋은 더덕을 추가하여 새로운 신제품 상쾌를 출시하였다. 고농축된 토종도라지 상쾌진액은 티스푼 반스푼 정도를 그대로 먹거나 물에 타서 1일 2~3회 간편하게 음용하면 된다. 가격은 종전 판매가130,000원에서 100셋트 한정 99,000원에 특별할인하여 공급하고 있다.





내용량 : 110g×3병

(주)고려한방제약

문의 1566-1940

농협 483-02-192611 전정호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 내용량 : 1박스(80㎖ ×60포) 2개월분 • 1병(1.5ℓ)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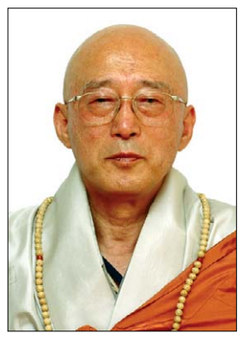
상담문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우리 종단을 말한다 ‖ 대한불교관음종

포교원장 법명 스님

"자비실천 활발한 법화 신앙의 본산"


관음종 포교원장 법명 스님.

전통불교의 원류를 쫓아 법통을 이어온 태허 스님은 해방 후, 동족상잔의 불안한 사회를 부처님 가르침으로 교화하고자 1965년 불입종을 창종했다. 지금의 대한불교관음종(종정 죽산 · 1998년 법인 등록 및 종단명 변경)의 전신이다.

관음종은 법화사상을 정혜(定慧) · 겸수(兼修)로써 체득해, 관음보살의 제세원력을 구현하는 것을 종지로 전법도생(傳法度生) 견성성불(見性成佛)을 지향하고 있다. 총본산 낙산 묘각사(서울 종로구 숭인동)는 1930년 5월 창건 이래 현재까지 <법화경>을 중심으로 수행과 대중불교 운동을 지향해, 법화 신앙의 중심사찰로 자리 잡았다. 풍수지리 상 '서울이 편안하고 시민생활에 안녕을 가져온다'는 자리에 위치한 묘각사는 서울시민의 안심입명(安心立命)의 귀의처로 청정 이웃에 대한 자비실천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각 지역의 산하 사찰에서는 약 30여 년간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교화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쓰나미와 중국 지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종도들의 힘을 모아 성금 지원에 앞장서기도 했다.

또한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일본 8대 종단의 사찰을 순

'법화경' 중심 수행으로 법화 신앙의 중심
불교문화대학 설립해 승단 · 재가불자 교육

법신의 구원불을 봉안하고 관음보살을 모시고 있다. 또한 이북 동포의 안녕과 남북통일을 염원하기 위해 석굴암의 모든 불상을 북녘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

본 종단은 삼보정재를 보존 · 발전시키고자 1500여 스님과 70만 여명의 신도가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고자 사회 · 교육사업 및 국제교류에도 힘쓰고 있음은 물론이다. 2000년부터 서울복지원을 설립 ·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4곳과 노인문화센터를 통해 보살사상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서울불교문화대학을 설립해 승단과 재가불자들에 대한 교육에 나서고 있다.

관음종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반 문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종단차원에서 소외된 방하는 등 일본 불교계와 30여 년째 교류하고 있으며, 미국에도 한국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한 불사를 준비중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2006년 3월에는 미해병대 사령부 영내에서 '6.25 참전 용사와 국제 분쟁에 희생당한 영가를 위한 합동 천도재'를 봉행했다.

앞으로 관음종은 서울불교문화대학의 발전과 학문적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소를 설립하고, 법화사상을 더욱 널리 알리고자 개산조 태허 스님의 유문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활성화해 불교의 위대한 사상과 정서를 널리 알리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총무원 (02)763-0054

정리=김진성 기자

연예인 불자들 '마음 내려놓기'

관음종 낙산 묘각사에서 16 · 17일 1박2일간 진행

"화려한 조명과 인기 속에 공허하고 우울해 하는 연예인들을 위로하고 마음으로부터 다시 태어나 국민 앞에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없기를 발원하는 소중한 모임이고자 합니다."

국민배우 故 최진실 씨와 故 안재환 씨의 안타까운 자살소식으로 연예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한국불교문화예술인연합회(회장 전원주) 연예인 불자들이 '내 마음 내려놓기'라는 주제로 1박2일 템플스테이를 가졌다.

관음종 총본산 묘각사(주지 홍파)에서 10월 16 · 17일 진행된 마음다스리기 수련을 통해 연예인 불자들은 "모든 행복과 불행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반듯하게 알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길잡이를 찾고자 사찰에서의 하룻밤을 결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16일 오후 묘각사 대웅전에서 열린 입재식에서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법문을 통해 "우울한 감정은 도미노처럼 확산이 빠릅니다. 더욱이 맡은 배역에 따라 급격히 감정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하는 연예인들에게는 그 사례가 쉽게 표면화되고 빠르게 전염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생사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생각이 바로 다음 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자살은 결코 고통의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삶의 마감이 다음 생의 인(因)이 된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로 보고 재정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10월 16일 서울 묘각사에서 전원주 · 선우용녀(앞줄 왼쪽부터) 등 연예인 불자 40여 명이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의 법문에 앞서 삼배를 하고 있다.

불교계 국제개발구호NGO 지구촌공생회(대표 월주) 홍보대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전원주 회장은 '마음 나누기'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이라는 직업이야말로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실상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러한 보살의 마음으로 대자비심을 일으켜 하나의 마음이 되고 일상에서 실천해 간다면 어떠한 역경에도 물들지 않는 청아한 연꽃이 되어 저마다의 향기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라며 동료들에게 당부의 마음을 전했다.

전원주씨를 비롯해 선우용녀 · 여운계씨 등 인기 연예인 불자와 관계자 40여 명은 참선수행과 108배 정진 · 새벽예불 · 요가 · 다도 등의 시간을 가지며 연예인 스스로는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맑은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재도약의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조동종 연수교육 및 사미 · 구족계 수계식



대한불교조동종 제11차 연수교육 및 사미계 · 구족계 수계법회가 10월 9~11일 충북 괴산 다보사 다보수련원에서 승정원장 달제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장 덕우 스님, 승정부원장 법공 스님, 교육원장 광혜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달제 스님은 법어에서 "조동종의 자부심을 가지고 묵조선의 일인자가 되어 어디를 가나 당당한 위풍으로 조동종의 가풍을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덕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우리 종단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나아가 묵조선풍을 이 시대의 불교 주역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국내 최초 일본 고판화
원주 고판화박물관서 전시

태고종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10월 19일부터 31일까지 '일본 고판화의 세계'를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2008년 복권기금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열리는 전시회에는 조선통신사 행열을 기록한 '조선인행열차제(1764년간)'를 비롯해, '목암열반도', '관음시현도', '4국88불판화' 등 불교판화와 '금강경변상도', '인과경변상도' 등 불교관련 목판본 10여 점을 선보인다.

한선학 관장은 "고판화박물관이 소장한 400여 점의 일본 판화 가운데 100여 점을 엄선했다"며, "국내에서는 최초로 일본 판화의 모든 것을 감상할 기회"라 말했다.

조동섭 · 김진성 기자

부천남부경찰서 금강·보살수계법회


10월 15일 부천 남부경찰서에서 열린 금강 · 보살수계법회 후 가진 기념촬영.

부천남부경찰서(서장 최경식) 경승위원회(위원장 성인 스님)는 10월 15일 경찰서 법당에서 '대한불교조계종 경승단 부천남부경찰서 금강 · 보살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식은 계증사로 성인 스님(대덕사), 진문 스님(자비사), 불광 스님(구월사), 평신 스님(무애암), 혜장 스님(죽림사), 혜명 스님(지장암), 보청 스님(성불사)이 참석했다.

덕만 스님(연흥사)의 집전과 부천남부경찰서 법우회 회장 김성수 경위의 사회로 부천남부경찰서 최경식 서장과 문휘부 부천시 경승협의회장, 김진배 부천시 경승협의회 부회장 등 불자 100여명이 동참했다.

김성우 기자

세계최대 다포양식 미륵보전 상량

천태종 대광사, 사대부중 2천여명과 봉행


10월 7일 봉행된 분당 대광사 미륵보전 상량식.

천태종 분당 대광사(주지 월산)는 10월 7일 세계최대 다포양식으로 조성되는 미륵보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 총무원장 정산 스님, 종의회의장 도정 스님, 감사원장 춘광 스님, 이대엽 성남시장,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분희 강원도지사부인 등 사부대중 2천여 명이 동참했다.

대광사 미륵전은 무형문화재 제74호인 신응수 대목장이 도편수를 맡아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면적 661㎡(200평)에 아파트 10층 높이인 33m 규모. 전통목조건축양식인 다포집(기둥머리 위, 기둥과 기둥 사이에 공간포(空間包)라는 두공을 배치한 형태)이며, 국보 제62호인 전북 금산사 미륵전과 같이 외부의 모습은 3층 전각이나 내부는 단층이지만 금산사가 외5포인데 반해 대광사는 외9포로 건설된다. 목재는 11t트럭으로 200대 분량이 소요됐다.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대조사전과도 같은 형태다.

김성우 기자

공 고

대한불교원효종 서울고등법원 제 25민사부 2007라1580 임시종정선임 김윤철(향운) 2008년 8월 25일 임시종정으로 선임되었으므로 종헌 제12장 종회 제 59조 교구종무원을 편성합니다. 전 종도들께서는 아래의 일정에 맞추어 해당되는 교구와 사찰 일정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 20일 월요일 – 부산 금수사 (부산 동구 초량동 843번지) 오후 4시
  울산 용주사 (울산 북구 매곡1동 47번지) 오전 10시
- 21일 화요일 – 경남 감로사 (경남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999) 오전 10시
  전라도 불교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학동 999) 오후 3시
- 22일 수요일 – 대전충남 법성사 (대전광역시 동구 효동 246-5) 오후 12시
- 23일 목요일 – 서울경기 진산사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2리 80-3) 오후 3시
- 24일 금요일 – 강원도 영금사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서곡3리 702번지) 오전 10시
  충북 보덕사 (충북 음성군 원남면 덕정리 1번지) 오후 4시
- 27일 월요일 – 제주도 보문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76-1번지)
- 28일 화요일 – 비구니회 추원사(경북 경주시 황용동 78-1번지) 오후 4시
- 30일 목요일 – 경북(북) 정토사 (경북 김천시 구성면 흥평1동 780번지) 오후 12시
  경북(남) 복원사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내태1리 875번지) 오후 4시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향운

내몸내가고치는 한국전통따주기 강좌(스님반) 안내

1. 한국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신비의 전통따주기 특징
가.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하며,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킵니다.
나. 월 1회 병 예방 따주기로 병 예방 및 건강관리 합니다.
다. 뼈 부러진 곳과 수술한 부위를 제외하곤 모두 적용됩니다.
(상기병, 혈압, 당뇨, 편도, 뒷머리 통증, 수절증, 탈모, 기억감퇴, 이명, 축농증, 감기, 안면풍, 여드름, 입술 부르틈, 버짐, 백반, 목, 어깨, 가슴 통증, 협심증, 신경성, 판막증, 정신착란, 우울증, 공포증, 심장협착, 스트레스, 적병(화병),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신장, 담, 명문, 소장, 비장, 대장, 방광이 나쁜 자, 자손 얻기, 검은 피부, 위경련(체함), 허리, 다리, 좌골, 관절염, 변비, 냉병, 생리불순, 치질, 정력증강(회춘), 병 예방 따주기, 담배 끊기, 술 줄이기, 神氣 있는 자, 엘보우, 병명이 나오지 않는 자, 피가 부족한 자, 갑자기 기력이 저하된 자, 하지정맥 등)
라.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마. 비장만 따도 내 병의 반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바.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사.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신도포교/ 자신 건강관리/ 따주기 사회봉사/ 건강 복 짓기 / 생활 속 비상 따주기 (풍, 급체, 기절, 경기 등)

4. 강좌 세부내용 (한번 수강으로 이론, 실습 모두 학습)
가. 1일차 (토요일 09 : 00 ~ 22 : 00)
◆ 우주의 기운 ◆ 인연과 탄생, 명부전, 병
◆ 전통따주기 개요, 인체의 구조 ◆ 5행으로 본 인체
◆ 전통따주기, 각 따주기 ◆ 피가 생성되는 기초따주기
◆ 신비한 비장따주기 ◆ 병 예방 비법
◆ 마음의 세계(마음 10단계) ◆ 실습
나. 2일차 (일요일 09 : 00 ~ 13 : 00)
◆ 신비한 수치의 비밀 ◆ 단번에 아는 남 · 녀 궁합 비법
◆ 대운, 연운, 월운, 일운 비법 ◆ 수상 및 관상 보감
◆ 성명 분석 및 작명 비법 ◆ 종합, 질의 및 답변, 지도사 수료증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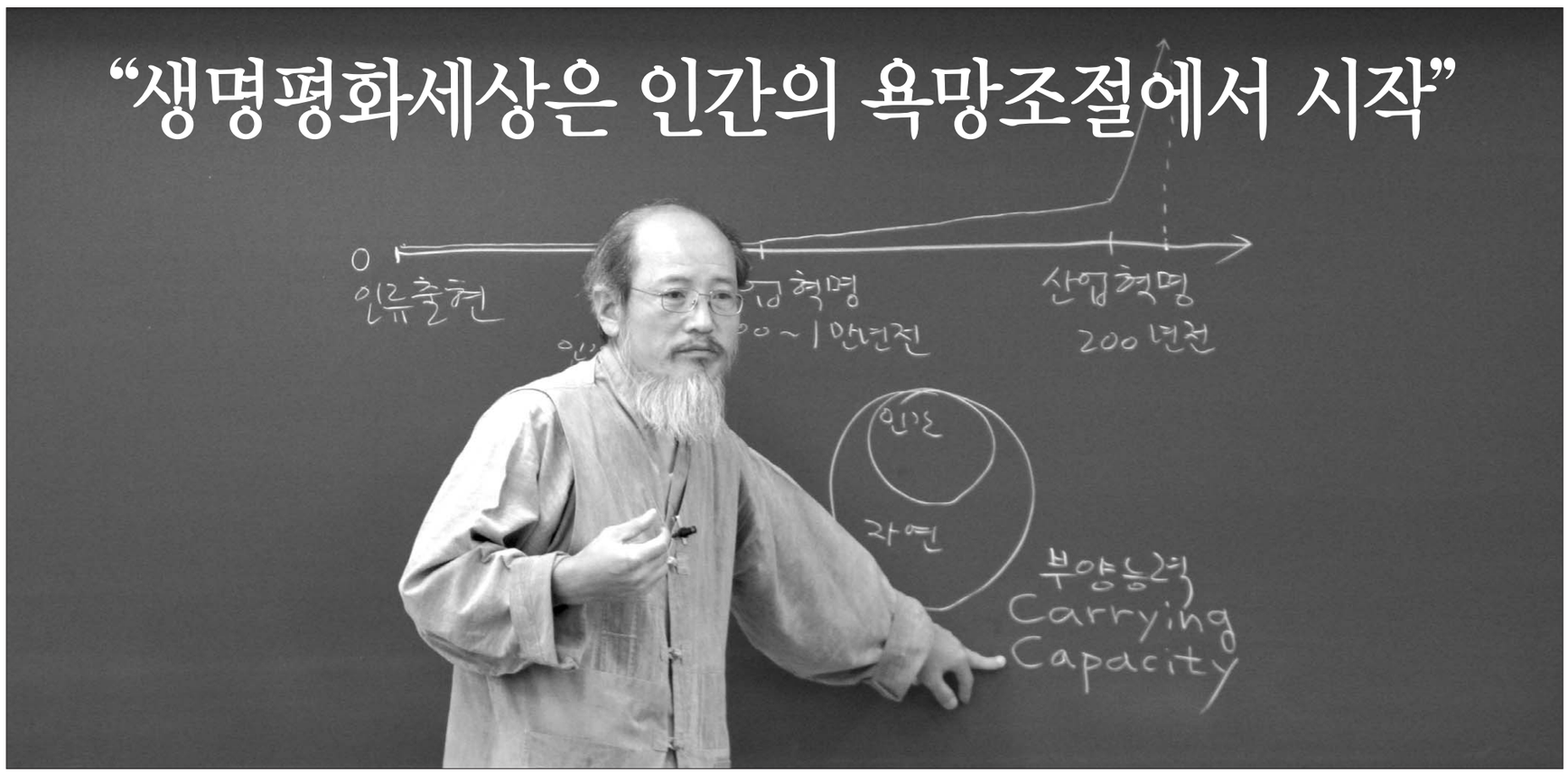
4. 강좌 일정 및 장소
가. 강사 : 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교수, 공학박사)
나. 일정 및 수강료 (스님반)
(1)일 정 : 2008. 11. 8(토) 오전 9시부터 ~ 11. 9(일) 오후 1시까지 (11월 7일 금요일 저녁까지 도착)
(2)수강료 : 34만원(옥황토방 숙박 및 자연식단 제공, 따주기 도구 및 비법교재 등 일 체 제공)
※ 강의개시 3일전까지 선착순 예약자에 한해 수강(선착순 12명)
다. 장소 : 충남청양교육장
라. 준비물 : 편한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문의처 : 041)944-2237, 010-3234-2237
(www.ddajuki.re.kr)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불광 생태 · 환경 강좌

"생명평화세상은 인간의 욕망조절에서 시작"

발 표 : 황대권(생태운동공동체 대표)
주 제 : 생명, 평화, 그리고 영적 각성
일 시 : 2008년 10월 15일
장 소 : 서울 불광사 불광교육원
주 최 : 조계종 불광사 · 불광법회



'열강' 하는 황대권 생태운동공동체 대표.

'저 생명 어디서 왔을까' 의문으로 생명에 대한 생각 일대 변혁
자연 속에서 찰라멸·찰라생 반복하는 것이 생명·인간의 모습

"민주정부가 되면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2번 경험하고 일어난 생각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야생초 편지>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로 잘 알려진 작가 황대권은 무려 13년 6개월간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하고 출소한 야생초 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독방에서 10여 년을 지낸 그는 "감방에서 잠깐 살고 왔다면 오히려 사무친 원망으로 세상에 독을 품고 살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무엇이 그가 생명 존중과 자연친화적인 삶의 방식을 깨우치게 했을까? '생명, 평화, 그리고 영적 각성'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들어보자.

생명에 대한 깨달음과 생각의 변화

독방생활 5년 동안 세상에 대한 분노, 원망만이 가득 차 심신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더 이상 사회의 이념에 대한 투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죽지 않고 살아 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가 됐습니다. 죽음의 고비에서 독방에 들어온 사마귀, 파리, 개미, 거미 등을 마주하게 됐을 때 문득 '저 생명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순간 내가 접하는 모든 것이 내 몸의 확장으로 인식되면서 생명에 대한 생각에 일대 변혁이 생겼습니다. 길가의 돌멩이와 풀, 그 어떤 것도 나와 무관한 것은 없고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도 의사도 없어 스스로 몸을 고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써봤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야생초 요법'입니다. 야생초는 옥중 동지이자 깨달음의 텃밭이었습니다. 야생초를 보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소중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갖가지 야생초를 2년 간 먹고 건강은 회복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니 긍정적 · 자연친화적으로 변한 마음과 생활이 완전한 회복을 가능케 했음을 알았습니다. 내 몸의 변화를 보면서 '자연치유' '자연의학'에 눈을 떴습니다. 진흙탕 속에서 진흙을 씻어내려면 더욱 더러워지듯 병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기보다 병을 잘 알고 병과 하나가 돼 자연치유를 해야 합니다.

문명과 지구

인간이 지구를 병들게 하는데 걸린 시간은 200년, 지구 역사 45억년 중 고작 0.0000004%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지구의 자연치유능력을 상실시켰습니다. 자연계의 순환법칙 '먹이사슬'은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개별 생명들은 전체의 부분으로서 기능하며, 서로 연결돼 하나의 큰 생명이 됨을 밝혔습니다. 생명은 먹이사슬의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삶과 죽음을 반복하며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명은 먹이사슬의 구조 속에서 ▲전체성 · 개별성 ▲관계성 · 순환성 ▲다양성을 유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지듯 자본주의는 확대재생산 하지 않으면 망하는 사회구조입니다. 계속해서 소비지향적인 발전을 추구한다면 한정된 자원이 있는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지구는 이상한 신호를 계속 보내옵니다. 첫째, '기후이상'입니다. 기후이상의 주범은 바로 이산화탄소며 이산화탄소의 급격한 증가는 세계자본주의의 엄청난 생산량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둘째, 멸종 즉 '생물의 종 다양성'의 감소입니다. 생물종의 감소는 생태계 먹이사슬 구조가 끊어짐을 의미하며, 필연적으로 생태계의 교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끊임없이 소비를 확대해야 유지되는 구조를 갖는 자본주의체제의 '소비증가율'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구증가율'입니다. 세계 유수의 과학자들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가 적정인구의 약 4배 정도"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

'문명'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만들어 낸 인간은 스스로 생명의 일반법칙에서 예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중심주의에 빠져 지구를 위기로 몰고 있습니다. 자연의 지배자로 나선 인간은 욕망의 끝없는 확대와 인구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생명의 관계성을 부정하는 식량생산 체제를 확립합니다. 인간은 생명의 일반적인 특성인 전체성, 다양성, 관계성을 모조리 부정함으로써 오늘날 생태계의 총체적 위기를 낳는 주범이 됐습니다. 인간은 뭇 생명들의 지배자나 관리자가 아니라 함께 공존 번영해 나가야 할 동격의 파트너일 뿐입니다.

생명에 대한 편견과 무지는 인간사회와 자연생태계를 전쟁상태로 몰고 갑니다. 평화롭지 못한 생명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함께 추구돼야 합니다. 평화는 나와 너가 다르지 않고, 서로 의지해 있으며, 함께 하나의 생명을 이루고 있다는 깨달음 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생명과 평화를 단지 과학적 측면에서 혹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서는 온전한 생명평화를 맛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생명과 평화가 유린됐던 것은 모든 생명 활동을 물질적 차원에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싸우고, 타협하는 모든 행위를 물질적 차원에서 행하는 한 인간은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연계의 다른 동식물과 다른 이유는 자유의지를 갖은 인간이 욕망에 이끌려 살기 때문입니다.

수행으로 지키는 지구의 미래와 우리

우리는 지금 지구에 세 들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주인이 아닙니다.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세를 들듯, 인간이 지구에서 살 때 자연의 법칙과 질서에 맞게 살겠다는 계약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은 당장 쫓아낼 것입니다. 바로 지진 · 태풍 · 홍수 · 괴질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기체로서 '온 생명'의 자연스런 반응(자율규제)입니다. 그러나 자의식으로 무장한 인간은 자연의 '자율규제'를 거부하고 자의식과잉 또는 욕망으로 자연을 조작합니다.

생명평화세상은 인간의 '욕망의 조절'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빈국으로 알고 있는 방글라데시나, 필리핀 같은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지수가 최고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살율과 이혼율이 세계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전철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어느 정도 증가할 때까지는 행복지수도 증가하나, 인간의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가 채워진 이후에는 행복지수가 하락합니다. 행복은 물질적 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입니다.

자연은 삶과 죽음의 연속입니다. 불교에서는 찰라멸, 찰라생, 공(空)을 말합니다. 자연 속에서 생겨났다 없어졌다 반복하는 것이 생명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노자는 "천지는 결코 인간을 위해서 존속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기대나 좌절, 희망이나 믿음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스스로 그러한 존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온전한 발현과 생명들 사이의 평화는 자기 삶에 대한 태도와 철학을 정립하고 끊없는 수행의 실현에서 시작됩니다. 도법 스님께서는 "수행이란 내게 익숙한 것을 익숙하지 않게 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물질문명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시에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행은 생태적인 삶의 자세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전통불교의식 수강생모집

기본과정
사물 다루는 법
각단예불
각단 각청 불공의식

49재 및 천도재 의식
범음범패
상단권공 및 대령관욕시식
천수바라무 · 오공양작법무

초 급 반 :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4시
중 · 고급반 :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오후 6시
수 강 신 청 : (051)243-3165 H·P : 011-887-8600

※ 영남의식을 기준으로함 ※ 승속 관계 없이 재가불자도 수강 가능
※ 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

범음범패 홍보원
홍은사 주지 성 각 합장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3가 31-153번지
전화 : (051)243-3165 H·P : 011-887-8600

ISA규정번호 890.5660, ACCESSION NO 0780530-000
미국 FDA에 등록된 자동치료기의 놀라운 효과
국제발명특허 획득! wo2004108049 수입독점공급
첨단과학기술로 탄생한 특수 보석렌즈를 통과한 빛이 어혈을 맑게 하는 자동치료기!
심근경색증 · 협심증 · 만성두통 · 생리통
당뇨, 동맥경화, 뇌혈전, 만성피로, 불면증, 뒷목뻣뻣, 갑상선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손발저림은 3~4일, 만성투통은 7~15일
도끼로 찍는듯한 가슴통증으로 고통받는 분에게 희소식!
지긋지긋한 편두통,생리통, 어지럼증 치료!
허혈성심장질환에 탁월!
착용만하면 자동치료

△POLA 팔찌

△POLA 반지
콜레스테롤함량,중성지방, 혈소판응집능, 혈액점조도 · 혈액의 주요지표들이 정상화되며 대사장애를 바로잡고 전신면역기능을 높인다.
만병을 일으키는 오염된 혈액을 맑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방문시 눈으로 직접 보여드립니다.
※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통증은 (두통 · 생리통) 즉석에서 완화되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18년간 1만명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실험 !
KBS일요스페셜(07,9,30)방영 / MBC통일전망대(06,11,22)방영
연합뉴스,문화일보,한국경제,내일신문,조선닷컴,동아닷컴보도
전화주시면 소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의학기공 연구회 02)3436-3206
2호선 구의역 1번출구 바로앞 구둣가게건물 205호
◇자매품 : 파워붕,골반사랑101,척추사랑(신선대)

“자기는 다스리고 타인에겐 베풀어라”

혜산 스님(익산 대용화사 주지)

젊게 사는 비결은 기도와 정진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데 일만시켜 도망

포교 성공하려면 스님들 相내지 말아야



황금빛 물결 일렁이는 가을 들녘 사이로, 굽이굽이를 물어물어 익산 대용화사를 찾았다. 익산은 과거 삼한시대 마한 지역이다. 대용화사가 있는 금마면은 마한에서도 중심지였다. 금마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했던 안승의 보덕국과 후백제 견훤의 왕궁이 있던 곳으로 멀리 미륵산 중턱으로 사자암이 보인다.

물 맑고 고요하기로 소문난 금마저수지를 지나니 야트막한 산자락에 익산 대용화사가 보였다. 도량 마당에서 울력하던 스님이 손을 멈추고 객을 맞는다. “어서오시오. 늙은 중이 뭔 꺼리가 된다고. 먼 길 오셨소.”

명절날 손자를 맞는 할아버지 같은 혜산 스님(71)의 미소는 용화산 자락에 자리해 금마저수지를 굽어보는 대용화사의 지기처럼 포근했다. 고희를 넘긴 세월을 스님은 어디로 흘려보냈을까? 우리 사는 색계와 달리 욕계의 하루는 길다던데. 사왕천이 50여 년, 도리천이 100여 년, 야마천이 200여 년, 도솔천이 400여 년. 스님의 용화세계는 수미산 어디 있어 세월을 멈췄을까?

“거시기 젊었을 때 정근 좀 했재. 목탁 한번 잡으면 2~3시간은 기본이었당께. 거시기 하루에 12시간 이상은 했당께. 시방은 늙어서 그리는 못혀부려.” 걸죽한 호남 사투리로 혜산 스님의 대답을 들었다. 하루하루를 젊게 사는 스님의 비결은 기도와 정진이었다.

혜산 스님은 고창 선운사 인근 석상마을에서 1938년 출생했다. 지금 선운사 대중처소 자리가 스님이 출생한 고모댁 자리다. 스님의 속가 고모부도 장성 백양사 스님이었다. 스님은 초등학교 이전부터 선운사 마당에서 시간을 보냈다. 선운사 대중스님들을 시봉하며 한문 등을 지도받았다. 9살에 <천자문>, 10살에 <명심보감>을 배운 스님은 일본 강점기에 서당이 폐쇄되자 소학교 3학년으로 편입했다. 고등학교까지 마치자 지중한 불연은 서슴없이 혜산 스님을 출가로 이끌었다.

“어려서 절에서 학교 다니며 대강백 한영 스님과 은사 운기 스님으로부터 경전을 배웠어. 그때 스님들이 ‘너는 꼭 스님이 돼 선운사를 크게 중창시켜라’고 말씀하셨지. 어려서 들은 스님들 말씀에 당연히 출가해야 하는 줄 알고 출가했지.”

혜산 스님은 경전 보는 것이 너무 좋았다. 하지만 경전만 보고 글공부만 하고 싶던 스님에게 운기 스님은 글공부보다 밭 가는 일과 논일을 더 시켰다.

“항상 선을 닦고 교를 생각하라는 분이, 일만 시키고 공부는 안시켰어. 선운사 토지가 넓은데 스님별로 구역까지 할당해서 풀 베라 할 정도였으니 꾀도 부릴 수 없었지. 참다못해 도반과 함께 만행을 떠났지. 짬지게 공부해보겠다고 떠난 것이 파주 보광사까지 갔다가 거기서 4 · 19를 만났지.”

혜산 스님은 그때부터 문수사, 망월사, 약수사, 호압사 등에서 수행정진 했다. 막상 객지에서 소임 사느라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스님은 기도 정진만큼은 쉬지 않았다. 대처승과 분규 중이던 서울 신림동 약수사를 되찾아 조계종단에 등록하기도 했다.

“삼보정재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 변호사 비용은 땅으로 주기로 했고. 3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승소했지만 한달 만에 약수사를 떠났지. 사람은 욕심이 없어야 해.”

분규 사찰을 되찾았을 경우 창건주에 준하는 지위가 보장됐지만 스님은 훌훌 털어 버리고 떠났다.

약수사를 떠난 혜산 스님은 기도 정진을 위해 자주 찾던 미륵사 사자암 주지를 역임했다. 여전히 기도 정진에 힘썼다. 스님은 당시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폐허에 가깝던 사자암을 복원해야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청와대를 찾기도 했다. 산림청으로 편입됐던 사자암 땅도 되찾았다. 혜산 스님은 초하루 법회를 정례화하고, 방생하는 법을 알리는 등 전북지역 불교신행의 기틀도 확립했다. 포교 방편과는 별도로 신도가 크게 늘어났다. 스님의 기도 덕분이었다. “주지가 법당에 서서 관음정근을 2시간 이상씩 하니 신도들이 따라하지 않을 수가 있나? 신도들이 정근을 수시간씩 해보니 힘든데, 스님은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으니 자연히 신도들이 스님을 공경하게 됐지. 출가자는 재가자에 모범을 보여야해.”

스님은 “스님들이 상(相)을 내느라 신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못주는 경우를 많이 봤다. 불교가 포교에 성공하려면 절대 상을 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스님이 신도를 몰고 다니는 것도 문제라 지적했다. 혜산 스님은 “출가자가 남방불교를 배워 와서 포교에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자암 주지를 맡은 지 12년이 되어가자 삼보정재를 되찾고 불사를 이룬 혜산 스님을 공경하던 신도들이 점차 성화하기 시작했다. 무슨 까닭일까? “늙어 바랑 놓을 곳이라도 있어야지, 스님은 물색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성화였다.

“주지직을 놓아도 사자암 옆에 있어달라고 신도들이 하도 성화를 해서 등 떠밀리듯 대용화사 불사를 했어. 불사하기 싫어서 다니는 터마다 마음에 안 든다는 핑계로 미뤘어. 20여 곳도 더 다녔지. 더 이상 미루기도 난처할 찰나 지금 대용화사 터를 만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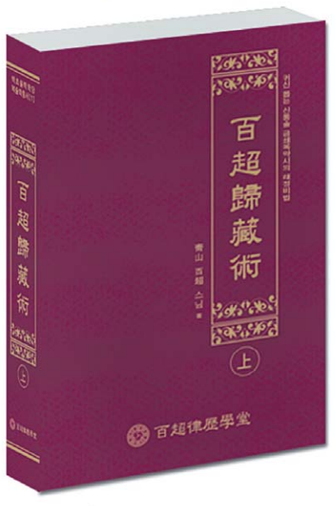
1988년 대용화사 불사 후에도 스님의 정진은 계속됐다. 1994년 종단개혁이 끝나자 이번에는 문중스님들이 혜산 스님에게 성화해 선운사 주지에 선출됐다. 조계종 산중총회 주지 1호였다. 형식은 민주적 선출이나 문중의 큰어른 혜산 스님의 정진력과 덕망으로 추대된 것과 진배없었다.

선운사 주지 부임 후 스님은 전북지역 양대 문중인 운기 스님과 남곡 스님 문중의 화합을 위해 규약을 만들었다. 지금도 규약은 지켜지고 있다. 선운사 주지임기 4년 동안 사중 살림을 헛으로 쓰지 않고 공부하듯 짬지게 쓴 덕분에 선운사 살림은 늘었고, 포교 · 수행 · 교학 도량으로 면모를 갖추기 위한 중흥불사의 기틀을 다졌다. 선운사 중흥을 위해 진력한 혜산 스님을 두고 “승가의 화합과 균형을 이뤘다. 원융살림을 펼쳤다”고 대중들은 칭송했다. 지금도 스님에게는 ‘대중화합’과 ‘원융살림’이라는 말이 호처럼 따라다닌다.

삶의 자세를 묻는 질문에 스님은 ‘수처작주(隨處作主)’를 강조했다. “거짓 없이 살아야 합니다. 주인 된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가는 곳, 머무는 곳,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주인이 돼야 합니다.”

혜산 스님은 주인 되는 방법으로 기도 정진을 권했다. “관음 기도나 신장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기도하면 혜안이 밝아지지. 혜안이 밝아지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 빙의, 자기 최면, 치료최면
(최면 시술사 과정)
• 개강일 : 10월 24일 금요일반 • 개강시간 : 오후 1시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60만원 ▶ 대상 : 스님, 포교사, 불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유일한 곳
수행과 포교 또 중생 구제에 바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소승은 스님들께서 시간에 쫓기시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한 스님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모든 거품을 빼고 최단기, 최소 교육비로 보시 하고자 합니다.
소승은 자리이타의 정신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본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 무초 정락 합장 –
(사) 유마 정신 건강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애경백화점 맞은편 세일빌딩 401호 ☎ 02) 763-0661~2
★ 최면을 배우시고도 시술을 못하시는 분, 자기최면이 안되는 분 개인지도 ★

베스트화제작 신간
귀신뽑는 래정비법!
백초귀장술 개인지도


찾아온 일진, 시간만 가지고
왜 왔는지
무엇이 탈났는지
어떤 귀신이 붙었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났는지
들어오는 순간 알 수 있는
특수 초사법!
명리, 육임처럼 복잡하게 몰라도 간단히 알 수 있는 비법공개!
60갑자 일진별로 한눈에 쏙쏙 알 수 있게 초사를 확실하게 설명!
신국판/양장본/567쪽/정가 120,000원 著者 百超백초스님
百超律歷學堂
Tel : (02) 3667-4446
H.P : 010-3813-4443
입금계좌 (예금주 : 조영신)
농협 023-02-478822
신한 010-3813-4443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면 모든 장애가 사라져.” 스님은 “목탁 들고 정근하면 어려서 젖 먹던 기억 등 별의별 망상이 일어나지만, 망상은 기도하는 체제가 잡히면 홀연히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기도는 반드시 하루 중 언제 해야겠다는 시간을 정하고 3일, 7일, 21일 등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다보면 발전이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30~40년 참선하는 사람도 수행의 진척이 없음을 탓하며 답답해하기도 해. 기도는 하면 하는 만큼 혜안이 밝아지니 참선도 수월하게 할 수 있지. 마음 닦는 것은 염불이나 기도 정진, 참선 등 모든 수행법이 같아.”

간절한 기도의 영험에 대한 혜산 스님의 구수한 이야기가 흘렀다. 조선 정조 때 선지식으로 조선불교 중흥을 위해 진력한 용파 스님 이야기다. 스님은 당시 외딴 섬이던 거제도로 100일 기도를 떠났다. 스님이 거제도에서 용맹정진에 들어간 것은 따로 이유가 있었다.

정조 임금 때 유명한 어사 박문수가 사불산 대승사에 이르렀을 때, 젊은 스님들이 모여 장기를 두고 있었다. “장 받아라”는 소리에 다른 스님이 훈수를 뒀다. “이 마(馬)로 상(象)을 치고 차(車)로 장(將)을 부르면 도리어 이기지 않소?” 훈수에 옥신각신하던 스님들간에 싸움이 났다. 상스러운 말까지 오가자, 이를 본 어사 박문수가 느닷없이 법당에 소변을 봤다.

박문수에게 한 스님이 호통을 치니, 박문수가 대답했다. “여기가 부처님 모신 법당이었소? 난 마구간 인줄 알았소.” 스님이 되물었다. “마구간이라니? 법당에 모셔진 불상이 보이지도 않소?” 그러자 작심한 듯 어사 박문수가 답했다.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말이니 상이니 하는 것이 오락가락합디다. 그러니 여기가 마구간으로 알지 않았겠소? 만일 부처님을 모신 도량이라면 염불이나 경 읽는 소리가 나던가, 참선을 해야 하는 것 아니요?”

박문수에게 따지고 들던 스님들은 할 말을 잊었다. 이후 어사 박문수는 정조 임금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했다. “지금 전국 사찰에는 무위도식하는 스님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염불이나 간경, 참선을 하고 있어야 할 스님들이 장기나 두고 싸움질이나 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입니다. 이들에게 일거리를 주어 놀고 먹는 승려들이 없게 해야 할 줄로 삼가 아룁니다.” 어사 박문수의 상소를 계기로 정조는 전국 사찰에 영을 내렸다.

“앞으로 모든 사찰에서는 종이를 뜨고 산자에 잣을 곁들인 잣박산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라.

만일 무위도식하는 승려가 있을 시에는 어명으로 엄히 다스리겠노라.”

그 후 남도지방 절에서는 종이를 떠서 진상하고 금강산을 비롯한 산간의 사찰에서는 잣박산 등을 만들어 진상했다. 심지어는 지방의 양반들까지 스님들에게 족보용 종이를 대라고 으름장을 놓는 일도 있었다. 일부 잔칫집은 사찰에 잣박산을 비롯한 유과를 올리라고 하기도 했다.

이런 일이 생기니 공부하고 싶은 스님들도 부역에 시달리느라 경을 읽고 참선할 틈이 없었다. 뜻 있는 스님들은 참다못해 환속하는 일까지 생겼다.

용파 스님은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 정조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스님들의 부역을 중지시키려 했지만 소용 없었다. 상소문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밑에서 모두 개봉돼 불살라졌던 것이다. 스님은 부처님 가피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야겠다고 원력을 세웠다. 이후 거제도에 들어가 용맹정진을 시작했다. 용맹정진을 시작한지 100일이 되어갈 무렵, 끼니가 떨어졌다. 그래도 용파 스님은 용맹정진에만 힘썼다. 그때 관음보살이 노인의 모습으로 나퉈 “바위에 붙은 석화를 먹으면 된다”고 일러줬다. 용파 스님은 석화로 주린 배를 채우고 용맹정진해 도를 이뤘다. 섬에 들어갈 때는 배를 탔으나 나올 때 득도한 스님은 물위를 걸어 섬을 나왔다. 스님이 물위를 걸으며 섬에서 나온 모습이 파도를 타는 용과 같았다 해서 용파 스님으로 불렸다. 스님의 이야기는 이후 정조 임금을 만나 불법 수호와 승려보호를 간청하고 도반을 순조 임금으로 환생시키는 것으로 이어진다.

용파 스님 일화를 들려 준 혜산 스님은 “모든 수행에는 고비가 있다. 굶주림도 잊고 용맹정진하던 용파 스님처럼 쉼 없이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혜산 스님 역시 평생을 정진하며 살았다. 스님은 출가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 일하지 않거든 하루 먹지 말라(一日不作一日不食)’는 백장스님의 청규 정신을 실천중이다. “말법시대에 단 한 가지라도 행을 닦고 밥을 먹어야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부처님 밥 먹었으면 그 은혜를 갚아야 해. 부단하게 정진하고 기도해야 해.”

그래서일까? 대용화사를 들어설 때 울력 하던 스님의 모습이 한없이 자연스럽기만 하다.

“항상 하심하고 조석예불 꼭 참석하고, 하루에 한 가지 선행과 좋은 생각하며 살아야지. 나는 지금도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예불과 대중운력은 빠지지 않아. 사람은 항상 마음의 게으름을 경책해야 해.”

자애로운 보살의 미소 속에 올곧은 수행자의 의연함을 갖춘 혜산 스님은 말 한마디가 청규요, 생활은 수행의 연속이다. 스님은 “대중들이 분수보다 큰 욕심을 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말했다.

“부모에게 타고나듯 사람의 천성은 쉽게 바뀌지 않어. 타고나는 것이재. 거시기 하지만 사람마다 다른 마음주머니 크기를 저마다 크게 만들려고 수행을 허재. 사람은 지은 복대로 사는 게야. 자기 인생은 결국 자기 책임이랑께.”

“기도 정진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타인을 용서하고 베푸는 이가 진정한 불자”라는 스님의 말씀에서 미륵불의 용화세계를 맛본다.

글=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혜산 스님은 1938년 고창 선운사 인근 석상마을에서 태어났다. 대강백 운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50여년 넘게 기도 정진에 힘써왔다. 미륵사 사자암, 고창 선운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스님은 선운사 주지를 살면서는 원융살림을 이룬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는 이리불교대학 이사장, 천천마한클럽 이사장으로 지역포교와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15〉 퇴경 권상로 박사

퇴경 박사님은 별명이 ‘걸어다니는 불교사전’이요, ‘살아계신 한국의 역사’였다. 하루는 어머니 꿈에 잘 아는 스님이 와서, “제가 댁의 자손이 되어 그 동안의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하였는데, 그 꿈을 꾸던 날 그 스님은 죽었다 한다. 그래서인지 퇴경 박사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고, 하루 300줄의 글을 외우고, 한번 보고 읽고 쓰면 아무리 어려운 글도 모두 익혀 통달하였다.

1960년 봄 서울 안국동 통문관에 들르니 베잠방이에 광목두루마기를 입으신 늙은 할아버지가 서가를 살피고 있었다. 말 없는 인사로 고개를 기울였다. 그런데 얼마 후 있다가 기산 큰스님의 심부름으로 홍릉 자택을 찾아가니, 역시 그 때 본 모습으로 서재에 앉아 계셨다. 뜰에는 두 송이의 장미가 불타고 있었는데, 방안에는 온통 고서적으로 꽉 차 있었다. 한서(漢書)·일서(日書)는 방 한쪽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머지 3면은 손수 쓰신 원고였다.

“이것이 다 선생님께서 손수 쓰신 원고입니까?”

“먹고 할 일 없으니 읽고 쓰는 것이 일이지. 나는 담배도 피울 줄 모르고, 술도 마실 줄 모르고 화투, 장기, 바둑, 골패도 할 줄 모르니 불어나는 것은 원고뿐이야.”

“언제부터 쓰셨습니까?”

“내 나이 16·17세 때 양친을 다 잃고 의탁할 곳이 없어 4년 방황하다가 안진호 스님의 소개로 문경 금룡사 월명 스님에게 귀의해 만 10년 동안 이력을 보고, 영안 스님께 건당을 했지. 그랬더니 금룡사에서 세운 경흥학교, 성의학교 강사를 하라고 하더군.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더니 중앙종무원(당시는 圓宗) 편집부장을 하라고 해서 2년 동안 하고, 또 대승사 주지를 하라고 해서 38세까지 했지. 그런데 조선불교 월보사 사장, 상주 보광학교 강사를 맡기고, 나중에 월간 불교사 사장, 불교 전문학교, 동국대학교 교수, 학장, 총장을 하라 하니 시키는 대로 하다보니 학자 아닌 학자가 되었지. 그 외에 하는 일이 뭐 있겠는가. 글 쓰고 강의하고 그것이 전부지.”

“그러면 언제 이 책을 출판할 생각이십니까?”



승·속, 이·사에 두루 밝은 ‘시대의 지도자’
‘퇴경전서’ 응용한 박사 논문 8권 나와

“자네들이 열심히 돈 벌어 내줘야지. 낸들 무슨 힘이 있는가.”

하고 빙긋이 웃으셨다. 어쩌면 이것이 인연이 되어 1998년 불교통신교육원에서 퇴경전집 전10권 1만2800 페이지나 되는 장문의 책을 냈는지도 모른다.

스님은 1965년 87세로 열반 하실 때까지 한국박사학위논문심사위원, 국어국사편찬위원, 불교포교사, 법계고시위원, 문교부국정교과서 사정위원, 대한고서간행위원, 대한종교연맹고문, 신라가야문화연구위원, 팔만대장경 편수위원, 중앙불교연구원장, 동국역경위원, 조계종원로원장, 현대불교 사장, 불교사상연구회 명예회장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직책을 가지고 수많은 일을 해 오셨으므로 동국대학교에서는 명예철학박사학위를 수여하고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문화훈장을 드렸다.

1965년 4월 10일 토요일은 우리들이 선생님께 마지막 강의를 받은 날이었다. 여섯 명의 대학원 학생들이 청량리 자택을 찾아가서 두 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를 들었다.

“세상은 많이 변해가고 있지만,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람이야. 옛날 어떤 사람이 황하에 나갔다가 산 게(生蟹)를 사다 먹고 껍질을 문 앞에 걸어 놓았더니 그 해 유행성 감기에 걸리지 않았어. 이웃집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그 이유를 물으니, “이것 때문이 아닌가” 하였다. 유행성 병균이 이 말을 듣고, “별 것도 아닌 것에 속았구나” 하고 병균을 퍼트려 그 집안 식구들도 예외 없이 고생하였다는 말이 있어. 별 것 아닌 것도 너무 자랑하면 이렇게 귀신에게까지도 홀리는 법이 있으니 조심들 하게.”

이것이 선생님의 마지막 〈삼국유사〉 강의였다.

〈퇴경전서〉에는 〈이조실록 불교목록〉, 〈고려사 불교목록〉, 〈한국사찰전서〉, 〈한국지명연역고〉 등 수 백권의 저서가 편집 되어있다. 지금까지 이 책들을 응용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만도 여덟 명이나 된다. 문학, 철학, 과학에 이르기까지 인류문화에 필요한 광범위한 자료들이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고, 서·예·문·인·화를 다 갖추었다. 그림에 대해서도 불화·단청·산수·4군자에 능하고, 글씨에 대해서도 해서·행서·초서·예서·전서 등 8분체를 다 쓰셨다. 그래서 대은 김태흡 스님은 이렇게 스님을 평했다.

“글은 배운데 없는데 문장이요(不學書而文章)
글씨도 공부한적 없는데 명필이네(不工書而名筆)
시인도 아닌데 시에 능하고(不作詩而能詩)
그림도 익힐 새 없는데 명화다(不習畵而名畵).”



"화두·참선 기초지식 쌓아야"

오늘의 禪語 ㊴ 선병

'치선법비요경' '수습지관좌선법요' '서장' 등 선병 다뤄
단전호흡 · 기공 등 신비주의 추구도 '선' 몰라 생긴 선병

선 수행을 할 때 주의, 또는 조심해야 할 사항을 '선병(禪病)'이라고 합니다. 선병이란 선과 불교에 대한 안목, 참선수행에 대한 지식부족, 선의 정도(正道)를 제대로 알지못해 발생하는 정신적 오판이나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것은 화두를 참구하기에 앞서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선병을 다룬 책에는 <치선법비요경(治禪法秘要經)> 등 4~5종의 경전류와, 천태 대사(538~597)의 <수습지관좌선법요(修習止觀坐禪法要)>, 박산무이(1574~1630) 선사의 <참선경어(參禪警語)>, 대혜 선사(1088~1163)의 <서장(書狀)> 등이 있습니다.

대혜 선사는 <서장>이라는 책에서 선병으로서 크게 혼침(昏沈)과 도거(掉擧) 등 10여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1) 혼침(昏沈) : 정신이 멍한 상태, 흐리멍덩한 상태입니다. 참선을 한다고 앉아 있기는 하지만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뿐 화두를 망각한 상태가 혼침입니다. 무엇 때문에 앉아 있는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자각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졸음이 와서 정신이 몽롱한 것, 비몽사몽 같은 상태도 혼침입니다.

2) 도거(掉擧) : 도거란 '떠오른다'는 뜻입니다. 번뇌 망상과 잡념이 끝없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앞 망상이 끝나기도 전에 뒷 망상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도거입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 미래에 대한 생각(불안감), 현실성이 없는 생각 등이 모두 망상이고 도거입니다.

3) 무기공(無記空) : 화두를 망각한 상태를 '무기' 또는 '무기공'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고요(寂寂)하고 평온한 것은 좋은데, 평온함과 고요함에 경도돼 화두를 놓친 상태,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혼침과 무기공은 거의 같으면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4) 산란(散亂) : 산란은 번뇌 망상 등 잡생각이 떠올라서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상태로 도거와 거의 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마음이 심란하고 분위기가 산만해 안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5) 공무(空無=空亡) : 일체개공의 뜻을 착각해 "모든 것은 다 공하여 없는 것인데 뭘 깨닫고 닦을 것이 있느냐"는 식으로 허송세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사선(無事禪), 허무주의, 니힐리즘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6) 사량 분별심(思量分別心) : 이것저것 따지고 억측, 헤아리고(사량), 분별, 천착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화두공부란 첫째 사량심과 분별심을 버려야만 진도가 있는데 자꾸만 '이걸까? 저걸까?' 추측,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심은 번뇌와 갈등을 일으키며 한 눈을 팔게 합니다.

7) 알음알이 : 한자로는 지해(知解)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해병'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언어적 학문적 지식적으로 분석, 천착하여 알려고 하는 것으로서 앞의 사량 분별심과 같습니다.

8) 문자 속에서 고증하고자 하는 병 : 경전이나 논서, 선어록 등 책에서 관련된 글을 찾아서 인용하여 화두를 해석하거나 천착하는 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으니 이 뜻이다" 또는 "어떤 선어록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으니 이 뜻이다"라는 식으로 참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음알이의 소산입니다.

9)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깨달은 척 겉 넘은 생각 : 깨달은 척하는 겉 넘은 병인데 이것 역시 큰 병입니다. 잘못하면 참선자의 인생을 망치는 병입니다.

10) 고요함에 빠지는 병 : 마음이 좀 고요해졌다고 해 그것을 깨달음으로 착각하는 병인데, 그것은 마음이 일시적으로 평온해진 것일 뿐,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화두참구심이 부족한 것(탐구심, 의문심, 의단이 부족한 것임), 시끄러운 것을 피하고 조용한 곳을 추구하는 마음, 계율을 무시하고 막행막식을 일삼는 것, 무사안일, 방일, 게으름 등 박산무이 선사의 <참선경어>에는 50여 가지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열거한 혼침, 도거, 무기공, 사량분별심, 알음알이, 깨달은 척 하는 마음 등 10여 종입니다.

무자화두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는 무로 생각하지 말라' '유무를 초월한 참된 무(眞無의 無)라고 생각하지 말라' '심오한 이치가 들어 있는 무(無)라고 생각하지 말라' 등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날 화두참선에서 가장 큰 병은 앞의 열 가지 보다도 '제대로 참선을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는 병'과 '아무런 기초지식도 없이 화두를 들거나 참선하려고 하는 병' '무조건 오래 앉아 있기만 하는 장좌불와병'입니다. 화두를 참구하는 방법과 참선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등을 갖추지 않으면 90%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전호흡이나 기공, 신체적 정신적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도 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서 나오는 선병의 일종입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중생욕망 따라 몸 나타내 제도한 보살 화신

㊴ 바수밀다

'방편지혜'의 완성자 … 53선지식 중 한명
오탁악세에 물들지 않고 보리심 내 중생제도

<화엄경> '입법계품'에는 창녀 바수밀다가 선지식으로 등장한다. '바수밀다(Vasumitra)'는 세우(世友) 또는 천우(天友)라고 하는 뜻인데, 뛰어난 방편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교화한 까닭에 붙여진 이름이다.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가 구도여행 중에 찾아가는 53선지식에는 보살, 비구, 비구니를 비롯해 저자거리에서 법을 설하는 사람, 뱃사공, 음탕하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과 신분을 지닌 사람들이 등장한다.

'바수밀다'라는 이름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2004년 김기덕 감독이 만든 영화 '사마리아'를 통해서였다. 이 영화는 당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던 원조교제를 다룬 문제작이었다. 이 영화에서는 여행비를 모으기 위해 원조교제를 하는 두 소녀 중 한 소녀가 결국 자살하면서 이런 말을 남긴다.

"인도에 바수밀다라는 창녀가 있었어. 그런데 그와 잠만 자고 나면 남자들이 모두 참된 불자가 된대… 날 바수밀다라고 불러줄래?"

순진한 마음으로 원조교제를 하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소녀는 선(善)으로, 애욕을 합리화한 사회라는 테두리는 악(惡)으로 대비한 듯 다양한 문제의식을 던진 영화였다.

바수밀다는 창녀라는 직업을 가졌기에 '입법계품'에서도 선재동자가 그를 찾았을때, 사람들은 걱정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러나 바수밀다의 지혜와 공덕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수밀다를 찬양하며 선재동자를 그에게 소개했다.

선재동자가 보살도 수행에 대해 법을 청하자 바수밀다는 이렇게 말한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며 애욕의 근본을 여의었다. 그래서 나는 온갖 중생들이 좋아하는 애욕을 따라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노라. 하늘사람이 나를 볼 때에는 나도 하늘아가씨가 되어 얼굴과 광명이 훌륭해 견줄 데가 없으며, 사람과 사람 아닌 신장들이 나를 볼 때에는 나도 그들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꾸며 제각기 욕망을 따라 나를 보게 되노라. 어떤 중생이 애욕에 끌리어 나의 몸을 보고 불타는 애정을 참지 못해 술 취한 듯 덤비면 나는 그를 위해 여러 가지 법문을 말하노라. 그러면 그는 어느덧 애욕을 여의고 경계에 애착하지 않는 보살의 삼매를 얻게 되느니라."

여기서 '애욕의 경계를 여읜 해탈' 법문은 보살이 중생세계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을 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수밀다가 '중생의 욕망에 따라서 몸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마치 관세음보살이 온갖 중생의 구조요청에 응해 제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이는 선사들이 수행자나 일반인과 함께 생활하며 수행과 교화에 힘쓴다는 '이류중행(異類中行)'과 상통한다. 구도의 10단계를 묘사한 심우도(尋牛圖)의 최후경지인 '입전수수(入廛垂手)' 즉, 시중에 들어가 중생을 제도하는 경지 역시 이를 상징한다.

바수밀다가 이어서 설법한다.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나를 보더라도 애욕을 여의고, 잠깐동안 나와 말을 주고 받아도, 잠깐만 나의 손을 잡더라도, 잠깐동안 내 자리에 앉더라도, 잠깐만 나를 살펴보더라도, 나의 몸짓을 보더라도, 나의 눈 깜빡이는 것을 보더라도, 나를 끌어안더라도, 나의 입술에 입맞추더라도 곧 애욕을 여의고 보살의 온갖 중생들의 복덕을 길러주는 삼매를 얻나니…."

방편 지혜의 완성자인 바수밀다는 세속의 오염된 법을 행하면서도 스스로는 일념(一念)도 오염된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생도 오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와 같이 오탁악세(五濁惡世)에서 물들지 않고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리심을 발해 중생제도를 발원한 보살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바수밀다는 많은 수행자들이 보리심을 내고도 애욕 때문에 위없는 부처님의 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대승의 큰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제도한 보살의 화신(化身)인 것이다.

서산 대사는 <선가귀감>에서 "수행의 요점은 오로지 자성(自性)을 오염(汚染)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물론 자성은 혜능 선사가 회양 선사에게 말했듯이 "물들이려야 물들 수 없는 자리"이며, 모든 부처와 중생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이다. 부처와 중생, 너와 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갖추고 있기에 자성은 단박에 깨칠 수 있다는 것이 돈오(頓悟)의 가르침이다. 김성우 기자

신행게시판

●**청소년 마음동산 꾸미기=**우곡심성개발교육원 '청소년 마음동산 꾸미기'가 매달 둘째, 넷째 토요일 해운대 오션타워에서 열린다. 한국청소년진흥센터로부터 인증을 받은 이번 프로그램은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만다라 명상수업 · 인간과 환경 관계 강의 · 발우공양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051)740-6288, www.wookok.org

●**단기좌선=**강남포교원에서는 10월 23~25일 수선당에서 단기좌선을 실시한다. 동참금은 3만원. (02)539-2631

●**사마타·위빠사나 집중수행=**붓다선원은 10월 23~27일 연기 지장사에서 사마타와 아나빠나삿띠(위빠사나) 집중수행을 진행한다. 불원 김열권 법사는 개인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 일상에서도 가능한 수행법을 지도한다. 동참비는 10만원으로 선착순 15명 접수가능. (041)868-3119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 철야정진=**서울 능인선원이 10월 25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30분까지 대법당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 철야정진을 갖는다. 동참비는 1만원. (02)577-5800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연화사 • 법 명 : 도정 (하두영) • 주 소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641번지
• 사찰명 : 반야암 • 법 명 : 혜정 (김영순) • 주 소 : 경남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 원동 25-1
• 사찰명 : 관암사 • 법 명 : 영화 (배순재) • 주 소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외율리 1155번지

위 3개 사찰과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2일

(재)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보탑사
• 법 명 : 혜조(김필연)
• 주 소 : 울산 남구 선암동 34-1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금강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관음정사
• 법 명 : 석 성두(김영만)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147-9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세상을 '無'로 보는 지혜 가득

그것만 내려 놓으라
지명 스님 지음 | 조계종 출판사 펴냄 | 9,800원



의왕 청계사 주지 · 속리산 법주사 주지를 거쳐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직을 맡았던 지명 스님은 홀연 모든 공식 직함을 버렸다. 그리고 이제 뜻 맞는 신도들과 벽돌을 지어 날라 완공한 안면도의 안면암, 과천에 있는 안면암 포교당 그리고 괴산에 있는 각연사 등에서 법문을 하거나 글을 쓰는게 전부다. 이 책에는 지명 스님이 산에 다시 올라가기 직전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차곡차곡 써내려 간 54편의 글이 담겨 있다. '중앙일보' · '한국일보' · '불교신문' · 월간 '불광' 등에 오랫동안 칼럼을 기고했던 지명 스님은 지금까지 쓴 책들에서 '무(無)로 바라보기'를 주장해 왔다. 이 책에서도 변함없이 무(無)를 강조한다. 하지만 스님이 주장하는 무는 '없음'과 다르다. 스님은 무(無)에 대해 "소유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임시 보관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바다를 좋아하는 지명 스님은 죽음과 아주 가까이 접한 상태에서 무(無)를 닦기 위해서 요트를 타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태평양을 횡단한다. 스님은 사납게 요동치는 파도에서 죽음 · 고독과 맞서는 수행을 하며 삶에 대한 집착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당시에는 스님과 고가의 요트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님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수행자 대부분 산속에 앉아 수행하는 것이 수행인줄 안다"며 "봄빛은 도시에 가나 산속에 가나 꽃을 피우지 않는 것이 없다. 선(禪)과 교(敎)를 가르지만 불교교리를 보면 관법아닌 것이 없다"고 답한다.

스님의 글 전반에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을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극복하는 방법이 자리잡고 있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스님의 법문이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편안히 전해진다. 마치 스님이 모든 직함을 버리고 초연히 산으로 되돌아갔듯이 말이다. 이나은 기자

진언다라니 수행자 위한 입문서

실담범자입문
이태승 • 최성규 공저 | 정우서적 펴냄 | 1만원



인도유럽어족의 고대어인 산스크리트어로 된 <능엄주> · <천수경>으로 수행을 해본 자라면 진언다라니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것이다. <실담범자입문>은 평소 진언다라니 수행을 하거나 관심 있는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쓰인 입문서이다.

"아제아제 바라아제~~"로 시작하는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과 같은 진언다라니는 인도의 문자인 범자(梵字)를 그대로 음사해 읽는 것이다. 단순한 문자의 의미를 넘어 수행 대상으로 까지 발전한 진언다라니는 옛 신라 · 고려 · 조선시대에도 유통되었다. 하지만 조선시대 간행된 진언집은 표기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가장 큰 이유는 유교를 숭상하며 불교에 억압적인 정책을 폈던 시대상황에서 기인 한다. <실담범자입문>은 이러한 현실에서 실담범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한자음 · 로마자 표기 · 한글음 · 글자의 의미와 함께 실담자모 51자를 따라 쓸 수 있도록 필순을 적었다.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비롯해 각종 진언다라니를 필사 할 수 있도록 해 범자 필사에 뜻을 두고 있는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본서에서는 한국의 범자를 복원하는 최초시도를 선보인다.

이나은 기자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 21권 완간, '100질 한정판'

사찰에 깃든 가르침·역사·예술…



한국불교 사찰 역사에 깃든 민족문화의 혼을 밝힌다.

1992년 설립된 사찰문화연구원의 첫 번째 숙업 <전통사찰총서> 21권의 완결편이다. <강원도의 전통사찰> 1 · 2편을 각각 펴냄으로써 비로소 전질을 완간하게 됐다. 1992년에 출간된 강원도 편 이후 전통사찰총서 시리즈와 판형과 편집형태가 달라 이질감을 주던 것에서 2006~2008년 동안 강원도 해당 사찰들을 재 답사해 새롭게 집필한 것이다. 강원도 1편에서는 월정사 등 37개 사찰을 강원도 2편에서는 신흥사 등 20개 사찰을 집대성했다.

<전통사찰총서>는 불교역사에 고이 깃든 민초들의 한과 얼이 아로새겨진 푸른 부처의 세계로 안내하는 길라잡이로서 불교문화의 참뜻을 찾아 한데 모은 자료집이다. 이 시대의 발원들을 한데 모아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재창조와 도약의 발판이 되겠다는 의도다.

한 사찰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한국불교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유구한 역사에 비해 전해오는 자료가 빈약한 실정에서 현존하는 성보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라도 그러하다.

2005년 4월 대형 산불로 거의 대부분의 전각이 불타버린 낙산사가 곧바로 복원불사가 가능했던 것도 전통사찰총서의 역할이 지대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4월 28일 공중사리탑 보존처리 과정에서 부처님 진신 사리와 장엄구가 출현해 큰 관심을 불러 모으면서 한층 중창의 기운을 북돋기도 했다.

사찰문화연구원은 1965년 청담 스님과 성철 스님을 조실로 故 광덕 · 법안 · 법정 스님을 지도법사로, 이기영 · 서경수 · 박성배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봉은사에서 출범했다. 사찰의 문화유산을 발굴 · 정리 · 집대성해 새로운 문화 형식에 기여하기 위해 힘써 왔다.

"내 자신이 지닌 것을 깨는 것이야말로 참 불교다"라고 말하는 이용부 前 문화부 종무관은 사찰문화연구원 실무 책임자로서 "<정통사찰총서>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에서 지정한 900여 전통 사찰 · 사지 등의 역사 · 인물 · 문헌 · 유물 · 유적과 산천 · 지역의 특성 등을 발굴해 정리한 포교지"라고 강조한다.

<전통사찰총서>는 국내 유일의 전통사찰 관련 종합책자다. 한국불교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가기 위해 앞장서온 사찰문화연구원은 그간 절판됐던 <강원도의 전통사찰> 1 · 2편이 발간된 것을 계기로 <전통사찰총서> 21권을 한 질로 묶어 100질의 한정판을 냈다.

한민족의 얼과 전통 문화를 간직하고 계승 발전시키는데 있어 문화와 역사 그리고 고승의 지혜를 위대한 유산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사명의 완결이다.

▲한질=26만원. 솔바람 (02)720-0824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소풍'에 얽힌 추억과 오지 순례·걷기 여행담 담아



우리들의 소풍
김홍성 지음 | 효형출판 펴냄 | 1만원

트레킹 전문기자로 일해 온 저자가 오지 순례와 걷기 여행담을 들려준다. 또한 사별한 아내 수자타(법명)와 함께 차린 밥집 '소풍'에 얽힌 추억을 비롯해 '소풍'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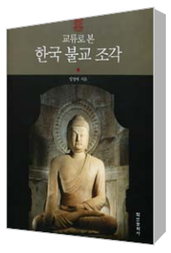
저자 김홍성은 히말라야 오지와 티베트 고원, 라다크를 여행한다. 그리고 인도 동북부 산악지대인 다르질링에 체류하면서 우연히 보게 된 동상의 주인공이 요리사이기도 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란다.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동상의 주인공은 친근한 시인이며, 쾌활한 여행가인 동시에 조예가 깊은 요리사였다. 이 세 가지 모두에 충실했던 그에게 감동을 받은 저자는 한국에 돌아와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땄다. 그 후 2000년 네팔 카트만두에 정착해 카트만두의 번화가 뒷골목에 소박한 밥집 '소풍'을 열었다.

둥그런 앉은뱅이 밥상 세 개로 시작한 '소풍'은 여느 식당에서 찾을 수 없는 손맛과 정취 그리고 사람들이 있다. 네팔의 다른 한국 음식점들처럼 '한국 아줌마'가 직접 손님을 맞지도 않고, 여행이나 쇼핑 정보를 제공하거나 안내를 하지도 않는다. 한국 음식을 팔지만, 네팔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밥상이다. 구수한 밥 냄새가 풍기는 음식점 '소풍'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들의 풋풋한 사연들 그리고 사별한 아내를 향한 마음이 책의 구석구석에 묻어난다. <우리들의 소풍>에는 가식 · 꾸밈 · 위선 · 허풍이 없다. 사별한 아내에 대한 애절함이 문득문득 퍼져 나오는 한 편의 사부곡(思婦曲)이면서 순진무구한 질그릇 같은 이야기다.

이나은 기자

한 권의 불서 성불의 씨앗 불서읽기 캠페인

한국불교 조각의 근원은 어디?



교류로 본 한국불교 조각
임영애 지음
학연문화사 펴냄 | 1만7000원

한국불교 조각의 정체성, 그것이 궁금하다.

실제 석가모니부처님은 한 분인데 불구하고 시대와 문화마다 부처님의 상호는 다양하게 표현돼왔다. 천 불 천 탑이 조성된 운주사에는 중생의 마음이 투영된 부처님 · 천년 불교의 고도 신라 토함산 자락의 석굴암에는 간다라 양식으로 조성된 왕의 위용을 닮은 부처님이 그러하다.

미술사와 20여 년 인연을 맺어온 필자가 전파와 수용, 즉 교류의 관점으로 불교 조각의 변화에 주목한다. 전래의 과정에 얽힌 '어떻게 변화'하고 '무엇 때문에 변화'했는지에 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접근한 도상 해석서이다.

<교류로 본 한국불교 조각>은 '불교는 인도에서 신라까지 논스톱으로 유입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 중간에는 서역이 있고, 중국이 있었으며 육로는 물론 바다가 있었다. 누구에 의해 어떻게 들어왔는지 분명한 매개체를 아는 것으로부터 필자는 한국불교 조각의 근원을 헤아리고자 한다. 전형(典型)과 변형(變型)의 변주(變奏)로 염두한 구법과 전승의 유입사를 치밀하게 추측해 가며 방대한 불교조각의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기존의 불교 조각 연구가 도상과 형식을 분석하고 파악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필자는 기존의 방법론에서 진보해 '불상' 자체의 의미와 성격, 그리고 그 기능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서양미술사 혹은 기독교미술사의 방법론을 원용하며 이를 기반으로 방법론을 성찰하고 다각도의 모색을 새롭게 시도하고자 한다.

'양식과 도상을 중심으로 한 전통 미술사적 해석으로는 불교조각의 전체상을 파악하는데 부족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불교조각을 입체적으로 대면하고자 함에 있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놓여있는 장소, 제작하고 후원한 사람'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연구 방침이다. 교류관계 분석을 통해 한국 고대 불교 조각 연구의 공백을 채우는 필자의 노력이 면밀히 돋보인다.

현재 경주대학교 문화재학부에 재직 중인 임영애 교수는 <서역불교조각사>를 썼으며 <새롭게 읽는 중국의 미술> <동양미술사>를 번역했다. 다수의 불교 조각 관련 논문과 더불어 현재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 강원도 문화재전문위원 · 한국미술사학회 이사 · 한국미술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있다.

가연숙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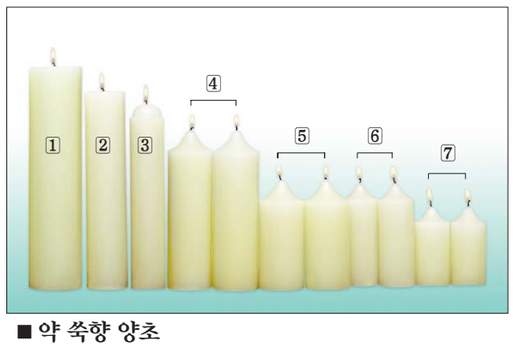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3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4	인과경	현담	선
5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6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뜰	원철
7	이와 같이 살았으면	무비	염화실
8	산사의 아름다운 밥상	이경애	아름다운 인연
9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10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불교서적이 모이는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 = 밀납양초, 약쑥향양초, 식물성 양초) 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 주문하시면 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밀납양초(蜜蠟洋燭)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3 밀납초원기둥 7.4φ × 30Cm 4 밀납초돈타레 5.6φ × 27Cm
6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7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φ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8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9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 약 쑥향 양초
1 원기둥 7.4φCm × 29Cm
2 돈타레 5.6φCm × 27Cm
3 밀 대 4.7φCm × 25Cm
4 1호 5.9φCm × 20Cm
5 2호 5.9φCm × 14Cm
6 3호 4.7φCm × 13Cm
7 4호 4.7φCm × 10Cm

장엄용 양초

■ 육각초 45cm

■ 야광 호랑이(산신) 70φ X 35cm

■ 야광 용초 70φ X 35cm

■ 원기둥 마패 7.4φ X 30cm
등신불 마패 4.7φ X 19.5cm
주소창에 "양초.net" 라고 치세요~ 양초.net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60 도토리전 <끝>

오래전부터 구황식품(救荒食品)으로 널리 쓰여 온 도토리는 피로회복 및 숙취에 효능이 있고 소화기능을 촉진시키며 입맛을 돋우어 준다. 장과 위를 강하게 해 설사를 멎게 하며 강장 효험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뇨 및 암 등 성인병을 예방하고 잇몸염 · 인후두염 · 화상 등에도 작용한다. 완전 무공해 식품인 도토리는 100g당 70kcal 저열량으로 성인병과 비만에 효

숙취·치질·인후염 치료, 성인병 예방 효능 뛰어나

열 많은 사람이 많이 먹으면 변비·혈액순환장애 생겨

능을 보인다.

특히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 · 골연화증 등 뼈 질환을 예방하는데 효능이 높다. 도토리에 함유된 아콘산(acomic acid)은 인체 내부 중금속 및 유해물질을 흡수하고 배출시키는 작용을 한다. 중금속 정화효과도 뛰어나 도토리 1g이 중금속폐수 3.5t을 정화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동의보감>에는 '늘 배가 부글거리고 불규칙적으로 또는 식사를 끝내자마자 대변을 보거나 몸이 자주 붓는 사람이 도토리 묵 한 가지만 섭취하면 원인 치료가 된다'고 기록됐다.

도토리는 치질을 다스리고 하혈과 혈통을 그치게 한다. 또한 장을 튼튼히 하고 마른 사람을 살찌게 한다. 이는 불용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타닌(tannin) 때문이다. 수분 함량 80% · 당류 20%인 묵을 섭취하면 만복감도 느낄뿐더러 저열량 식품이라 다이어트식으로 권장할 만하다. 적당량의 도토리가루와 밀가루를 섞어 국수 · 빵 · 과자 · 스프 등을 만들어 먹어도 좋다.

도토리는 따뜻한 성질에 떫은맛으로 60~80%가 녹말이다. 다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변비가 생기고 혈액 순환장애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한다.

산촌 (02)735-0312



도토리전 재료 : 도토리녹말, 애호박, 청양고추, 콩기름.

만드는 법

① 가을햇살에 2~3일 바짝 말린 도토리 겉껍질을 납작한 돌로 눌러 깐 후 다시 햇살에 이틀간 말린다.
② 말린 도토리를 대야에 담아 이틀간 물에 불려 물을 자주 갈아주면 쓴맛이 제거된다.
③ 잘 불린 도토리에 물을 섞어 믹서기에 곱게 간다.
④ 갈린 도토리를 고운 채를 이용해 짜낸 후 고운 앙금을 앉히면 녹말가루가 된다.
⑤ 애호박 • 청양고추를 채친 후 도토리 녹말가루를 전부치기 반죽 해 팬에 기름을 두르고 지져낸다.



능인향당 이완로 처사의

침향 이야기 2



"침향 · 사향 · 용연향 세계 3대 향"

그녀는 학생들이 약왕보살의 가피로 재앙을 면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전생에서부터 그녀와 내 인연이 지중하다며 그녀는 내게 약왕보살을 모시고 가라고 말했다. 극구 사양하는 내게 그 몸으로 그냥은 갈 수 없다며, 인연은 인연따라 가는 것이라 말했다.

주변 사람들 말처럼 운이 좋아서인지 약왕보살의 위신력 때문인지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때 걸린 병의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힘들지만 그때의 인연을 생각하면 아직도 인연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모셔온 약왕보살을 평소 인연이 있던 절로 모시려 했다. 스님에게 저간 사정을 설명하고 약왕보살님을 그 절에 모시고 돌아왔다. 그 후 며칠 뒤 절을 다시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약왕보살의 몸통과 손목 등 몇 부분이 크게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닌가!

스님에게 물어도 스님도 이해할 수 없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나무만으로 따져도 수십 년을 말린 나무인데 어찌 갈라지느냐는 말만 돌아왔다. 스님은 아무래도 인연은 따로 있는 것 같다며 다시 모셔가라 했고, 나는 다시 약왕보살을 모시고 돌아와야 했다.

약왕보살을 다시 모시고 오자 몇일 지나지 않아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다. 1cm 가량 갈라져 있던 곳이 갈라진 흔적만 남고 다시 붙어있었다.

아마 침향 약왕보살님은 나와 인연 있는가 싶어 그 후부터 계속 회사(능인향당) 사무실에 약왕보살님을 모시고 있다.



침향.

침향은 사향, 용연향과 함께 세계 3대 최고의 향으로 일컬어진다. 그 중 침향은 가히 그 향이나 효능에서 세상의 으뜸이라 할 만하다. 사향이나 용연향은 동물에서 나오지만 침향은 식물에서 생성된 지구상에서 가장 오묘하고 신비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사향은 사향노루로부터 얻어진다. 일명 무스크라고도 한다. 사향노루는 한국에서부터 중국의 쓰촨을 거쳐 티벳과 히말라야까지 분포하는 높은 산지에 서식한다. 사향노루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의 생식기 분비선에 달린 배와 배꼽의 뒤쪽 피하에 있는 향낭(香囊) 속의 계란만한 조그만 주머니에서 강한 페로몬향을 발산해 짝을 불러들인다. 유난히 시력이 약하고 후각이 발달된 사향노루 입장에서 보면 이성을 유혹해 자손을 퍼뜨리려는 본능에서 기인된 물질이다. 사향노루의 사향선(腺)을 건조시켜 얻는 것이 사향이다. 사향은 예로부터 생약으로 강심 · 흥분 · 진경제(鎭痙劑, 복통시 내장수축을 억제해주는 약)로, 또 기절했을 때 정신이 들게 하는 약으로 내복됐다. (02)3663-6777

(계속)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7 진정한 웰빙라이프

박지숙 소장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내 건강·행복 자비보시로 승화하면 '참 웰빙'

 # 내겐 웰빙도 스트레스!

친구 A양, 유행을 앞서가는 그녀는 항상 분주하다. 퇴근 후는 요가와 필라테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의 만남은 약간 더 비싸도 유기농 음식을 내는 오가닉 레스토랑에서 우아하게 이뤄져야 한다. 길거리에서 친구들끼리 떡볶이 등을 사먹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녀는 웰빙(well-being)족에서부터 슬로비(slobbie)족 로하스(lohas)족까지 본인을 지칭하는 족(族)도 시도 때도 없이 바꾼다. 그러다보니 월말이 되면 웰빙을 누린 대가를 고액의 카드 결제금액으로 톡톡히 치루기 일쑤다.

반면 잡지사 기자로 일하는 B양, 직업 특성상 자주 밤을 샌다. 담배에 야식에 웰빙과 거리가 먼 행동은 골라 다 한다. 보다 못한 주변 사람들이 잔소리를 늘어놓지만 소귀에 경 읽기다. 그녀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웰빙이나 건강도 좋지만 밤새 일 한 후 빨아들이는 담배 한 모금이 정신적인 위안을 해주는 비타민이요, 출출할 때 먹는 라면이 허전함을 채워주는 감로수다. 오히려 안하려 애쓰면 스트레스가 더 심해서 일의 능률도 안 오르고 육체적으로도 더 피곤하다고 말한다. 그녀의 말을 들으면 일리가 있기도 하다.

A양과 B양 과연 누가 더 웰빙라이프를 사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웰빙의 의미가 존재(being)를 잘(well) 살게 하는 것, 행복함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뜻 외에 분명히 웰빙에는 보다 본질적인 핵심이 존재한다.

 # 진정한 웰빙라이프는 함께 하는 건강·행복함

사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웰빙의 이미지는 고도의 상업적 전략과 상술이 어우러져 소비와 직결되도록 돼있다. 웰빙라이프는 조금 더 비싼 음식과 테라피 등에 돈을 지불하며 고상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근 흔하게 자주 접하는 웰빙의 진정한 의미, 그 본질적인 핵심은 무엇일까? 사실 '이러이러한' '어떤' '어떻게'라는 정형화된 조건에 끄달리게 되면 그것은 이미 또 다른 집착이 되기 쉽다. A양과 B양과 같은 웰빙 스트레스를 겪고 진정한 웰빙적 삶에서 멀어지게 된다. 단순하고 소박한 가치의 개인적인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인 만족감이 동시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 더 나아가서는 너와 나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건강함과 행복함이 진정한 웰빙이다. 나 하나만의 건강과 행복이 아닌, 자비심과 사랑으로 충만한 사회적 나눔으로 승화되고 회향될 때에만 분명히 본질적인 핵심에 다가갈 수 있다.

 # 인류상생의 구원책은 나눔·조화·균형·상생

인간과 자연의 상생, 물질과 정신의 균형, 심신의 조화, 건강과 도덕의 평형, 존재와 행복의 균형. 이러한 태도가 바로 이상적인 웰빙 사회 구현의 모습이다. 웰빙은 나눔과 조화, 균형, 상생이 가장 기본 전제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의 인식 속에 각인된 주고받는 것(give and take)이 아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참된 실천은 인류의 상생을 위한 구원책이라 할 수 있다. 즉 개인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통한 웰빙을 이루었다면 함께 나누는 사회적인 웰빙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의 균형과 조화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진정한 웰빙라이프라 할 수 있다. 적어도 내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와중에도 차 한 잔 즐길 수 있는 여유로움, 하늘 땅 한 번 바라 볼 수 있는 자유로움, 나의 호흡과 마음을 잠시라도 응시할 수 있는 고요함,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산 생명과 타인을 위한 봉사의 실천과 축복의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지금 이곳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과 직결된 웰빙의 시작이자 완결 아닐까. 육체적인 만족만을 구할 것인지, 정신적인 평안함만 추구할 것인지, 심신의 조화와 더불어 나눔과 베풂의 실천으로 함께 누리는 삶을 영위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 (02)576-7575

(계속)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4주년 BEST 추천도서

인터넷 불교서점 붓다북 www.buddhabook.co.kr

DAUM 통합검색 붓다북 검색 or NAVER 통합검색 붓다북 검색 을 검색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지면에 나온 도서는 붓다북 (02-953-7181)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붓다가 되신 예수님

21세기에 붓다가 전하는 참 메시지!

일찍이 그 어떤 선지식도 밝혀내지 못했던, 마음 밝아지는 영적 로드맵(Road Map)과 수도의 명확한 방법론(Methodology)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 책. 티벳「사자(死者)의 서(書)」에서도 볼 수 없었던 영혼이 전생에서 금생으로 구체적으로 이동하는 실감나는 체험의 말씀을 이 책에서 만난다.

백성욱 박사 말씀 · 김원수 글 | 신국판 | 231쪽 | 값 8,000원

공경원

크리스챤과 함께 읽는 금강경



이 책은 번뇌 즉 보리, 생사 즉 열반의 불이법不二法을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현대인의 수행지침서 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불자들이 금강경을 실천함으로써 화두를 깨치고 마음속 아상의 벽을 허문다면, 불교만이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생각도 사라질 것이요 그리스도교가 불교와 다른 가르침이라는 생각에서도 벗어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김원수 지음 | 신국판 | 양장 | 288쪽 | 값 12,000원

공경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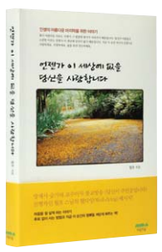


산세로 알아보는 몸에 좋은 식물148

"25년 산 속 생활에서 체득한 저자만의 생생한 정보! 산세로 알수 있는 약초 자생지"

이 책은 25년간 산 속에서 생활하면서 식물을 연구해 온 저자가 산 속에서 생활하면서 체득한 정보를 정리 한 것으로 전체와 줄기, 수액, 열매, 뿌리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식물을 소개한다.또한 컬러 사진과 명칭, 생태와 분포 및 채취기,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등에 관한 팁도 함께 수록하였다. 〈〈산세로 알아보는 몸에 좋은 식물 148〉〉은 뿌리를 이용하는 산속식물, 전체를 이용하는 산속식물, 잎줄기를 이용하는 산속식물, 꽃과 열매를 이용하는 산속식물 등으로 나눴다.

솔뫼 지음 | 신국판 | 양장 올 컬러 | 478쪽 | 값 28,000원 그린홈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스님이 들려주는 인생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한 이야기!

이 책은 우리가 죽음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고 있다. 죽음을 삶에 비춰 보면서, 죽음이 삶을 버티게 해주는 에너지라는 것을 알려준다. 삶과 죽음의 어느 한 순간에서 우리는 만나고, 헤어지고, 사랑하고, 이별하기를 반복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우리에게 저자는 헤어짐이 있기에 만남이 애틋하고 소중한 것처럼, 죽음이 있기에 지금의 삶이 애틋하고 소중하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바로 지금'을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월호 지음 | 신국판 | 양장 | 249쪽 | 값 9,500원 마음의 숲



산 중 암 자

나를 비우는 암자 이야기!

9시 뉴스가 없는 곳, 분별도 시비도 훌훌 떨치고 마음으로 가는 산중암자.....

이 책은 성철 스님의 일대기 〈산은 산 물은 물〉의 저자인 정찬주의 암자 순례기이다. 암자 가는 산길은 금산면 소재지 마을 뒷밭부터 시작된다. 땀이 나면 등 뒤로 펼쳐진 바다를 보며 쉬고, 진달래꽃에 눈을 맑히며 쉬엄쉬엄 걸으면 된다.

도회지 삶의 타성으로 결코 빨리 오를 일도, 서둘 것도 없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큰스님들의 족적과 화두가 있고 그의 숨결이 머무는 곳에 깨달음이 있다.

"한 생각을 목표에 두고 사시오. 가지치기을 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겁니다. 언행일치이지요"

정찬주 지음 | 4×6판 | 양장 | 208쪽 | 값 10,000원 도서출판 마음향기



요가 전통

-요가의 역사, 철학, 문학 그리고 수행

요가를 연구하거나 수행할 때 믿을 만한 안내자가 되어줄 요가에 대한 가장 뛰어난 해설서

요가의 의미와 사상적 분류로부터 시작하여 요가의 역사, 철학 그리고 수행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요가 전통」은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그리고 시크교 요가의 5000년 역사를 살펴보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주요 경전들에 대한 완역 및 부분 번역과 200장이 넘는 삽화들을 담고 있다. 또한 책 뒤에 수록되어 있는 〈주요 용어해설〉, 〈연대기〉, 〈참고 문헌〉 등은 독자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호이에르슈타인 지음 | 김형준 옮김 | 4×6배판 양장 | 944쪽 | 38,000원 무우수



불교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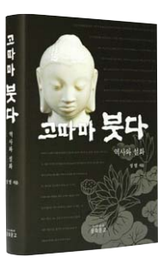
전4권 완간

불교성전 + 불교용어사전 정가(전5권):123,000원

부처님 출가에서 열반까지 설하신 설법을 (출가/전법, 수행/교화, 승가/자비, 정토/열반, 불교용어사전)의 구성으로 상세히 기록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히 지니고 부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만나볼 수 있다.

이 성전은 부처님 당시의 설하신 설법의 내용을 시대상황과 더불어 상세히 수록하고 있어 수행스님께는 불자들에게 당시의 구체적인 부처님의 설법을 전하는 데 더없는 자료가 될 것이며 불교의 어려움을 느끼던 불자들에게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읽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불교의 크고도 넓으며, 깊은 세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불교성전편찬회 | 신국판(양장본) | 문예마당



고따마 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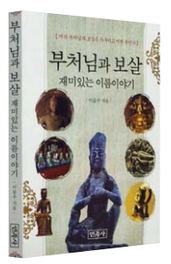
'고따마 붓다, 그는 진정 누구인가'

한국불교의 위기는 불교를 믿는다면서 교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한다. 불교를 믿으면서 부처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이책은 '고따마 붓다, 그는 진정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불교의 교주론을 분명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붓다의 존재를 설화의 집합체, 또는 비역사적 상황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와 환경 속에서 이해하는 데서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고따마 붓다의 삶을 생생하게 읽어내고, 그를 본 받고자 하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불자다운 삶인가를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성열지음 | 신국판 | 양장 | 502쪽 | 값 22,000원 도서출판 문화문고



부처님과 보살

재미있는 이름이야기

여러 부처님과 보살은 누구이고 어떤 분인가

부처님과 보살에 얽힌 재미있는 이름 이야기를 담은 책

불자들은 집이나 절에서 부처님과 보살의 명호를 염송하고 기도하면서 산란해진 마음을 바로잡고 밝게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런데 부처님과 보살이 맡은 역할을 정확하게 알기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불자라고 해도 쉽지 않다.

방송작가인 저자가 불심으로 엮은 이 책은, 석가모니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등 불교경전 속에 나타난 부처님과 보살에 관한 이야기를 재미있는 일화를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잔잔한 문체의 해설을 붙여 이해를 도와준다. 또한 부처님의 십대 제자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윤수 지음 | 신국판 | 295쪽 | 값 9,000원 민족사

'티벳死者의 書' 오디오북 출시

정목 스님 낭송·나왕케촉 음악



2시간 안에 죽음을 맞는 실제 준비를 할 수 있다.

티베트 사람들에게는 중간계(中間界)에서 듣고 이해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해탈에 이르게 하는 책(Bardo thos grol)으로 알려져 있는 <티벳 死者의 書>가 국내 최초 '듣는 책(Audio Book)'으로 발매됐다. 자신이나 가족 또는 친구의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르침이 실려 있는 안내서를 음성으로 만나는 기회다.

생사의 업(業)을 짊어진 모든 생명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해탈의 길로 이끄는 궁극의 가르침을 불교방송 '마음으로 듣는 음악' DJ 정목 스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낭송한다. 배경음악은 티베트의 영혼을 대금으로 연주해온 명상음악가 나왕 케촉(Nawang Khechog)의 앨범을 썼다. 총 CD 3장으로 구성된 <티벳 死者의 書>는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가호를 청하는 기원문을 시작으로 현재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이끌어 주는 지혜를 전한다.

<티벳 死者의 書>는 4세기 경 티베트의 영웅 파드마샴바바(Padmasambavah)에 의해 저술된 것으로 알려진다. 1920년대에 불완전한 형태로 처음 영문판이 발간됐고 난해함으로 인해 충분히 이해되고 있는 책은 아니지만 최근 동서양에 널리 알려진 책이 되었다. 망원경이 우주의 비밀을 풀어준 것 처럼 인간 내면의 세계를 비춰 보인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된다. (02)733-3134

가연숙 기자

'구슬정원' 展

11월 2일까지 관악구 길상사

도심 속 아름다운 절집을 표방하는 '길상사(주지 묘행)' 문화공간 지대방에서 불교여성개발원 김인숙 원장이 장신구 100여점을 선보이는 '구슬정원'展을 11월 2일까지 연다.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곳에 자리한 단아한 도량 길상사는 마치 수도원을 연상케 한다.

구슬정원의 테마는 '꽃'이다. 비취를 중심으로 동양의 정서를 무광을 통해 함축된 시간을 담아 봉우리를 활짝 피웠다. 준보석만으로 세공된 구슬의 화려함은 향기를 머금은 듯 신비감마저 안겨준다.

전시회 수익금의 일부는 길상사에서 지원하는 티베트 난민 어린이 장학금으로 기부될 예정이다. 길상사는 문화공간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주민의 친교와 화합의 장으로 지대방을 활용한다는 취지를 펼치고 있다. (02)883-7354

가연숙 기자

오대산 명주지역 문화유산 탁본展

11월 3일까지 월정사성보박물관서

월정사성보박물관(관장 정념)은 개관9주년을 맞아 11월 3일까지 '오대산명주지역문화유산 탁본'展을 개최한다. 관동대박물관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전시는 강원도 오대산 명주지역의 승탑과 비문을 중심으로 탁본해 공개한 것이다.

탁본은 종이와 기록의 결정체로 평가 받으며 암각된 문자나 그림무늬 등을 원형 그대로 종이에 찍어내는 것을 말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금석에 남아있는 자취를 추슬러 오대산 명현들의 숭고한 정신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큰 의미"라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탁본전은 크게 3부의 주제로 나뉘어 제1부 '오대산의 상징과 문양' · 제2부 '오대산에 흘어진 기록을 명문으로 읽다' · 제3부 '옛 비문에서 명주지역 고승의 찬란한 생애를 읽다'로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조계종 초대종정을 지낸 한암 스님과 종교인으로서는 최초로 은관문화훈장을 받은 탄허 스님 등의 비문이 탁본돼 전시된다. (033)334-1817

이나은 기자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10월 22일부터 CGV용산 일대

'상실'로부터 '가족'을 치유하라!



영화 <너를 보내는 숲>의 한장면.

'삶을 그리는데 있어 정해진 규칙은 없다.'

오늘을 살아가는 전 세계 가족의 자화상을 탐미해온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SIFFF 2008)가 올해로 제2회를 맞았다. 10월 22~28일 7일간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개막, CGV용산 일대에서 펼치는 이 시대의 '가족'을 향유해보자.

가족을 주제로 한 부분 경쟁 포함 비경쟁 국제 영화제로서 동시대 가족의 초상을 보여주는 가족영화들이 전체 프로그램에 포진돼 있다.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출품한 총 120편(장편 50편 · 단편 70편) 영화가 선보이는 가족에 관한 공감동감(共感同感)의 축제 한 마당이다.

특히 영화 관람을 통해 가족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만의 기획섹션 '힐링 시네마(Healing Cinema)' 4편에 주목한다. 이중 두 편의 영화 <미스언더스탠드:23일|CGV용산 6관|19:30>와 <서든리:25일|CGV용산 6관|19:30>는 상영 후 영화 평론가이자 심리학 박사인 심영섭 한국영상응용연구소(KIFA) 소장과 함께 집단 심리 치료의 시간(Healing Guest Visit)을 갖는다.

영화치료는 다른 형태의 예술보다 수용자가 텍스트를 그럴듯하고 있음직한 이야기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핍진성(verisimilitude)이 강하다. 역할극 · 내면아이치료 · 동일시 기법 · 셀프매트릭스 제작 · 메타포를 활용한 영화치료 기법을 동원, 수용자의 지각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

치유영화 4편 <미스언더스탠드(The Upside of Anger)> <서든리(Suddenly)> <너를 보내는 숲(The Forest of Mogari)> <비터 앤 트위스티드(Bitter & Twisted)>의 주제는 '상실'이다. 각기 다른 대륙에서 제작된 이들 작품의 주인공들은 가족 구성원의 죽음으로 인해 남겨진 자들의 사랑과 슬픔의 여로를 뒤쫓는다. 한 가족의 성장 테 안에서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상실의 불가항력이 남겨진 가족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미스언더스탠드>는 가족 개개인의 다양한 감정이 한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바람난 남편에 대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테리(2005 시카고비평가협회상 여우주연상)는 폭력의 단단한 메커니즘을 해부한다.

스웨덴 영화 <서든리>는 교통사고로 인해 아내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잃은 부자를 주인공으로 한다.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비극 앞에 남겨진 이들은 서로를 치유하기 위해 애쓴다.

2007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 수상作 <너를 보내는 숲>은 갑작스레 사랑하는 이를 잃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이별할 것인가?' 질문을 던진다. 내면의 풍광을 잡아내는 채색화로 그려진 영상은 마치 독백으로 채운 일기와 같다.

호주 영화 <비터 앤 트위스티드>의 주인공 조단은 고도 비만에 무능력한 직장생활로 쫓겨나기 일보직전이다. 그의 아내는 매사에 의욕이 없고 아들 벤은 성정체성의 혼란에 휩싸여 있다.

이상 상실의 영화들은 제각각 살아있음에 대해 이야기 한다. 죽음과 삶의 줄다리기 속에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느끼냐고 묻는다. 정답은 없다. 가슴 시린 힐링 시네마 속에서 고요의 안식을 선사하는 가족의 의미를 재조명해보면 어떨까?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님들께 선을 보입니다.

이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음으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 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현)해동불교대학,대학원교수
· 현)몽골불교대학 객원교수
· 현)여래암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시불교의 선정사사에 대한 연구
· Buddk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신간



[차례]
제 1장 - 기본학습
제 2장 - 중요경전
제 3장 - 불공편
제 4장 - 진언과 다라니
제 5장 - 각종발원문
제 6장 - 기도체험수기
제 7장 - 불서출판수지공덕
제 8장 - 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 - 자가기도법
제10장 - 불교기초지식
제11장 - 권선문

◆ 택배발송(발송비 무료) ◆ 정가 30,000원
◆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 계좌번호 : 농 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여래암)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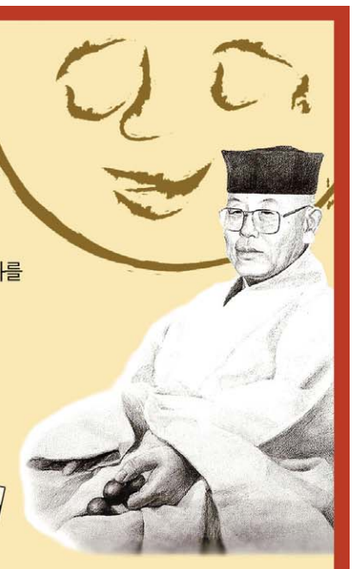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조계종 77조
전강 대선사님 법어집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인 전강 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쳤던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선사님께서 전강 대선사님의 법거량과 법문, 일화를 재조명하여 보였습니다. 전강 대선사님과 대원 선사님의 특별한 인연과 고수명창같이 어우러진 두 분의 법거량도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섬광과 같은 지혜로 수놓은, 최상승법의 자취없는 문양과 향 없는 향기에 흠뻑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다>는 선(禪) 수행자들에게 10년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달다



78대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법융선사 심명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법성게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2권 / 세월을북채로세상을북삼아 / 달다

법회 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울퉁 보살 불퉁 거사 <20>

구성 : 김흥인



왕의 수염 깎기를 택한 사람 [백유경(百喩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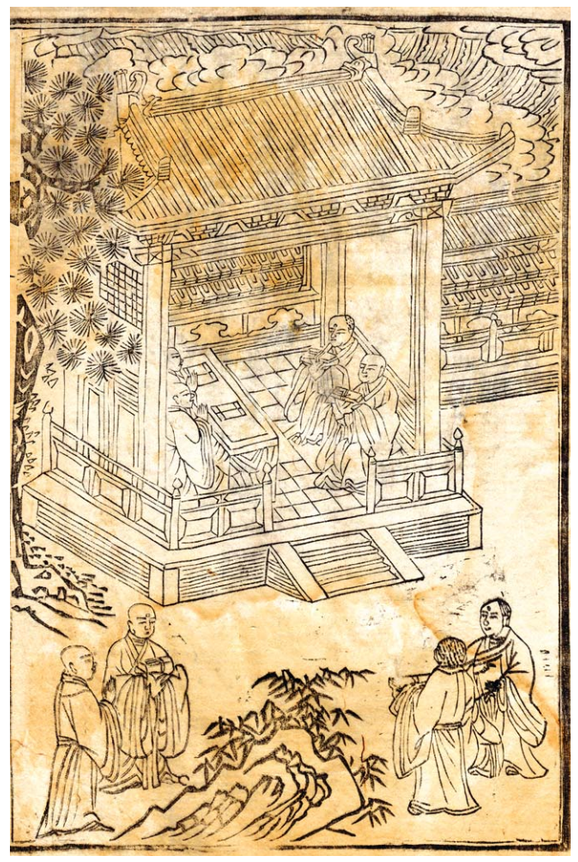


왕의 목숨을 구한 신하가 있었다. 왕은 신하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신하가 답하길 "왕께서 수염을 깎으실 때 나를 시켜 깎도록 해주소서." 왕은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신하를 두고 비웃었다. "나라의 반을 다스리는 대신이나 재상 자리도 얻을 수 있었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일부러 천한 업을 구했다."

어리석은 사람들도 이와 같다. 부처님을 만나거나 부처님이 남긴 법을 만날 수 있더라도 사람 몸 얻기는 어렵다. 그것은 마치 눈 먼 거북이가 떠도는 나무 구멍을 만나는 것과 같다. 만나기 어려운 두 가지를 만났어도 작은 계율을 받들어 족하다 생각할 뿐 열반의 훌륭하고 묘한 법을 구하지 않는다.

옛 판화의 세계

제1차 결집을 하다
결집법장(結集法藏)



고판화로 보는 장경각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결집법장(結集法藏) 목판(木版) 1679년간행, 변곽(卞郭) 272×180㎜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1차 결집에 의해 만들어진 경전이 전각 안에 빼곡히 보관된 모습이 이채롭다.

부처님 장례를 마친 스님들은 마하가섭 존자를 중심으로 경전편찬 작업에 들어갔다. 경전 결집을 서두른 것은 부처님 언행과 승가의 규율을 하나로 묶어 승가 분열을 막고 부처님 말씀을 중심으로 승가를 이끌어 가기 위함이었다. "내가 설한 모든 법이 너희의 스승이니 높이 받들어 잘 보호해 잊지 않도록 하라"는 부처님의 당부를 따른 것이기도 하다.

마하가섭 존자는 결집에 참가하는 자격을 '부처님 설법을 많이 듣고, 지혜가 있으며, 아라한이 된 사람' 가운데 추천하도록 했다. 이 때 추천된 제자들이 499명이었다. 500비구가 되기에는 한 명이 부족해 아난을 추천했으나 마하가섭 존자가 반대했다.

그러나 다른 스님들은 "아난은 부처님을 시봉한 제자다. 부처님을 항상 따라다녔고, 가까이서 세존의 가르침을 받았다. 아난은 그때그때 의심이 생길 때마다 부처님에게 물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적극 추천했다. 아난은 500번째 결집에 참가하는 스님이 됐다.

마하가섭 존자는 경전결집에 들어가 우팔리 존자가 율을 염송하고, 아난이 경을 암송하는 형식으로 결집했다.

이것이 최초의 경전편찬이며, 500명 비구가 결집에 참가했다 해서 오백결집이라고 부른다. 제1결집은 마가다국의 아자따사뚜왕의 도움으로 죽림정사에서 멀지 않은 웨바라산의 칠엽굴에서 일곱달에 걸쳐 이뤄졌다. 이때는 문자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노래의 형식으로 합송해 구전됐다. 최초로 문자화한 것은 그로부터 450년이 지난 기원전 35~32년 전으로 스리랑카에서 기록됐다.

본문내용 중에 "아난은 큰 목소리로 외쳐 말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이라는 내용은 모든 경전의 시작마다 나오는 육성취를 뜻한다. **선학 스님(명주사고판회박물관장)**

허허당의 세상만사



▪ 저물 무렵의 첨성대

별을 헤아리기 위해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 사람들이 가득하다.

사람의 세상에 해가 진 뒤
하늘에는 별이 뜬다.

해가 지면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 반짝이는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영은원에서는
요양하실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저희 사회 복지법인 영은원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충남 논산시 대둔산 늦은 자락, 맑은 솔바람 공기와 산수가 수려한 곳에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여 2008년 3월 개원하였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생활공간에서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 위하여 전 임직원이 어르신 모시기에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르신들의 노후를 진정한 삶의 동반자로 항상 기도하며 책임을 다하는 영은원이 되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영은원장 진성 합장
[문의 : 041-734-9331]



전자 불경 및 보리수 염주 세트

전자 불경은 천수경 및 발원문, 반야심경을 들을 수 있으며 전자칩을 장착하여서 음향 변질이 없고 영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음보살님 주위에 아름다운 불빛이 어우러져 신비함이 묻어 납니다. 불경을 들으면서 소원성취도 이루세요.

보리수 108염주 및 단주는 보리수 나무 뿌리로 가공하여 자연 문향이 은은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어 현재 시중에도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부모님 효도 상품 및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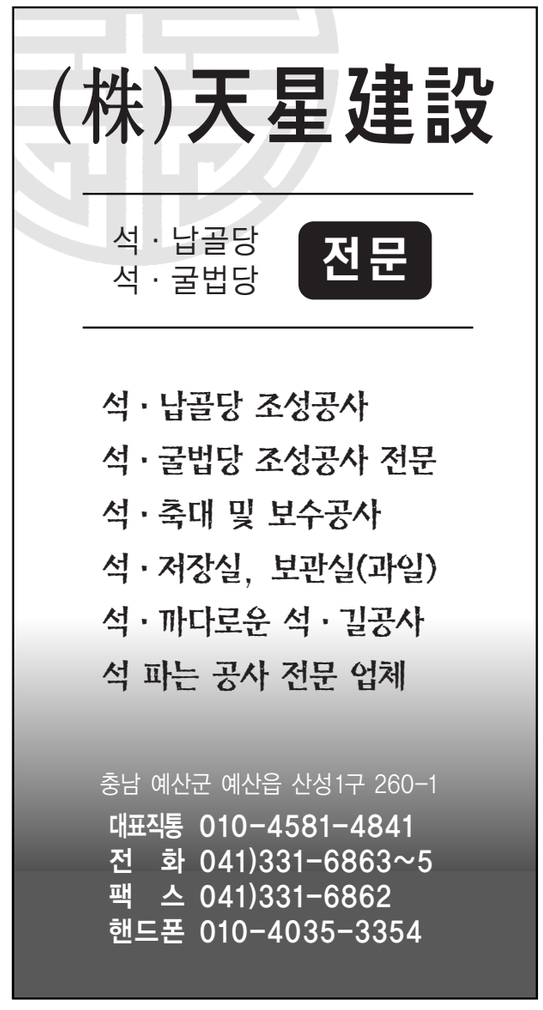
전자 불경 염주세트는 인터넷 옥션에서는 80,000원에 판매 중 입니다.





제품 문의 : 016-494-0772
예금주 농협 415092-51-040120 사)한국호국불교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본각사 일두 스님의 수맥파상담
수맥파를 알면
건강을 찾을겁니다
02)391-8540
010-6395-1644
한국 생활불교조계종 수맥협회 자문위원
본각사 일두 합장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법 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 산 개 발
011-9476-900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역학을 물상으로 실제 감정 위주로 배워 영가 빼내어 천도재 지낼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영산재, 수륙재, 각시식,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역학 비밀 출장 개인지도
초보자도 30일이면
사주를 통달할 수 있는
옛스님들의 비법을
시원히 전수해 드림
(비구, 비구니, 일반인)
010-5668-5775

건강을 돌려드립니다
- 2박 3일 체험 코스 -
비반, 스트레스, 혈압, 당뇨, 암..
각종질환으로 늘 약먹고 불편하신분,
장부 근본치유, 예방 · 자생법으로
평생 무명 건강하십시오
☎052)264-8183
011-855-8180
건강 도원 신불정사 무구 합장

비구니 스님 되시렵니까?
45세 이하 결심 된 여성분
전화 상담하십시오
070-7769-8484
011-354-8484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구병시식, 산신용왕,
각종불공(바라, 승무춤)
010-2200-8176

빙의퇴마전문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에서
퇴마스님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도성암 도통 합장
010-7443-3060

역학, 전생요법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氣
★ 그대는 이미 천지를 얻었다 ★
꿈을 찾는 이에게 꿈을....
평생교육불교강좌. 참선염불지도
명당 · 음양택 · 생활 풍수 강좌
개인 단체 강좌 출강 · 우울증세
흥망성쇠 · 시기적중 · 평생궁합
당선 · 시험 합격 · 영험도량
공양주 구함. 행자 출가자 선발
안성백마사 031)674-7188
백마사불교대학 017-203-9400

대한불교도서관
설립준비 중입니다
뜻있는 분들의 책
불사 받습니다
헌책도 대 환영합니다
010-7625-4455

조계종 조용한 산사에 정진하는 3인의 스님에게 공양해줄 신심있는 40~50대의 공양주보살님 속히 구합니다
▷경북 내원암
054)653-1180
010-6353-1180

비구기도스님
모십니다
(급구)
016-9223-789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6-9697-2222

50대 비구로서
제반의식 진행,법회
가능합니다.
부전(노전)원합니다
010-8736-8910

황토사찰에서
행자모십니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묘각사
031)774-476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성남
011-9854-9810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월보시금 100만원
052)275-0829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산중사찰
011-722-3418

공부 수양 요양
하시면서
절의 소일 좀
도와주실 거사님
모십니다
02)954-9848

비구니스님 구합니다
가족같이 노 비구니
아래서 불제자 되고
싶은분 연락바랍니다
▷대구 보경사
017-506-6738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신심있는 종무소
보살님 구합니다
(45세미만)
숙식가능
▷흥국선원
016-9224-2727
010-4939-9192

비구,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강원도 횡성
010-4445-5179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고급 만다라 액자 특별 원가 분양 안내
분양가 5만원 크기(가로×세로 48cm 두께 5cm 이중액자)
만다라의 효험-------- 대표적인 불교의 상징이며, 우주공간의 축소된 그림이다. 각 가정에 걸어두면 뒤숭숭한 꿈자리가 없어지고 수맥이 차단된다. 점포에 걸어두면 가게영업이 활성화된다. 만능 부적과 같다. 걸어놓고 기도 가능
※ 전국영업할분 초빙 법사나 일반신도 차량소지자 환영
●조 성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새절 봉선사
●공급처 : 02)470-7329 016-261-2068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사주첩경통달 이석영저자]
명리학 질문 10초내 답변
(만세력 책없이 5초 이내에 두뇌로 일주 통달, 양력)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와 지장간 전체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흉살이 있다고 해도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011-498-5067/02)826-5067
031)774-5067 (토요일 10시 ~ 일요일 4시까지)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사람을 찾습니다

■ 너무 급합니다 .
· 이름 : 권민화 · 법명 : 법의 · 나이 : 1973년 36살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크고 막중하여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연락이 되어야 수습이 됩니다 . 지금쯤은 아마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가 되기위해 행자스님 과정을 하고 있을것입니다 .
법의스님을 보신분이나 행적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법의스님의 막내동생에게 꼭 좀 연락 부탁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연락처: 010-6688-6446

역 학 공 부
• 사주 + 궁합 + 택일 + 작명 : 초중급(월요일) 18:30
• 관상 · 풍수 : 매주 수요일 18:30
• 인터넷 동영상 강의 : 사주+궁합+택일+작명(초급부터 완성까지)=45만원
www.kbs.cc 풍수, 관상, 육효, 자미두수, 수상/수료증 자격증
한국역학협회 관인 학원 월간역학교육원
동대문운동장역 4번 출구 도보 2분. 전화 1688-1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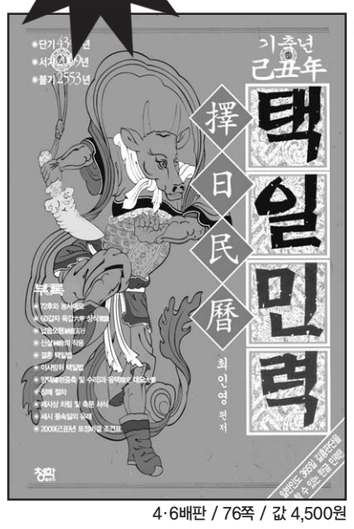
통증,불치병,오라요법탄생
- 아주 간단히 자연치유 무료체험 -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시분
●정신병,신경통,관절염,당뇨,위장병
신병,직업병(어깨걸림,불면증)
각종 암환자,비용없이 무료 치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분 상담
●공장, 주택, 상가, 전기료 무료로
절약시켜드립니다.
자동차 에너지 절약 상담
광명사 氣연구소 054)974-4788

대방등 대집경 특별강좌
● 강좌내용 : 28숙 ● 대상 : 승려에 한합니다
● 신병(신을 받아야 된다는)이 28숙 기도로 해결됩니다
● 위치 : 부천 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 032)664-0048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
문의 051) 867-8438
진각 심리상담 아카데미
"夢"막힐 을, 답답할 울, 성낼 울, 걱정할 울, 원망할 울.
우울이란 마음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행복한 마음을,
상담이나 최면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부산시청 뒤 거제리청과시장에서 양정쪽 150m 삼화탕 앞 송광정사

행자 (예비스님) 모십니다
● 성별 : 남자 ● 학력 : 고졸이상
● 연령 : 48세 이하
● 1인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 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져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제사천도 · 기일에
천도 축원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www.TVbuddha.co.kr

최인영 교수의 최신 擇日民曆
택일민력
2009(己丑)년
吉凶은 이 책 한 권으로 해결한다!
화제집중!


택일민력의 특징
◉ 풍부한 내용의 실용적 부록
◉ 고전과 현대의 조화
◉ 현대적 생활에 맞는 적합한 용어 풀이
◉ 각종 기도날(산제 · 고사 · 제사 · 용왕제 등)을 정확히 선정
◉ 72후와 주역 64괘의 기운 풀이
4·6배판 / 76쪽 / 값 4,500원
◉매월 1, 3째 화요일 오전 11시 ~ 1시 - 택일민력 저자 무료 특강
◉문의 : 02-929-4646 (한국전통과학 아카데미)
122-879 서울시 은평구 신사1동 3-12 3층
전화 : 02)354-8646 팩스 : 02)384-8644
청학출판사

패철 보는법
하루 저녁이면 깨우치는

나경은 나침반이다. 복잡하거나 어려울 이유가 없다 괜히 어렵게 가르치기 때문이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하루밤에 나경 사용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 명당 잡는법까지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저. 표지본문 올칼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5.000원 할인가 22.000원. 무료배송 + 월간역학 1개월(8천8백원) 함께 증정. 한번에 2권 이상 구입시 권당 2천원 추가 할인. 주문전화: 1688-1137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효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적 및 진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수 있고
● 정확하여 적중 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법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원

"효타 비결전서 (상 · 하)"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학 할 수 있음.
● 책에 대한 질문은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가 : 각 권 50,000원

효 타 암 주지 원 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간 건강해야 장수할수 이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깨끗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 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에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주문하시면 (생산) 달여 드립니다. 참 다슬기 농축액은 주문(생산) 달여들이며 주문시 기간은 3일~4일 걸리오니 참고하시고 주문해 주세요!
상담 (055)963-9583
문의 (055)355-5626
산마을 토종(민속농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 TEL 02) 2004-8219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e-mail : parkwonbum@yahoo.co.kr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위치 : 부산 ● 위치 : 대구
● 법당 : 18평 ● 법당 : 22평 ● 법당 : 20평
● 요사 : 25평 ● 요사 : 15평 ● 요사 : 150평
● 부지 : 97평 ● 부지 : 2000평 ● 부지 : 700평
● 가액 : 9억 ● 가액 : 4억 5천만원 ● 가액 : 20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아주 급한 사찰(중소도심)
● 대지 : 약 900평
● 기와법당 30평,산신각,독성각 요사채(30평)2동,노천입불 심야전기,앞마당, 잔디밭 조성완벽
● 남향 6m도접,텃밭 일부
● 가액 3억 5천만원

● 위치 : 부산 기장(바닷가 5분거리)
● 대지 총평수 550평
● 법당 25평 요사채 30평
● 60년 역사(기도도량 최고)
● 주변 아파트 대단지 5천세대 사찰 뒤 산세수려
● 양도가 : 7억원

부산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위치 : 대구광역시
● 부지 : 약 1,000평(종교용지) ● 부지 : 약 5,000평
● 법당 : 30평(목조,단청) ● 법당 : 20평(목조,단청)
● 요사 : 50평(목조,단청) ● 요사 : 2동 50평
기타 : 산신각, 석탑, 석등 ● 가액 : 8억원(전세가능)
● 가액 : 3억 5천만원 ● 특징 :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도심인근의 대작불사 할 수 있는 사찰임
● 특징 : 도심인근의 조용한 산속 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서울 010-5828-0455

사 찰 부 지 안 내

● 위치 : 전남 담양군 금성면
● 관리지역 약 1350평
(전원주택지로도 가능,분할 및 평수 조절 가능)
● 전체부지 도로접함, 정남향
● 불사건축시 최저가 책임시공 및 성실업체 알선
● 양도가 : 15만원(평당)
010-9369-6899 (주인 직접)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능곡역 3분거리 전철개통 공사 완료
● 상가 3층 중 2층 50평
● 법당, 주방, 거실, 방2, 욕실2
● 삼존불, 후불, 지장, 신중탱화 시설 특 A급
● 보증금 1천만원 / 월 5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3116-199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3호선 도로변 3층건물중 3층
● 평수 : 법당겸 주방 약 15평, 옥탑방 1
● 가액:보증금800만원 / 월33만원 시설비 삼존불등 1000만원
● 유동인구많음, 역학 보살님도 가능
02)723-3577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지내동
● 평수 : 600평
● 대웅전 25평, 산신각, 용왕각 각각 25평
● 종각 : 5평, 요사채:30평, 창고 및 큰방 하나 사찰내 주차장 확보
● 가액 : 13억
010-5466-7813
055)322-859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군포 안양 지역
● 평수 83평. 방4, 욕실, 주방, 냉난방완비, 모든시설완벽 즉시법회가능,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2천만원/월 130만원 시설비 4천만원(절충가능)
010-6271-9959

도심사찰안내

● 위치 : 울산
● 대지 : 318㎡
● 법당 176㎡(58평)
● 요사채 386㎡(128평)
● 가액 : 15억원
010-4752-88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동구 방어동 바다가 보여 보살님들 포교하기 좋은곳
● 평수 18평
● 삼존불,지장보살,신중탱화, 소불 모셔져있음
● 시설완벽,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능)
010-7930-1604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최고의 위치 지하철 2분거리 (평지)
● 자연녹지 300평,건축 허가필
● 하천부지 약350평,법당40년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0-2558-7131
011-574-330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동구 일산동 950-3
● 60평. 시설A급
● 바다가 보이는 전망 주차장 시설 완벽
● 보증금 3천만원 / 월1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54)371-4657
011-527-7001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남면 남산리
● 평수 49평
● 비구니 스님 적합
● 가액 : 3,000만원
011-9207-2488
010-2047-8376

팬션 및 가든 수련원최적지

● 위치 : 충주시내 10분 버스정류장앞 충주호 인근 남한강변 소나무숲언덕위치
● 대지 2462㎡. 건평 863㎡
● 가액 : 15억.국유림1500평
● 주차장, 텃밭사용 현, 팬션 및 가든 영업중
www.pungkyoung.co.kr
011-434-7209

임 법 당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국도변
● 부지 : 대지 150평 (실사용 평수 200평), 건물 2채,창고,욕실,화장실2개
● 마을 뒤 산자락 접함
● 가액 : 6천만원(시설일체포함)
010-9545-944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온양 역세권 (도심 포교원)
● 가액 : 임대보증금+ 시설비포함 = 2,100만원 월 35만원
● 시설 A급, 포교원으로 입주 즉시 법회 가능
010-2220-414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봉화읍 삼계리 성불사
● 법당1, 주지실 따로 있음 방 3, 주방 1, 화장실 1, 별채, 마루있음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시설 일체 완비
● 가액 : 6천 5백만원(절충가능) 시설비 포함
017-801-8633
043)422-034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삼가면 진주에서 30분 거리
● 대지 250평, 법당 25평 산신각, 용왕당 각 1평 요사 3채 75평
● 가액 : 1억 8천만원
011-9571-171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대흥동
● 법당 30평, 방 4개 총 70평
● 보증금 1000만원/월40만원 시설비 : 내사 후 절충
011-575-0257

사찰 (터) 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내전면 지전리 뒤에는 산과 전망이 뛰어남
● 평수 : 1706평(전,답) 토목 공사 완료
● 가액 : 평당 8만원
011-1751-0357
011-889-9464

서울 근교 사찰
(비구니스님에 한함)

● 남양주 오남지역 서울 30분
● 30만 신도시 사찰 불모지역
● 전철 버스정류장 교통편리
● 10만평 호수 언덕에 조용한 곳
● 국유지 1000평, 개인 1000평 별지 5000평, 법당 30평, 요사채 60평, 별당 10평
● (가건물)내년불사완공예정
● 양도 : 동참금 3,000만원
010-6600-1377

사찰및요양원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국도에서 200m. 도로는 포장 되있음
①평수 : 임야 관리지역 18,479평 농림지역 38,294평 총 56,773평
● 단감나무 200주, 가건물 40평 지하수 200m
● 가액 : 5억 5천만원(급매)
②평수 : 임야 관리지역 12,792평 농림지역 31,337평 총 44,129평
● 가액 : 2억 7천만원
017-570-1600

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 대지 약 1000평 법당 28평(현대식 조립식 건물)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75평)
● 가액 : 급매. 싸게드립니다 비품일절 양도 (일부후불가능. 스님직)
010-2536-877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동인천 역에서 5분거리
● 평수 약 85평
● 구조 : 법당,공양간,삼존불, 방,욕실,큰방등. 심야 보일러
● 모든시설 갖춰져 있음
● 법당 50평, 주변환경 주차장
● 맑은 공기,산세수려
● 보증금 4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2892-98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 평수 : 7백평(2차선 도로변)
● 가액 : 1억8천만원
● 법당, 산신각, 요사채, 방5개
● 물 좋고 산세수려한 명당자리
010-4547-00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의성읍
● 대지 : 515평 건평 1, 2층 125평
● 가액 : 3억7천만원
● 현시세 절반 가격 최고의 명당자리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1-9574-5230

사찰부지 안내

● 경관이 수려하고 사찰로 쓰는 매우 양호한 명당조건을 갖추었음
● 부지 : 15,000여평
● 위치 : 지리산 악양면 해발 약 500m (옛 사찰터 임)
011-9637-3872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김제시 납골공원 내 있는 절
● 법당15평, 삼존불, 시설일체 몸만오시면 됩니다
● 전세 1500만원
● 법사님, 역학하시는 분 환영
063)543-5551
018-427-2256

도심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역 도보 10분거리
● 4층건물에 3층법당 4층 요사방
● 법당시설완비
● 보증금 시설비 2300만원 월세 50만원
011-9105-00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국도 4차선에서 300m
● 대지 279평, 답 17평 하천 64평(등기필)
● 건물 : 법당(목조기와) 20평 단청완료
● 요사채 33평, 식당 20평
● 인수 하실분 연락바람
● 가액 : 4억 5천만원
011-878-4593
054)746-208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울산시내 중심가
● 평수 : 45평, 2층
● 시설완벽
● 보증금 1000만원/월25만 (시설비 별도)
010-3167-522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시 덕천동 지하철역 바로옆
● 삼존불, 평수 약20평
● 가액 : 6,500만원
016-403-005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휴식공간 30평 사무실 1, 방 6개 시설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전세만가능 시설비 상담후 절충
010-4199-004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전 중구 유천동 현대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 2층건물 대지 62평 1층 요사채 30평 2층 법당 25평(시설완벽)
● 가액 : 2억원
010-5408-594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송파구 문정동 로데오 동사무소 골목
● 평수 : 35평, 2층전체
● 큰방3, 법당 넓음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2500만원
02)431-0086
019-363-3414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시 얼음골 근교
● 평수 : 약 1만평
● 명산 계곡절경, 경관수려
● 가액 : 8억
010-4876-553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 대전에서 20분 거리
● 대지 : 200평중 100평 사용가능
● 시설 : 목조 대웅전 20평,삼존불 산신각 1동, 탑, 요사채 2동
● 뒤에는 산,예쁘게 잘 꾸미진 절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 가액 : 1억 7천만원(절충가능)
010-7711-285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군 추풍령 부근
● 평수 : 대지 200평 1층 요사채 60평, 2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11-9597-1084

사찰전세놓으실분

● 가액 : 1억 7천만원 대

※ 부전스님 필요하신분 연락바람
010-7425-0852

사 찰 중 개

● 위치 : 대구 ● 위치 : 서울
● 부지 : 108평 ● 대지 : 90평
● 법당 : 70평 ● 법당 : 18평
● 요사 : 140평 ● 요사 : 20평
● 가액 : 12억 ● 가액 : 5억 급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오전 약수탕
● 부지 : 총 3000평 이상(종교용지, 대지 500평)
● 시설 : 대웅전 춘양목으로 5포 7포집 25평, 요사채, 산신각, 서재, 누각등, 부엌, 최고급 단청마친지 6개월, 화장실 현대적
● 환경 : 호수 위에 위치하여 경치가 좋고 풍수완벽
● 가액 : 7억(절충가능), 총 불사비 15억 들었음
017-848-3330/051)335-312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 평수 : 24평, 삼존불
● 보증금 5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0-8504-6591

토 굴 안 내

● 위치 : 하동 악양 지리산 자락
● 부지 : 680평
● 가옥 : 신축 황토 기와집
● 특징 : 마을 외각 경치 좋음
● 가액 : 2억 2천
010-4782-2112

포교당(빌딩속)사찰안내

● 위치 : 서울 근교
● 평수 : 110평
● 법당 약60평,삼존불(동불),불단,삼성각(원목)등 요사 약50평,방3개,상담실,주방,거실, 주차장시설완비
● 가액 : 3억 3천만원(융자별도)
050-2345-1569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진전면
● 마산, 진주, 고성, 통영, 함안30분거리
● 대지 600평, 법당 25평
● 삼존불, 요사채 30, 20평
● 마당, 연못
● 가액 : 3억(가격절충) 일부 융자 가능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람
010-3996-2035

암 자 안 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약 일백년 된 좌청룡 우백호 산세 좋은 명당터
● 신축 요사 35평인 법당,심야 기름 겸용,삼성가 목조 5평 허공 산신각, 자연우물 용궁,상 목조,중 허공,하 거북 3탕(지하 암반수 110m있음),부속건물 5평 방1,차고1
● 자연석 조경 및 돌탑 잘 되어있음, 큰 도로 시내버스 정류소 300m 산위에 단독있음, 도로포장 잘 되어있음,주차 30대 이상
● 교통 : 원주시청-충주시청 4차선 전용도로 개통 시 약 10분거리 위치 중간에 있음(현재 부분개통사용)
● 땅 : 1230평 시세:평당 40만원, 현지답사 후 절충가
● 주지스님 건강 문제로 급매,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011-371-5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산시 용성
● 대지237평, 텃밭 665평, 모두 902평
● 법당20평정도, 요사30평, 심야보일러
● 동불 3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마당까지 차진입
● 가액 : 일억팔천오백만원
011-509-0124

● 청도군 풍각면소재지 시내중심
● 대지70평, 건물40평
● 입법당,방3,주방,욕실,수세식화장실,기름보일러
● 비구니스님토굴로 적합.
● 가액 : 6500만원
011-509-0124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58>
(修習止觀坐禪法要)

제7장 선근발상(善根發相) ④

아상이 없으면 상대적인 인상도 없다

앞 문장에서 '인상과 아상을 보지 않는다' 라는 구절은 이세십이인연(二世十二因緣)을 추구해서 살피는 것이다. 무명(無明)으로부터 유(有)에 이르기까지가 현재십지인(現在十支因)이 되고, 생사는 미래이지과(未來二支果)가 된다.

가령 이 몸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추구해보면 부모가 남겨주신 몸으로 여러 가지 인연이 임시로 화합해서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합하는 인연이 없었다면 이 몸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만이 교합을 하고 중음신(中陰身)의 허망한 식이 없다면 이도 역시 몸을 얻지 못한다. 따라서 반드시 중음신으로서 생을 받을 원인이 있어야 만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합하는 인연을 빌려서 이 몸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인과 연을 추구해 볼 때 각자 일어나는 성질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없는 것일까.

만일 각자 태어나는 성질이 따로 있다면 동시에 두 명이 태어나야만 하고, 태어나는 성질의 화합하여 서로 함께 공동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이도 역시 태어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추구해 볼 때 공동으로 화합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원인 없이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몸에서 아상을 추구해보아도 끝내 실체를 얻지 못한다.

아상이 없으면 그에 상대되는 인상도 역시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상이 있어야 만이 동시적으로 인상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아상과 인상은 상대적인 의존관계에서 성립되기 때문에 진실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이세십이인연은 아상과 인상이라는 차별적인 견해를 타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이 실제로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단견과 상견을 멀리 떠나서 아상과 인상이 있다는 잘못된 견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안온하여 지혜가 개발되고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 법에 대한 희열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세간의 일체 육진경계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

오음은 색 수 상 행 식을 말한다. 이 오음으로 이뤄진 몸에 대한 집착은 마치 그늘이 광명을 가리듯 우리의 진실한 본성을 덮어버린다. 때문에 '다섯 가지 그늘' 이라고 하였다.

십이처는 육근과 육진이고, 육식을 더하면 십팔계가 된다. 오음을 분류한 육입 십이처 십팔계에서 실제 자성을 추구해보았으나 그 모두도 실제를 얻지 못하는 것도 역시 이와 같다.

이는 지관 수행을 하기 때문에 과거 전생에 수행했던 인연관이 금생의 선근 모습으로 발동한 것이다.

오음으로 이뤄진 우리 몸에 대한 집착은 그늘이 광명을 가리듯 진실한 본성 덮어

五念佛善根發相 行者因修止觀故 若得欲界未到地定 身心空寂 忽然憶念諸佛功德 相好不可思議 所有十方 無畏不共三昧 解脫等法 不可思議 神通變化無礙說法 廣利衆生不可思議 如是等 無量功德 不可思議

다섯 번째로 염불수행을 통해서 일어난 선근의 공덕에 대해 밝혀보기로 하자.

우리가 금생에 생사고해 가운데 몰입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포자기해서 안되며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만 한다.

가령 여러분들이 경전강의를 기쁜 마음으로 듣는 것도 모두 과거의 선근공덕 때문이며, 환희심으로 염불을 하고 서방극락세계에 왕생을 발원을 하는 것도 역시 과거 전생에 염불하기를 좋아했던 선근이 발현한 모습일 뿐이다.

단지 우리가 전생에 염불할 때 산란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발원하지 않고 죽음에 임박한 즈음에야 진실한 마음으로 염불했기 때문에 생사를 끝내지 못하고 거듭 괴로움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다.

전생에 이와 같이 염불한 공덕이 있었기 때문에 금생에 단 한번만이라도 훈습을 받는다면 즉시 기쁜 마음으로 염불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금생에 부처님 가르침을 의지해서 흩어진 마음이 없이 간절하게 한 구절 아미타불을 염불하면 임종할 때 서방극락세계로 왕생하여 아미타부처님을 직접 뵙고 무생법인을 깨닫게 된다.

알아야 할 것은 다음 생에 얻게 되는 것은 모두 과거 전생에 심은 선근의 씨라는 점이다. 이로써 관찰해보면 끝없이 망망한 생사의 바다가운데서 선근을 심는 것이 가장 긴요한 일이다.

염불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법신불을 염불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보신불을 염불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응신불을 염불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중생이 미혹을 일으키고 업을 짓는 갖가지 장애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세존께서 그 병통에 따라 처방한 것도 각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가령 깜깜한 혼침의 장애가 있어 무기의 상태에 빠졌을 땐 반드시 응신불을 염불을 하면서 부처님의 삼십이상 팔십종호를 관찰하는 것으로서 대치해야만 한다. 또 악한 생각으로서 장애가 일어나 오욕과 십악 등의 죄를 짓고 싶지 않으면 보신불을 염불해야만 된다. 왜냐하면 여래과보의 몸인 보신불은 십력(十力) 사무소외(四無所畏) 십팔불공법(十八不共法) 삼십칠조도품(三十七助道品) 등 한량없는 삼매를 만족하게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보신불을 염불하면 악한 생각을 대치할 수 있다.

대상경계가 자신을 핍박하는 경우 가령 몸이 홀연히 극심한 통증을 느끼거나 손발이 없어지거나 또는 불에 타고 물에 빠지는 일을 당할 때에는 반드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염불함으로써 대치해야만 한다.

그 이유를 말해보겠다. 비로자나 법신은 차별적인 모습이 없어 그 자체가 공적하고 조작이 없다. 때문에 중생이 경계의 핍박을 받을 경우 비로법신불을 염불하면 바로 소멸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비로법신은 공적하여 따로의 형상이 없기 때문이다.

수행인이 과거 전생에 이 같은 세 종류의 염불을 했기 때문에 금생에 지관을 수행하면 몸과 마음이 공적하여 홀연히 모든 부처님의 공덕과 상호는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 이 경계는 삼매를 얻은 뒤에 몸과 마음이 모두가 공적하게 된다.

공적한 것은 단지 있다고 집착하는 모습만 고요할 뿐 대상 자체마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만 한다. 이를 두고 진공묘유(眞空妙有)라고 한다. 때문에 공적한 가운데서 홀연히 모든 부처님 공덕과 상호는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응신불을 염불하는 데서 일어난 선근이 모습이다.

모든 부처님 여래의 삼십이상과 팔십종호는 원력 수행의 공덕으로서 장엄하였다. 따라서 낱낱의 상호마다 미묘하지 않음이 없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헤아리지 못하고 언어로 의론하지 못한다. 때문에 모든 부처님 지혜와 공덕은 불가사의하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신불을 염불하는 데서 일어나는 선근공덕의 모습이며, 걸림없는 설법을 통해서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법신불을 염불해서 발현한 선근발상이다.

법신은 여여하여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데서 중생에게 감응의 교화를 일으킨다. 대비 원력으로 구계(九界)중생을 따라서 갖가지 방편으로 그들을 교화하고 인도한다. 이와같은 한량없는 제불공덕은 불가사의하기만 하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십이인연(十二因緣)

우선 십이인연의 명칭부터 차례로 나열하고 그 개념을 간략히 서술해보겠습니다.

1)무명(無名)
무명은 모든 유정들이 무의식 속에 내재한 잠재적이고 본능적인 심리활동입니다. 이는 탐 진 치 '삼독심' 가운데서 치심에 해당됩니다.

2)행(行)
행은 의지적인 활동입니다. 행은 업(業)이라고도 하는데, 신 구 의 삼업(三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식(識)
식은 인식주관의 여러 가지 요소, 즉 육식신(六識身)입니다. 이는 안식으로부터 의식까지 말합니다. 하지만 '유식술기(唯識術記)' 에서는 "이 식은 제팔아뢰야식으로서 친인연(親因緣), 즉 자류과(自類果)를 내는 직접적인 종자세력으로 자체를 삼는다"라고 하여 '연기경(緣起經)' 에서 말하는 육식신(六識身)과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명색(名色)
명색은 인식대상으로서의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인식활동입니다. 즉 오온 가운데서 수 상 행 식 '사온(四蘊)' 은 명(名)에 해당되고, 나머지 색온(色蘊)은 색(色)에 해당됩니다.

5)육입(六入)
육입은 감각작용입니다. 이는 십이처(十二處)에서 이미 살펴본 내육처(內六處)로서, 즉 안처(眼處)로부터 의처(意處)까지 말합니다. 육촉신(六觸身)이라고도 하고, 또는 육처(六處)라고도 합니다.

6)촉(觸)
촉은 감각작용입니다. 육입(六入)이 있기 때문에 촉 역시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입이 촉과 동시적인 인연관계를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육입이라는 여섯 종류의 도구를 따라서 상대적으로 떠오른 육경(六境)으로 추구하면서 그 대상을 분별심으로 취하는 세력이 있게 됩니다. 이처럼 육경을 상대적으로 취하면서 그 대상경계를 흡사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마치 자기 마음 밖에 있는 실제의 사물이라는 감각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같은 감각인식작용을 '촉' 이라고 합니다.

가령 육입 가운데 안입(眼入=眼根)이 그 대상경계로 떠오른 색경(色境)을 마주했을 때 색경은 자기 안식분별의 모습임을 모르고 자기 인식 밖에 따로 실재하는 사물로 여기고 감각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촉은 육입과 인연관계를 이루면서 육경에 대한 감각작용을 동시적으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불자정보 702호
TEL 02) 2004-8219(直) 732-1522
FAX 02) 737-069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신천지하철역
● 건평 4층건물중 3층(45평)
● 보증금 5백만원 월40만원
시설비별도 3천만원
● 시설완벽,비품 일체 양도
010-8676-7107

지리산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산청 시천 중태리
● 대지 374평(실평수 약 600평)
● 법당30평,요사30평,산신각2.5평
● 차실, 텃밭 760평 총 2800평
● 뒷산 홍송, 절옆 폭포
● 가액 : 2억8천만원(절충 가능)
011-9393-4965

포교당(암자)안내
● 위치 : 대전시 동구 가양동 주택가 요지
● 평수 : 단독 1층건물 27평
작은마당있음
● 아미타,관세음,지장보살,후불탱등
고급신조성시설
● 가액 : 보증금 1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600만원
042)623-3309
011-457-3344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함평군 대동면
● 대지 391평(사용가능 땅 600평)
대웅전 : 35평
요사채 방 5개,부대시설 일절
● 영광불갑사까지 이어지는 산세
● 2억2천만원(절충가능)
010-6654-160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모라동
● 스님이 외국불사관계로
운영하실 원력스님을 찾습니다
● 4층 중 4층
● 석가모니불,관음지장,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봉안
관음원불,132불, 법당 외
방2개,주방1,화장실 45평
● 보증금 3000만원, 월10만원
시설비 2천만원
● 인연있는 스님을 기다립니다
010-2304-2221

포교원 안내
● 부산 사상구 덕포지하철역 바로,
버스정류장 바로. 교통 최요지
● 평수 : 25평
● 법당, 삼존불, 탱화 일절
● 보증금 2,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가격절충
● 법사, 스님에게 적합
010-4557-218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천안시 쌍용1동 대로변
전철역 5분거리 ● 평수 : 40평
● 상가 : 4층건물중 2층전체
● 구조 : 방3개 법당
시설완비 즉시법회
● 보증금 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2259-678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 4층건물중 2층(42평)
● 법당 35평, 비품일절양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 가능함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저렴하게 양도함
● 보증금 500만원 / 월 45만원
시설비별도 답사후결정
010-7496-3312
010-5013-2526

도심포교(급)안내
● 위치 : 서울 망우동 동네5거리
● 부자명당터
● 약 50평, 2층
● 시설완비. 건물주 불자
● 3천만원, 월70만원
● 신축불사로 매우 저렴
급 양도
017-265-936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상인동
(아파트 밀집지역)
● 4층건물중 2층(80평)
● 법당(40평), 요사채(40평)
● 시설완벽하여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는 답사후 절충가능함
053)629-4916
011-9374-1399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동명면
● 대지 75평, 건평 25평
● 한티재 가는 길목
● 전부 개축 깨끗하고
시설완비
● 가액 : 9천만원
011-522-6550

매매 부동산 표시
사찰부지및별장적합 급매
● 경북 예천군 하리면 금곡리 산78번지
29,066제곱미터(8,792평)
● 경북 예천군 하리면 금곡리 361번지
전 3,031제곱미터(917평)
● 경북 예천군 하리면 금곡리 363번지
전 1,250제곱미터(378평)
● 경북 예천군 하리면 금곡리 363-1번지
전 4076제곱미터(1,233평)
총 37,423제곱미터(11,320평)
가액 : 1억2천만원
010-9945-2030

대사찰 급 안내
● 위치: 경북 영양군 일월면 오리리 1-1번지
● 자연환경: 일월산 밑 질성봉에 대미륵불 발견
천년생 약수터 전면에 하천 주변은 질보석
암벽지대
● 조성환경:대지2700평을 토목공사 완료
고급관상수 와 약재목 식재 골프잔디밭,
칠보석 축조된 연못,사원내 포장도
심야전기 난방 40미리수도관
● 사찰규모: 대웅전 70평,요사채 90평,산신각 8평
기타건물 3동 불연성건물 별장같은
사찰을 안내합니다. ● 가액 : 6억원
011-538-221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안지랑이4거리
안지랑지하철 1분거리
시내 버스정류장입구,앞산아래
● 평수 : 약40평,3층 중2층전체
● 구조 : 법당,공양간,방2,세면장
● 보증금 1천만원,월 5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1-9355-37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IC 부근
● 대지 220평
● 건물 1층 요사채 47평
건물 2층 법당 23평, 산신당 4평
그외 차고 15평, 심야전기
● 가액 : 5억
011-9114-9935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초량
● 3층건물중 3층(50평)
● 법당,삼존불
거실,방2개(시설완비)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5백만원
051)466-7237
010-549-3374

소백산 자락 사찰터,별장터
● 소백산 자락(영주에서
부석사 중간)산 270m고지
(영주시에서 10분에서 15분거리)
● 관리지역 및 독립구역 5,300평,
명당산세
● 차량진입로 포장(주차장 포함) 및
전기 인입 완료
● 평지 토목공사 완료로 바로 건축가능
명당터로 아늑하고 경치가 좋음
016-573-2032
(명당터 보실분만 사전 연락요)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도로변 전철 3분
● 3층 : 40평, 법당, 방 2칸,
주방, 욕실
4층:방大1칸,옥상 단독 사용
●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전,월세 절충가)
시설비 500만원
011-9342-979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대강면 남천리 31번지
● 대지 : 1500평(건물-23평 방 3개. 주방 1개. 욕실1개)
● 고려청자만드는 황토흙(진주에서구입)으로 지은집임
바닥은 100가지약초를 석어서황토로 만들어서 아주좋음
● 석불(약사여래불), 사과나무230주(2년생), 소백산 도솔봉밑줄기에 약숫물 효험
● 단양온천들어가는입구로 산세가 아주좋음
● 가액 : 2억 5천만원(가격조절가능) ● 조계종스님이 계시는 황토집
054)832-2794 / 010-6582-2588

우두종 반야·노장·중현학 결합해 새 선학 사상 제시

<20> 선사(禪師)문하의 거사들(1)-이화

당대(唐代)에 들어가면서 선종(禪宗)은 중국의 중요한 종파로 성립된다. 물론 남북조(南北朝)시기에 북방을 중심으로 달마(達摩)-혜가(慧可)계의 이른바 '남천축일승종(南天竺一乘宗)'이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종파를 형성할 정도는 아니었다.

종파의 성립 조건을 독자적 사상과 그를 제시한 종조(宗祖), 그리고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한 문도(門徒)의 세 가지로 본다면, 선종은 바로 이른바 4조(祖)로 칭해지는 도신(道信) 선사와 5조 홍인(弘忍) 선사의 동산법문(東山法門)에 이르러 형성됐다. 엄밀하게 말하면 선종의 초조(初祖)의 지위는 당연히 도신 선사가 돼야 할 것이다.

도신 선사의 선사상은 달마-혜가계와 상당한 차별을 지닌 독자성을 구비하고 있고, 또한 도신-홍인의 문하에는 각각 700여 명, 1200여 명의 대중이 모였으며, 나아가 북종(北宗)과 남종(南宗), 남종으로부터 분화된 오가칠종(五家七宗), 염불선(念佛禪) 등 선종의 모든 분파가 도신-홍인의 동산법문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종의 기치인 '교외별전(敎外別傳)'과 '이심전심(以心傳心)'은 필연적으로 석가모니 불조(佛祖)에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논리적 결과를 연출하게 된다. 더욱이 초당(初唐)시기에 유가에서는 '전법세계(傳法世系)', 도가에서는 '도통설(道統說)'을 확립시켰다. 선종보다 앞선 기존 종파에서도 역시 부법(付法)의 법맥을 확립했다.

이에 선종에서도 법통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심전심'은 그 법통을 석가모니 불조로 이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이른바 '서천(西天) 33조(祖)'와 '동토육조(東土六祖)'의 '조통부법설(祖統付法說)'을 세웠고, 결국 중국선종의 초조는 서역으로부터 온 달마(達摩) 대사가 차지했다.

중국의 제종파 가운데 뒤늦게 형성된 선종은 여러 시절인연으로 점차 중국의 대표적인 종파로 정립돼 명·청시기에 이르러 정토(淨土)와 결합해 천하를 석권하게 됐다. 이러한 과정에는 선사상 자체가 중국인들 성향에 맞게 재구성됐던 까닭과 기라성 같은 선사들의 역할이 있었지만, 그 외에 거사들의 다양한 활동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선종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법통 문제와 교세 확장에 있어서는 사대부 거사들이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하겠다. 이에 선종에 있어 뛰어난 거사들의 면면을 살펴본다.

선종의 거사들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주목할 거사는 바로 이화(李華; 715~766) 거사이다. 거사는 자(字)가 하숙(遐叔)으로 조주(趙州) 찬황(贊皇, 현 河北省 元氏)사람이다. 어려서 진사(進士)에 급제해 감찰어사(監察御史), 우보궐(右補闕) 등 관직을 맡아 많은 사람들의 시샘을 받았다고 한다. <신당서(新唐書)>에 실린 그의 전기에 따르면, 거사는 안록산의 난이 일어났을 때, 모친을 구하려고 반란군이 점령한 장안(長安)에 갔다가 반란군에게 잡혔다. 난이 평정된 이후, 그 과오를 물어 항주사호참군(杭州司戶參軍)으로 관직이 강등됐다. 후에 다시 이부(吏部) 원외랑(員外郞)으로 중용됐으나 거사는 "위급한 난을 당해 절개도 지키지 못하고, 또한 모친을 편안하게 모시지도 못했다"며 관직을 사양하고, 강남(江南)의 산양(山陽)에 은거했다. 자식들에게도 관직에 나가지 말고 농사를 지으라고 권했다. 이런 정치적인 배경으로 거사는 만년에 더욱 불교에 심취하게 됐다.

담연 대사에게 천태학, 선무외 삼장에게 밀교 배워
현소 선사 스승으로 우두선(牛頭禪) 널리 전해

거사는 일찍이 천태종의 형계담연(荊溪湛然) 대사로부터 천태학을 배웠다. 담연 대사는 거사를 위해 <지관대의(止觀大意)>를 찬술하기도 했다. 또한 <대일경(大日經)> 등 밀교경전을 번역한 선무외(善無畏) 삼장으로부터 밀교를 배웠다. 개원(開元) 23년(735) 선무외 삼장이 입적하자 거사는 삼장의 <행장(行狀)> 및 <비명(碑銘)> 등을 찬술했다. 그러나 만년에 거사는 우두선(牛頭禪)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 거사는 우두법융(牛頭法融) 선사 5세손 경산현소(徑山玄素) 선사를 스승으로 모시며, 우두선이 널리 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소 선사 입적 후, 거사는 <경산대사비명(徑山大師碑銘)>을 찬술했다. 이 비명에서 거사는 우두선의 법맥을 '도신(道信)-법융(法融)-지암(智巖)-혜방(慧方)-법지(法持)-현소(玄素)'로 설정했다. 역대로 선종에서는 거사가 설정한 법맥에 따라 법융 선사를 도신 선사의 사법(嗣法)으로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우두선을 정통 선맥으로 인정했다. 그런데 이런 법맥은 최근 연구에 의해 믿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더구나 우두법융 선사와 동시대에 활동한 도선(道宣) 스님은 최초로 법융 선사의 전기를 <속고승전(續高僧傳)>에 기재하면서 도신 선사와의 사법관계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만약 도신 선사와의 사법관계가 사실이라면 법맥을 극도로 중시하는 선종 승려의 전기를 집필하면서 그를 누락시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거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법맥을 설정했을까?


그림 · 김흥인

이는 거사가 활동할 당시 동산법문의 위상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신수(神秀) 대사의 북종(北宗)이 측천무후(則天武后)의 귀의를 받음으로서 제도(帝都)불교에 진입해 위세를 떨치고 있었고, 또한 하택신회(荷澤神會) 선사가 육조혜능(六祖慧能) 선사를 선양하기 위해 맹렬하게 '북종은 방계이고, 혜능의 남종만이 정맥'이라는 '남종현창(南宗顯彰) 운동'을 전개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북종과 남종을 모두 배출한 동산법문은 선종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담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사가 귀의한 우두선의 법맥을 동산법문 창시자인 도신 선사에게 연결시킨다면 그 효과는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경산대사비명>의 끝부분에 현소 선사에 대한 거사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구절이 있다. "제자는 경산 선사로부터 법을 들음은 마치 악정자춘(樂正子春)이 부자(夫子; 공자)에게 들은 것 같도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악정자춘이 부자에게 들은 것 같다"는 것은 바로 <예기(禮記)>의 <제의(祭義)>편에 나오는 고사에서 비롯됐다. 즉 악정자춘이 발을 다쳐 몇 달 동안 근심했는데, 제자들이 물으니, 효(孝)는 몸을 상하지 않음을 기본으로 하는데 몸을 다쳤으니, 나는 그를 근심하는 것으로, 이를 증자에게 들었고, 증자는 다시 부자에게 들었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효'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다.

거사가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바로 스승을 향한 지극한 '효'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예로부터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고 해 스승에게도 지극한 효를 다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지극한 효의 완성은 무엇인가? <효경(孝經)>에서는 효의 완성을 '입신양명(立身揚名)'으로 설정한다. 우두선에 귀의한 거사의 '양명'은 무엇이었을까? 선식(禪式)의 양명은 거사가 귀의한 우두선에 정통성을 부여해 선법이 보다 널리 세상에 펼쳐지는 것 아니었을까? 이는 물론 필자의 추론일 뿐이다. 그러나 거사의 의도는 성공적이어서 역대로 우두선은 정통선맥으로 평가됐다. 또한 거의 반세기가 지난 후(829), 선종에 심취한 류우석(劉禹錫) 거사에 의해 <우두산제일조융대사신탑기(牛頭山第一祖融大師新塔記)>가 찬술된다. 여기에서도 법융 선사는 도신 선사의 법맥으로 묘사된다. 아마도 류우석 거사는 이화가 찬술한 <비명>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화 거사의 <비명>에는 현소 선사가 입적하자 '주(州)의 자사(刺史)와 읍(邑)의 관리가 상례(喪禮)를 주관했고, 대중들을 인솔하여 애도하니, 강호(江湖)에 슬픔이 가득했다'는 표현이 나타난다. 또한 '보살계(菩薩戒) 제자'로서 '이부시랑(吏部侍郞) 제한(齊澣), 형부상서(刑部尙書) 장균(張均), …… 예부원외랑(禮部員外郞) 최영흠(崔令欽)' 등 십여 명의 중앙 고위관료들의 명칭이 보인다. 이것을 보면 현소 선사 주변에 상당히 많은 거사들이 활동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가운데 여러 명이 신·구의 <당서(唐書)>에 그 전기가 게재돼 보다 구체적인 관계를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이화 거사는 대력(大歷) 원년(元年)에 52세의 나이로 입적했다. 거사는 시문(詩文)에 능해 주옥과 같은 많은 글들을 남겼다. 후인들이 그를 모아 <이하숙문집(李遐叔文集)> 10권으로 편찬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우두종은 삼론종(三論宗)의 반야사상과 노장(老莊)사상, 특히 성현영(成玄英)의 <장자(莊子)>를 새롭게 해석한 '중현학(重玄學)'을 결합시켜 새로운 선학(禪學)사상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우두선이 선종의 정맥으로 들어오면서 후기 선종, 즉 조사선(祖師禪)에 있어서는 점차로 <장자>의 영향을 깊이 받게 돼 이른바 '장학화(莊學化)'의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흐름은 바로 이화 거사가 우두선의 법맥을 조작한 결과라고 한다면 너무 비약한 것일까?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이 름	나 이	신장	학 력	직 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무원	서 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영업	청 주
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졸	CEO	청 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사원	대 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사원	대 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전문직	구 미
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졸	공무원	서 천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영업	서 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사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부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사원	부 여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사원	전 주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사원	충북영동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사원	대 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사원	대 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사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무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사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자영업	인 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졸	회사원	수 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사원	대 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재	금융직	서 울
김종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사원	서 울
이영일	1965년생	165	대 졸	회사원	강원태백
박종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사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재	공무원	서 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사원	서 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사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사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사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영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사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졸	복지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 졸	회사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 사	서 울
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졸	회 사	부 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 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설사업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업	서 울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설사업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 업	전주시
문윤종	1970년생	163	고졸자	영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무원	대 전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회사원	부 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건설사업	서 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 사	진해시
정연종	1959년생	165	고 졸	공무원	충 남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 사	경기도
박헌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 사	서 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 사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무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회 사	대구시
박준규	1971년생	170	대 졸	건설사업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졸	자영업	홍성군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조리사	경기도
김진묵	1969년생	170	고 졸	공무원	충 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 사	대 구
서종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 사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자영업	경주시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모용구	1973년생	175	대학원	교육직	경기도
박대식	1974년생	177	대학자	영 업	충 남
최병익	1974년생	176	고 졸	회사원	서 울
김진혁	1964년생	160	고 졸	회사사업	경기도
정지민	1970년생	162	고 졸	회사원	대 전
정일도	1967년생	165	고 졸	회사사업	서 울
박선준	1974년생	175	대 학	회 사	천 안
진인덕	1965년생	157	대 학	농 업	북 구
연태현	1973년생	182	고 졸	회사원	서 울
전홍배	1979년생	170	대 졸	자영업	대 전
박정은	1972년생	168	대 졸	학원강사	북 구
강충남	1973년생	160	고 졸	회 사	전 북
손종헌	1971년생	172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김대수	1973년생	170	대 졸	교육직	울 산
장천석	1967년생	175	고 졸	회사원	서 울
안상기	1966년생	185	고 졸	공무원	충 북
정우철	1974년생	175	대 졸	회 사	충 북
김윤구	1979년생	170	대 졸	회 사	경 기
정효승	1975년생	170	대 졸	회사원	대 전
유준호	1971년생	176	대 졸	회사원	울 산
왕현민	1973년생	179	대학교	대학교전임강사	천 안
박대현	1977년생	168	고 졸	회사원	충 주
박범진	1975년생	182	고 졸	공무원	서 울
민건홍	1973년생	170	전문대	건축설계	경기도
한상규	1973년생	171	대학교	환 경	충 북
양명진	1955년생	170	고 졸	회사원	논 산
이용철	1967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고종욱	1970년생	167	대학교	회사원	서 울
안태영	1975년생	170	대학교	회사원	천 안
박진풍	1969년생	162	대학교	학원강사	산 구
배종우	1971년생	170	전문대	자영업	대 서
김상기	1975년생	170	고 졸	조리사	울 북
이종호	1976년생	163	고 졸	회사원	북 북
오진철	1974년생	170	대 졸	한약사	충 북
이상경	1974년생	173	대학교	회사원	경 북
최영철	1966년생	160	전문대	회사원	산 전
정선모	1964년생	158	대학교	치과원장	대 구
유창식	1974년생	165	대학교	약 사	충 북
전보우	1971년생	173	대학교	금 융	울 천
차준학	1972년생	171	대학교	철도공사	인 천
이공희	1972년생	165	고 졸	회사원	대 전
안민수	1974년생	175	대 졸	회사원	경기도
고석범	1974년생	162	대 졸	회사원	대 전
오귀석	1958년생	170	고 졸	군 인	충 북
이진용	1955년생	175	고 졸	회사원	청 주
안명규	1977년생	168	대 졸	회사원	서 울
여인석	1971년생	183	대 졸	학원원장	경기도
여인재	1973년생	176	대 졸	학원원장	경기도
박홍철	1974년생	170	고 졸	회사원	청 주
임재환	1970년생	173	고 졸	부동산	대 구
최우준	1971년생	167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김정태	1957년생	162	대 졸	회사원	경기도
성민수	1976년생	168	대 졸	회사원	서 울
곽태성	1958년생	172	대중퇴	공무원	청 주
정현제	1965년생	174	대 졸	제과점	청 주
김호준	1970년생	166	고 졸	버스기사	서 울
이기종	1971년생	175	대학재	회사원	서 울
최성욱	1973년생	190	대 졸	도예가	경기도
조성준	1975년생	170	전문대	회사원	서 울
원병대	1971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고병진	1975년생	163	대 졸	회사원	서 울
김지경	1970년생	168	고 졸	회사원	대 구
김정준	1965년생	165	대 졸	회사원	서 울

현대불교신문 구독자 인연찾아주기 [캠페인 PR]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297-4 대성사
전 화 | 043)732-5560
010-9422-8453
팩 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



대행 스님

일체 만법은 다 한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일분일초도 쉬지 않고 서로 공생 공용을 하면서 공체로서 공식화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반면에 네가 있고 내가 있고 천차만별로 개개인이 있습니다. 차원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게 되는 오늘의 이 자리를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인간이라 하면 '우리 이 자체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마음과 마음으로써 내 마음과 몸을 다스리면서 모든 일을 꾸려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입산을 했든 입산을 안 했든 이 공부하는 데는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면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온 고장을 모르기 때문에 갈 고장도 모르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하라. 영원한 근본, 자기 뿌리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맡겨 놔라." 이렇게 해도 '뿌리가 뭐 말라빠져 죽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나 봅니다. 어떤 분들은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도 과감히 놓고 가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7, 8년이 돼도 놓고 가지 못합니다. 이건 무슨 까닭일까요. 자기 마음으로써 자기를 다스리고 행을 하면서 그 행하는 자체가 바로 자기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를 알고 모든 거를 놓을 수 있다면 될 텐데, 그거를 모르고 항상 방황하고 관습을 좇아서 '이거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하고 끄달리고 가니 어떻게 걸림 없이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제일 시급한 것은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나를 발견했다면 상대를 발견하는 것이고, 상대를 발견했다면 세상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나오고부터 벌어진 일들인데도 나로부터 찾지 않고, 나로부터 생각해서 다스릴 줄 모르고, 나한테 닥치는 용도대로 모든 것을 그 자리에다 다시 입력을 해서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게 할 줄 모르고 이런다면 일일이 닥치는 것을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한다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인연 없는 중생은 어찌할 수 없느니라." 하신 뜻도 거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내가 수 해를 두고 수십 년을 두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그 뜻을 모른다면 항상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세생생에 그 굴레에서, 업식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럼으로써 옷을 바꿔 입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한 대로 옷을 입고 나오니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지금 생활 속에서 살면서 벌어지는 일이니 옛날 얘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혼자 외로이 살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길렀더랍니다. 말할 데가 없으니까 고양이한테 항상 말을 걸면서 "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잘하는 짓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다." 하면 그 말을 듣는 것처럼 눈을 똥그랗게 뜨고 쳐다보더랍니다. 수 해를 그렇게 가다 보니까 고양이가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알아듣더랍니다. 그대로 알아들어서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생각하고, 주인을 따라서 너 나가 둘이 아니게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친척이 재산 때문에 그 사람을 살해하고 재산을 송두리째 다 갖게 됐더랍니다. 그런데 살해해서 갖다가 버린 그 자리에 항상 고양이가 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더랍니다. 자기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야옹 야옹" 하고 고양이 우는 소리로밖에는 듣지 못하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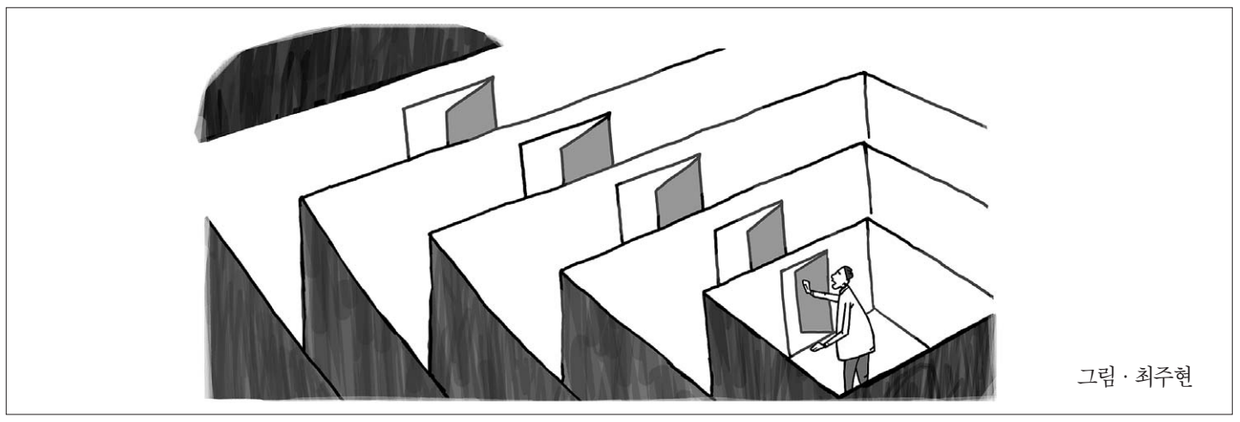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어느 탐정이 그래도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는 그 요량을 알았던지 그 고양이의 심상치 않은 태도를 보고 거기를 파 봤더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시체가 나오고, 그래서 그 재산이 고양이 앞으로 다 갔더랍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있겠습니까? 자기 주인이 죽었던 자리에 가서 그대로 몸을 벗었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얘기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고양이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개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돼지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천차만별의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산 대로 말입니다. 그러니 옛날 얘기라고만 하겠습니까? 그전에도 여러분한테 말을 했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사람의 의식이 남아 있는데다가 고양이의 모습을, 옷을 입고 나온다거나 개 모습을 하고 나온다거나 돼지 모습, 소 모습, 토끼 모습, 곤충의 모습, 저 나무의 모습 등 가지가지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옥이겠습니까? 상대방들은 모두 옷 입은 대로 대접을 해 줄 겁니다. 독사 소굴에 들어가서 독사가 되었다면 독사의 대접을 해 줄 수밖에는 없죠.

그러한 고로 여러분이 지금 사실 때에 어떻게 살아야만이 잘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만이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 중용을 할 수 있으며, 중용을 하는 데도 걸림 없이, 어떠한 거를 본다 듣는다 해도 구김살이 없이 자유스럽게 무명을 벗겨 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기가 무명을 벗은 고로 어떠한 곤충에 이르기까지라도 보고 들으면 무명이 벗겨질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자기를 알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칠석(七夕)이다' 이럽니다. 칠석날! 일체 만물만생이 둘이 아닌 고로 종합적으로 여래라고 하는 거와 같이, 칠석이라는 이름은 종합된 이름입니다. 칠석! 그러면 또 칠성은 무엇인가? 그거는 개개인들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성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떼려야 뗄 수 없듯이, 성 자체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성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칠성은 개개인의 성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과 성을 종합해서 칠성이라고 이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북두칠성도, 어떠한 별성도 이 우주 천체가 우리 마음에 직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대로 살 수 있게끔 하는 도리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끔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유스럽게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유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대로 못 쓰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칠석날 촛불을 켠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마음의 밝음을 그대로 연결해서 내가 밝아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칠석날은 산 사람이 촛불을 밝히듯이 내 마음을 밝혀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땅에서 싹이 났는데 그 싹은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칠석날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자기 뿌리와 더불어 마음을 밝혀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뿌리와 자기 싹은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스님네들은 스님네들대로 물을 촉촉히 주면서 "마음을 밝혀서 네 뿌리를 보아야 된다. 네 뿌리가 일체 살림을 하고 가는 것을 알아야 한다. 들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백종(百種)은 왜 생긴 건 줄 아십니까? 백종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백종입니다. 씨가 아직 땅속에 들어가지 않은 관계상 여러 신도님들은 부모를 위해서나 자기를 위해서나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씨는 다 마찬가집니다. 싹은 났으되 그 자기의 씨를 모르니까 말입니다. 살아 있을 때에 그 씨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싹으로 그냥 있는 줄 알고 허공 중에 헤매는 조상들이,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신도님들이 밭을 갈고 흙을 고르고 물을 촉촉하게 해 놓으면 스님네들은 씨를 심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씨가 바로 싹이 되고 할 때에,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천도재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염불만 해서 천도가 되는 게 아니고 씨가 심어지는 게 아닙니다. 씨를 어디다 심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지죠. 또 씨를 심었다 하더라도 자기 씨에서 싹이 났다는 거를 그 조상의 영이 스스로 알 수 있게끔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스님네들의 소임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도 은연중에 자기 뿌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손들이 그렇게 해 놓으면 스스로 자기 마음의 뿌리도 알게 될 것이며 조상들도 마찬가지여서 양면이 다 알게 됨으로써, 즉 말하자면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냥 절에 와서 촛불이나 켜고 향이나 피우고 물이나 떠 놓고 꽃공양이나 하고 "난 절에 갔다 왔어." "나는 불교를 믿어."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자기를 알고, 자기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진 걸 알고, 자기로 인해서 공용을 하고 돌아간다는 거를 알아야만이 바로 불교를 아는 것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불(佛)이라는 것은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를 막론해 놓고 다 생명 없는 것이 없으므로 불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말과 말로 전달해서 돌아가게 했고 천차만별 생명들의 모습들이 다 그 나름대로 전달하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이면 미국말 하고 일본 사람이면 일본말 하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 하듯 다 자기네들끼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이 다 말을 하고 전달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특출한 거는 뭐냐? 말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하는 도리입니다. 이게 정신계의, 바로 중용의 진리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전달돼서 돌아가는 이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의사나 과학자나 천체물리학자가 자기소임을 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들을 걸림 없이 타개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거는 일체 우주 삼천대천세계 모두가 가깝고 멀고 가 없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병원만 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학술 이론 등 지금의 지식이나 의

☞26면으로 계속

진흥원필름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 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buddhanews.com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면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모릅니다

☞25면에서 계속

학계의 모든 거를 동원해서 아무리 연구해도 100%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온 줄을 알아야 그 병도 어디서 온 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신계의 50%를 충당할 수 있고, 거기에 물질로써 커버하고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의료상의 50%가 종합돼야 우리가 100%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분야도 그렇고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도 다 그러합니다. 기계 하나를 만들어 놔도 그 사람의 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장승을 하나 세워 놔도 장승 세워 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혼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가고 오면서 보고 생각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거기 투입이 돼서 다 신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조성을 해서 저렇게 모셔 놓으면 그 모습만 봐도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마음을 거기다 다하기 때문에 여래라고 하기도 하고 부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다면 부처님도 안 계신 거고 부처님이 안 계시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내는 것이 없다면 목석이 될 것이고, 체가 없다면 무효일 것이고, 정신계의 근본이 없다면 바로 또 무효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는 아주 높은 데고 낮은 데고 다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부터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에게 '주인공에 관하라' 하니까 자기 빼놓고 주인공이 개별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인공이 있다.' 하니까 '주인공에다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준다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주인공! 당신만이 할 수 있어.' 하고 관해야지 '당신이 좀 해 주시오.' 하면 그것도 기복이지요. 생각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인공은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한 가정을 한데 합쳐서 이끌어 가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듯이, 내 몸속에 있는 일체 생명들과 외부에서 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속에 들어 있는 생명체도 너무 많으니 공생이지 그게 개별적인 자기 생명 하나입니까? 그래서 공생입니다. 내 내면의 세계에, 내 육체세계에 생명이 많이 들어 있는 것만 봐도 공생인데, 나로 인해서 또 혼자 살 수 없는 도리가 외부에 모두 있다 이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있고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가 있듯이, 회장이 있어야 사장이 있고 사장이 있어야 직원이 있듯이 이거는 양면의 한 쪽만 없어도 무효입니다. 아니 됩니다. 작용이 될 수가 없죠. 그럼으로써 혼자 먹는 것도 없고 혼자 버는 것도 없고 혼자 쓰는 것도 없고 혼자 하는 것도 없고, 모두가 혼자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얘기하기를, 공생 공용 공체 공심! 그러니까 주인공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면에, 육체 속에 있는 그 많은 생명들이 저 좋은 대로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달라고 하니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직원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그 직원들이 바로 자기인 것입니다. 자기 수효가 그렇게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혼자 먹는 것도 없습니다. 혼자 보는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결부됐으니까 말입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간장이니 위장이니 심장이니 모든 게 한데 붙어서 정맥 동맥이 그냥 같이 돌아가는데, 혼자 사는 게 어디 있고 혼자 먹는 게 어디 있고 혼자 일하는 게 어디 있고 혼자 했다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자기 일상생활 그대로, 근본과 마음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움죽거리기 때문에 육신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놔라!



이 움죽거린다는 거를 알면 내면의 모든 일체가 다 내 마음에 의해서 움죽거리는 걸 아실 겁니다. 내면에서 마음의 선장이 '이렇게 하자' 하면 전부 따라 줍니다. '좋게 하자' 하면 좋게 따라 주고, '도둑질하자' 하면 도둑질하는 대로 따라 주고. 이렇게도 따라 주고 저렇게도 따라 주는데 그거를 왜 믿지를 못하고, 왜 거기다가 맡겨 놓으라는데 진짜로 맡기질 못합니까? 모두가 자기 아닌 자기인데, 전체가 자기인데 자기 이름을 수효대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포함해서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이름을 한 겁니다.

간장 공장에도 소임자가 있고 위장 공장에도 소임자가 있고, 몸속에 전부 소임을 맡아 가지고 제각기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속도 한 나라라고 친다면 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 바로 마음입니다.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그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습에 끌리지 말고 못한다 한다에 끌리지 말고 단호히 당당하게 모든 거를 믿고 맡겨 놔야죠. 아니, 죽든지 살든지 같이 죽고 같이 살아요. 당신의 영혼의 근본이 떨어지면 당신도 송장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 몸속에 들어 있는 생명들도 다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마음이 진짜 내 모든 생명의 의식들하고 통한다면 자기가 자기 죽이려고 하진 않습니다. 누구든 자기가 자기 죽이려고 나쁘게 하는 법 보셨습니까? 자기가 살 양으로 나쁜 짓도 하고 좋은 짓도 하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그 관습에 얽매이게 하지 말고, 또 안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네가 한 거니까 네가 그렇지 않게도 할 수 있잖아!' 하고 다시 놓는 것이 자생중생을 제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말로 하자면 복잡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업식이 돼 가지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정자 난자에 포함돼 가지고 자기 영혼에 다 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세계에서 화가 나고 미운 사람 이쁜 사람이 있고, 죽이고 싶은 심정이 들거나 화가 나서 '에이 그, 죽어 버리겠다.' 하는 생각이 나거나, 다 그냥 흘쳐 버리고 어디로 가고 싶거나 하는 것들이 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나올 때마다 거기다 다시 입력을 해라 이겁니다. 생명의 의식들은 바로 한 집에, 한 독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마음이 선장이 돼 가지고 잘 다스려 나가면서 제도를 해야 '아래로는 제 중생들을 제도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아래로는 자생중생 자기를 제도하면서 위로는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둘이 아닌, 자기 주인공과 둘이 아닌 도리를 항상 잊지 말 것이니….' 하는 거죠. 이 모두가 습득이 돼서 잘 아신다면 참자유인이 될 겁니다.

진짜 떼려야 뗄 수 없는 자기 뿌리를 믿는 것인데 왜 못 믿습니까. 누가 형상을 믿으랬나요, 이름을 믿으랬나요, 허공을 믿으랬나요, 어느 스님의 고깃덩어리를 믿으랬나요?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모자라든지 모자라지 않든지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있는 거니까 바로 자기 뿌리를 믿고 거기에 다 놓으라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는 체가 없다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체가 없는 자기의식들이 너무 많아서, 한마음에 그 의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즉 어느 회사에 직원들이 수천수만이라면 회장님 한생각에 직원들이 다 움죽거리게 됩니다. 안 그럴까요? 이거 하라는데 저거 할까요? 그러니까 한 회장님으로서, 사장님으로서 의논을 하고 모두와 조화롭게 한번 결정을 해 놓는다면 모두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렇듯이 내가 한번 과감하게 생각을 했다면 그대로 거기에 믿고 놔야만이 결정적인 결재를 하는 겁니다.

결재를 해서 내려야 모두 작용을 해 주는 겁니다. 안에서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포 하나하나에는 우주간 법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다, 즉 말하자면 모든 걸 채근해서 좋은 거는 들이고 나쁜 거는 내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바로 대기권이 있습니다. 우리 몸뚱이도 지구의 대기권과 같이 세포 하나하나에서 모두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오는 거를 다 채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결정을 내리면 결재가 된 거와 같아서, 바로 마음에서 그럭하면 두뇌로 통신이 돼 가지고 사대로 통신이 돼서 전체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안에서는 안에서대로 결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에 고장이 났을 때는 안에서 모자라는 것은 뭐든지 다 보급을 해서 채웁니다. 호르몬도 모자란다면 채워 가면서 작용을 합니다. 또 바깥의 일들이 위태롭게 될 때는 바로 세포의 법계에서 의식들이 나가서 바로 마음과 마음속으로 들고 남이 없이 들고 나면서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일체 만법은 다 한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한마음에서 이루어지는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정리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무슨 이유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

단호히 당당하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놔라!



지 못하는 것은 자기 몸뚱이가 자기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뚱이가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 많아서, 이름도 많고 의식도 많은데 많은 그게 하나로 뭉쳐서 한마음으로 선장이 돼 있다는 사실이며, 그 뿌리가 바로 선장과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믿지를 못하고 그렇게 허왕지왕 허왕지왕 해 가지고 업식 무명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자꾸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을 막습니까.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인 것을 그렇게 애탄지탄 착이 갑니까? 지금 가다가 죽으면 어떠며 지금 조금 덜 먹으면 어떠며 더 먹으면 어떠며, 더 살면 어떻고 덜 살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사실 의향이 있다면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세련된 옷을 착 입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더 세련된 옷이 생겼어요. 그게 새로이 유행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벗고 그것을 좀 입어 봐야겠다 이럽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와 같습니다. 죽으면 아주 죽는 게 아니고 사대가 흩어져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점에서 다시금 생산이 되는 겁니다. 다시 생산이 돼서 다시 새로운, 즉 말하자면 유행되는 옷을 입고 다시 나오죠. 그런데 왜 그 구식의, 유행이 지난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게 떨어질까 봐, 그거 벗겨질까 봐 그냥 애씁니까? 내 마음대로 유행하는 옷을 입고 나올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리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니까 또 오래 살게 되는 거죠.

내가 길을 걷거나 절 안에 앉아 있거나 하더라도 한숨이 훅 그냥 맥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개가 뚝 떨어집니다. 내가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먹고 안 먹고 또는 죽고 살고, 이런 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고 그렇게 많은 생명들을 자기가 집합소가 돼 가지고 끌고 다닌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리고 혼자 먹지도 않는 거를 혼자 먹는다고 하고 혼자 줬다고 하고 혼자 산다고 하니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혼자 먹었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많은 생명의 의식들이 '너 혼자 먹었으니까 혼자 알아서 해라'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걸려도 누가 손 한 번 대 주지 않아요. 한마음으로 도와주질 않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자기가 혼자 잘났다고 까분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지경에 이르러도, 어떻게 죽게 돼도 손을 안 대 준단 말입니다. '너 혼자라고 만날 떠드는데, 내가 이렇게 만날 작용을 해 주고 이래도 너 혼자라고 그러는데 혼자 잘 해 봐라'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덕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조금도 에누리가 없는 세상입니다. 남이 미워서 속에다가만 넣고 그냥 말로는 그런 대로 해 나가곤 있지만 속에다가 '조놈 두고 보자!' 하면요, 그쪽에서도 역시 '너 요놈 두고 보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둘이 아닌데 뭐, 예전에 몰랐을 때의 내 모습과 같지. 둘이 아니야.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밖에 없잖아.' 하고 거기다 맡겨 놓으면 그쪽에서도 역시 아름다운 마음으로써 외려 회개를 하고 "아휴, 내가 전자에 자네한테 참 잘못했어. 참 미안해. 살다 보니까 새록새록 생각이 나." 하고 마음이 아주 더 측은하고 참답게 진실한 친구로서 대하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가족끼리도 그렇지 못하게끔 울그락불그락하고 야단들이니 어떻게 화목을 찾을 수 있으며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3년 9월 19일 광명선원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14주년을 전 종도의 마음으로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대표회장 회암 (재단법인 미타종 총무원장)
부 회 장 현산 (대선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산수 (대한불교 사암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성일 (대한미타 조계종 총무원장)

이 사
혜상 (대한불교화엄조계종총무원장) 정산 (세계불교해동원효종총무원장) 도선 (생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광 (세계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혜명 (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청원 (대한불교 불광종 총무원장)
향운 (세계불교 법사종 총무원장) 법달 (대한불교 용화종 총무원장) 성우 (세계불교 법왕종 총무원장)
운공 (대한불교 홍재종 총무원장) 법우 (조계종 정토불교 총무원장) 청호 (대한불교 연화종 총무원장)
일원 (대한불교법화여래종총무원장) 탄공 (한국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삼일 (대한불교 임제종 총무원장)
동선 (대한불교 법왕종 총무원장) 회범 (대한불교 선종 총무원장) 혜공 (대한불교대승연화종총무원장)
혜일 (대한불교미륵선종총무원장)

감 사
기산 (한국불교조계선종종회의장) 융호 (한국불교 인왕종 총무원장)



■ 총무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112-39 진영빌딩 4층
전화 02)3436-0796 / 팩스 02)2201-1163

중국 삼삼구 불기공 지도자 모집

◆대상 : 스님, 법사, 최면사, 심령 치유사
천지 대 우주와 대통하는 수련법 전수
중국 최고 소림 기공사
1. 빙의 퇴마 치유하는 기공법
2. 온, 냉기를 발사하고,
3. 기를 쏘아 부황을 뜨고,
4. 맨손의 기를 은 박지를 통해 볼수 있으며,
5. 손에 은 박지를 붙여놓고 기를 쏘면 손이 덴다.
6. 신문지를 이용해 기가 나가는 것을 볼수 있으며,
7. 현재 10여명의 심리치료사 수련생들이 놀래고
8. 현재 수련하는 최면사들이 찬탄을 아끼지 않고
9. 현재 수련하는 빙의 치료 스님들이 감탄하는 신비의 기공 삼삼구 신비 불기공의 효력
※ 피부미용, 비만, 빙의, 귀신병, 정신병, 간질, 허약자,정신산만자, 중풍초기환자, 초기치매자, 병명없이 아프신 분, 가슴 아프신분, 눈이 침침한분

<< 웰빙 최고 건강법 3개월과정 >>

◆오후반 : 13시 ~ 15시까지 주 2회 월,목요일
◆일요반 : 14시 ~ 18시까지 주 1회
◆저녁반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 9시까지
※ 스님되실분 행자모집, 사찰등록 환영

사단법인 대한 선행불교 조계종 총무원
부설 : 삼삼구 불기공 총연합 본부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09-1(5호선 명일역 3번출구)
02)3426-0533, 011-9092-0533

"하기 책자는 스님들께만 보내드리는 책자입니다"
[무료]

※ 본 책자는 현재 사찰을 운영하시는 스님들을 통해서 스님의 신도들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책자입니다. 먼저, 스님께 1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생전예수재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 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란 무엇인가?
② 생전예수재를 지내면 얻게되는 공덕은 무엇인가?
③ 생전예수재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져 왔는가?
④ 현재의 생전예수재 의식과 절차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⑤ 새로운 차원의 생전예수재 의식 그 방법과 방편은 무엇인가?
⑥ 새로운 예수재 그 의식과 절차에 대한 설명.
⑦ 새로운 예수재는 언제 어떠한 경우에 지내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⑧ 생전예수재 49재 기도의식처 조성의의.
⑨ 부록 : 십이생상속(十二生相屬) 백팔대참회문.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 Fax 031)768-8413



불자 세상보기

김 징 자
칼럼니스트

소는 누구를 위해 울것인가?

소가 가장 즐겨먹는 풀은 토끼풀, 즉 클로버라 한다. 크고 두툼한 입술에 샌드페이퍼 같은 널찍한 혀를 그토록 조그마하고 연한 풀잎에 대고 한 움큼씩 물어뜯어 우물거리며 천천히 씹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소에 대한 인식이 보다 더 부드러워진다.

미국의 저술가 마이클 폴란이 쓴 <잡식동물의 딜레마>를 보면 소가 들판에서 선호하는 풀의 우선순위 첫째가 토끼풀이고, 토끼풀을 다 먹은 다음 벼과에 속하는 김의 털, 오리 새, 큰조 아재비 등을 향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시골에서 소를 놓아 먹이는 몇몇 농부들 이야기를 들으면 소는 토끼풀을 먹지 않는다.

어쩌면 우공(牛公)들에게도 대륙에 따른 미각, 또는 식문화에 차이가 있는 것일까? 아직 목축업에 대한 폭넓은 확인을 하지 않아 자신은 없다.

하지만 '잡식동물의 딜레마'는 필자가 자연축산업의 현장에서 1주일 현장 체험한 것을 쓴 기록이니 믿을만하지 않은가.

토끼풀에는 질소가 풍부한데 이 질소가 소의 반추위에 사는 독특한 박테리아와 만나 질 좋은 단백질을 만들어 낸다. 그것은 소가 원하는 일이기도 하고 소를 식용하는 인간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잡식동물의…>에는 그 질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모든 생명은 질소에 의지하고 있으며 자연은 질소를 재료로 아미노산 단백질 핵산 따위를 만들며, 생명에게 지시를 내리고 삶을 지속시키는 유전정보역시 질소 잉크로 씌어져 있고, 탄소가 생명의 양을 규정한다면 질소는 생명의 질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질소비료가 대량 보급돼 거의 없어진 것이긴 하지만 한국 재래 농법에도 한 해 아니면 두해 걸러 밭작물로 콩을 심곤 했다. 콩 뿌리에 있는 박테리아가 토양에 질소를 보급해 주기 때문이었다.

한여름의 잦은 천둥번개 역시 공기 중 질소를 고정시킨 '질소 비'를 내려 농사를 돕는다. 자연의 신비한 혜택이 아닐 수 없다.

그 좋은 질소를 과학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은 인류에게 희망이었으며 또한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이었다고 '잡식동물의 딜레마'는 지적하고 있다.

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멜라민 우유 역시 질소로 단백질을 위장해 문제를 일으켰다.

공업용 화학물질인 멜라민에는 질소가 많다. 식품 단백질 함량을 쉽게 재는 방법이 질소함량을 재는 것이므로 우유에 물 타서 양을 늘리고 여기에 질소가 많은 멜라민을 넣어 마치 단백질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이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다.

양질의 단백질은 소가 소다운 대접을 받으며 들판에서 좋아하는 클로버를, 그리고 벼과와 콩과에 속하는 여러 잡초들을 마음껏 즐기며 연신 트림과 방귀를 시원하게 방출하면서 만들어 낸다.

하지만 쇠고기의 효율적 대량생산을 위한 축산의 산업화로 지금 세계적으로 소다운 대접 받는 소는 아주 드물다. 뿐인가? 소의 되새김질로 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트림과 방귀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인간들은 그 트림 방귀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마치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굴뚝을 틀어막자는 이야기와 같다. 평균수명 15년이 넘는 소를 3년 안에 잡아먹어야 한다는, 그래서 대부분 요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소들은 앞으로도 소다운 대접은커녕 계속 고문과 같은 생을 살 수밖에 없다.

미친 소 파동에 물과 화학물질을 탄 우유. 이렇게 훼손되는 자신을 보며 아무래도 소들은 올해 그 순한 눈가로 눈물을 흘려 내릴 것 같다.

피모대각(被毛戴角),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성스러운 서원을 세운 생물만이 소로 태어날 수 있다 한다. 소들이 지금 눈물을 흘린다면 분명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날로 증폭되는 인간들의 탐욕을 안타까워하며 흘리는 슬픈 눈물일 것이다.

마음공부의 道… 밖에서 안으로 자성 관하라

마음 수행을 하는 것은 도(道)를 찾는 것이라고 한다. 고통과 문제가 많은 인생길에서 흔히 경계에 걸려 넘어지기 쉽다.

그럴 때 원인을 경계 탓으로만 돌린다면 결코 빠져나오기 어렵다. 그 경계를 만들어낸 내 마음 속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때에야 비로소 바른 해결책도 찾아질 수 있는 것이다. 커시가 지은 <다섯 편의 짧은 자서전>을 괄호 안에 마음공부로 해석해 보았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㊽ 나는 어떻게 길을 걷고 있는가

<다섯 편의 짧은 자서전(수행일지)>

1. 마음공부 이전
나는 길을 걷고 있다(나는 삶을 살아간다).
보도에는 깊은 구멍이 나 있다(살다보니 문제가 발생한다).
나는 거기에 빠진다(내 마음은 문제에 끄달리고 집착한다).
나는 길을 잃고 무력감에 젖는다(마음의 중심을 잃으니 힘이 없다).
이것은 나의 실수가 아니다(내 탓이 아니다).
구멍 탓이다(밖의 경계 탓이다).
구명을 빠져나올 방법을 찾기는 힘들다(문제 해결은 어렵다).

2. 마음공부 시작
나는 길을 걷고 있다(나는 삶을 살아간다).
보도에는 깊은 구명이 나 있다(살다보니 문제가 발생한다).
나는 그 구멍을 보지 않으려고 애쓴다(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한다).
나는 다시 구멍에 빠지고 만다(끄달리고 집착한다).
내가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을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이것은 내 실수가 아니다(내 탓이 아니다).
구멍 탓이다(오로지 밖의 경계 탓이다).
구멍을 빠져나오는 데는 여전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한참 고통을 겪는다).

3. 마음공부 초기
나는 같은 길을 걷고 있다(나는 또 삶을 살아간다).
보도에는 깊은 구멍이 나 있다(여전히 문제가 발생한다).
나는 그것을 본다(문제를 인식한다).
나는 여전히 구멍에 빠지고 만다. 습관 때문이다.
나는 눈을 뜨고 있다(조금씩 마음의 눈으로 본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집착 없이 관해본다).
이것은 나의 실수다(드디어! 내 탓이다).
나는 곧바로 그곳을 빠져나온다(금방 경계에서 빠져나온다).

4. 마음공부 중기
나는 같은 길을 걷고 있다(나는 또 삶을 살아간다).
보도에는 깊은 구멍이 나 있다(여전히 문제는 생길 수 있다).
나는 구멍을 돌아서 간다(이젠 문제가 닥치지 않게 마음을 돌려서 쓴다).

5. 이제 공부 좀 한다.
나는 이제 다른 길을 걷는다(이제 삶이 달라지고 있다. 예전의 내가 아니다).
당신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지금 닥친 문제 누구 탓인가요)?

부처님께서는 밖으로 끄달리는 마음을 안으로 돌려 자성을 관하는 것이 마음 수행의 시작이라 하셨다. 자살사건이 계속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며 "나의 근본 마음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라는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다가온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社說

총장 퇴진론 일고 있는 동국대

동국대학을 어찌하나? 조계종 종립대학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최근 동국대 교수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때문이다. 오영교 총장의 '지도력'을 중점적으로 물은 이 설문조사에서 교수들은 오 총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설문결과를 토대로 총장퇴진운동을 전개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고 한다. 동국대가 또 한번 세상을 향해 추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몹시 걱정스럽다.

2007년 3월 취임 이후 '108 프로젝트' 등을 내세우면서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던 오영교 총장의 개혁 드라이브는 '신정아 사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궤도이탈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임기의 중간 지점에 서 있는 지금, 오영교 총장은 하루라도 빨리 그 수렁을 벗어나 동국대학을 100년 명문사학으로 일으켜 세우라는 주문에 부응하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다.

누구 탓인가? 종단과의 관계를 포함한 시운을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개인의 능력부족을 꼽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이사회의 난맥상을 들춰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 탓'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동국대의 설립주체인 조계종은 물론 현재의 학교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지금 동국대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100년 사학의 전통을 미래 100년의 비전으로 창출해 내지 않으면 날로 척박해져 가는 교육환경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워진다. 대승적인 결단, 원융의 정신, 상생의 지혜가 동국대를 살릴 키워드일 것이다.

'문화재보존 예산 축소' 말 되나?

정부예산은 올해에 비해 6.5% 올랐는데 문화재보수 예산은 10%가 줄어들었다. 동산건조물문화재보존 예산도 16.9%나 축소됐다. 문화재청의 내년도 예산도 금년에 비해 1.5%가 줄었다.

우리는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면서 올 한해를 시작했다. 그래서 문화재의 소중함과 보존관리의 중요성을 어느 때 보다 절감한 해이기도 하다. 그런데 내년도 문화재청 예산이 줄어들었고 문화재 보존 관련 예산도 축소된 것이다. 물론 문화재청의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숭례문의 교훈'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비친다. 목조문화재 재난 방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이 책정됐고 사업계획도 뚜렷하다. 문화재 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에 대한 의지도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재청의 예산이 보이는 것에는 신경을 썼지만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은 듯 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화재의 보존 관리와 관련된 예산의 축소는 관련 업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문화재는 전적으로 보존과 관리의 대상이다. 그런데 그에 따른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관련 업무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의도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어긋난 예산 반영이 묵과되고 난 뒤 제2의 숭례문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개혁 등불 밝혔으나 '횃불' 되지 못한 채 '촛불'로 스러져

56 추존왕 문조와 신정왕후 – 수릉

문 조 1809 ~ 1830 (22세)
신정왕후 조씨 1808 ~ 1890 (83세)


종묘제례에서 팔일무를 추고 있다.

'춘앵전' '가인전목단' 창작, '고구려무' '향령무' 등 궁중무용 복원
"요절하지 않고 여법하게 등극했다면 조선 운명 달라졌을 것" 평가

'이영→효명세자→익종→문조' 효명세자에 대한 호칭 변천사다. 22세에 요절한 위인치고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력서가 복잡하면 그만큼 인생이 파란만장하다는 의미다.

효명세자는 역대 국왕 중에 가장 예술적, 문학적 조예가 깊고 뛰어났으며 무엇보다도 춤을 사랑한 왕이었다. 그러나 그의 춤 사랑은 기울어지는 국운을 털고 일어서는 살풀이춤이 되지 못하고 허약한 촛불춤으로 끝났다. 활활 타오르는 활화산이 돼 부패를 태워버리고 조선의 기강을 굳게 세울 장수를 기대했지만 그는 낭만적 예술가 기질이 한계였다.

효명세자는 순조와 순원왕후 사이의 제1자로 태어나 순조 12년(1812) 4세에 왕세자로 책봉됐으며 순조 27년 2월 18일부터 30년 5월 6일 급서하기 전까지 약 3년 3개월 동안 대리 청정을 했다. 그는 당시 안동 김씨 세도 정치세력을 억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순조의 염원과 기대를 한 몸에 지고 부왕의 명을 받들어 대리 청정을 했다. 대청 동안에 아버지 순조의 정치적 염원을 거의 가시화하는 탁월한 정치적 역량을 증명해보였다.

대들보와 기둥이 썩어 뿌지직 소리가 나는 조선에 희망이 보였다. 그러나 희망은 곧잘 희망사항으로 끝난다. 사가(史家)들이 입을 모아 애석해하는 조선의 두 세자가 있으니 소현세자와 효명세자다. 그들이 요절하지 않고 여법하게 등극했다면 조선의 운명이 달라졌을 거라고 말한다.

효명세자는 예악 정치의 일환으로 궁중 연향과 춤을 다루는 고도의 무용정치를 펼쳐 효율적으로 안동 김씨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는 장치로 활용했다. 당시,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악정(樂政)이 중단돼 정재(궁중무용)의 창사조차 제대로 전해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궁중 연향을 통해 왕이 중심이 되는 정치 질서를 과시하고 왕실의 위엄과 존왕 의식을 표명하는 정치의식 양식화를 꾀했다. 예나 지금이나 거창한 군사 퍼레이드, 성대한 잔치는 권력 과시의 수단이다.

그리하여 짧은 통치 기간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이 화려한 황제식 궁중 연향들을 벌이면서 궁중 무용의 창사와 가사를 직접 지었다. 연향에 쓰이는 치사와 전문을 직접 지어 올리고 이름만 남은 옛 정재들을 자신의 악장으로 되살려냈다. 더불어 연향의 규모를 확대해 왕실의 위엄을 한껏 드러내는 화려한 정재와 연향의 양식을 확립했다.

꾀꼬리가 노는 것을 보고 창작한 <춘앵전>, 모란꽃을 들고 춤을 추는 대표적인 궁중무용 <가인전목단>을 직접 창작하고 <고구려무> <향령무> <장생보연지무> 등의 궁중무용을 복원 및 집대성했다. 그리하여 효명세자는 조선 후기 궁중 연향과 정재 양식을 새롭게 정립했으며 이는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그는 대청을 시작한지 3일 만에 자신의 하례식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안동 김문 계열의 전 · 현직 예조판서들을 감봉 처리했다. 대리 청정 말기에 이르러서는 안동 김씨 세력을 정치적으로 거의 제거하고 자신의 통치기반을 확고히 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었다.

여러 차례 큰 궁중 연희를 개최하면서 행사를 총괄하는 진찬소의 당상에 김조순에 맞섰던 박종경의 아들을 임명해 안동 김씨 세력을 견제했다. 효명세자는 연향에 쓰일 정재들을 창작하면서 이름만 전해오던 춤들을 모두 자신의 신작(新作)으로 되살려 내었을 뿐 아니라 전대로부터 전승돼오던 정재들도 다시금 화려하게 채색하고 무용수들의 수도 늘려 웅장하고 화려한 대규모의 연희를 열었다.

그리고 중국에서 유래한 당악 정재를 향악화하고 당악 정재(唐樂呈才)와 향악 정재(鄕樂呈才)간에 있었던 형식적, 내용적 차이를 불식시켰다. 이는 단지 중국에서 유래한 당악적 요소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춤이 중심이 되는 향악 정재의 예술적인 장점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 효명세자는 자신이 대리 청정한 3년여의 짧은 시기를 통해 조선 궁중 정재의 수준을 정점으로 끌어올려 정재를 왕궁 문화의 꽃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조선조 궁중 정재의 황금기를 이루었다. 그 결과 효명세자는 조선조 말까지 전해지는 53종의 궁중 정재 중 26종의 정재를 직접 예제하고 재창작했을 뿐 아니라 조선 후기의 궁중 연향과 정재 양식을 새롭게 양식화하고 정비, 확충해 조선 궁중무용의 절정기를 이루었다.

그리고 조선조 초기의 정재들이 왕권 창업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도구로 쓰이던 정치적 색채를 퇴색시키고 효명의 문학작품 세계가 지녔던 자연 대상과 사물들을 본 뒤의 감흥을 춤으로 묘사하거나 자연의 풍경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춤 그리고 이제까지 궁중 정재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던 독무 형태의 춤도 등장했다. 창사 없이 전문적인 기교를 선보이고 시각적인 흥겨움을 강조하는 스펙터클한 성격의 정재도 늘어나 궁중 무용의 주제와 소재가 다양해지고 표현 방식과 춤 형식 역시 다양해져서 예술적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

나아가 공연 구성에 있어서도 향악 정재의 비율을 당악 정재에 비해 월등히 높이고 조선적인 주제를 들여오는 등 내용과 형식 양면에서 궁중무용의 진경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그는 궁중무용단장이 아니라 예비 국왕이었다. 예술을 사랑하는 것으로 자격이 충분한 무용인이 아니라 조선의 운명을 거머쥔 예비 선장이었다. 그리고 그는 요절했다. 미인박명(美人薄命)은 남자에게도 적용되는가. 스물 두 살 청년 효명의 죽음에 대한 이유는 어디에도 기록이 없다. 연고 없는 노숙자가 죽어도 타살(他殺)인가, 동사(凍死)인가, 아사(餓死)인가를 밝히거늘 영명한 세자가 왜 요절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없다. 결국 독살설에 기대야하는가. 나라 밖에서는 현란한 신문물이 범람했지만 조선의 19세기는 장막 쳐진 고인 웅덩이였다.

함께 묻힌 신정왕후는 풍은부원군 조만영의 딸로 순조 19년(1819)에 세자빈에 책봉돼 슬하에 헌종(憲宗)을 생산했다. 신정왕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익종(翼宗)이 요절함으로 인해 외로운 일생을 보냈지만, 그보다는 국가 권력의 정상에 군림해 정치적으로는 화려했다. 83세까지 천수를 누리면서 조선 후기 정국을 좌지우지한 여장부였다. 남편이 익종으로 추대되자 왕대비에 올랐고, 철종이 승하한 후에는 대왕대비가 되어 왕실의 권한을 장악했다.

안동김씨 세도정권의 중심이었던 순조의 비 순원왕후가 승하하자(1857년, 철종 8년) 새로운 세도정권 세력으로 풍양 조씨가 권력을 잡게 되는데, 결정적 요인은 헌종의 외척 세력이 바로 풍양 조씨였던 것이다.

풍양 조씨 세도정권의 중심이었던 신정왕후는 철종이 후사없이 승하하자 철종의 후계자 결정에 권한을 쥐고 평소 친분이 있었던 종친 이하응을 권력의 핵심부로 끌어들여 고종의 왕위 승계를 주도했다. 결국 신정왕후는 어린 고종을 대신해 수렴청정을 하면서 권력을 흥선대원군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했다.

글=이우상(소설가 asdfsang@hanmail.net)
사진=최진연(사진작가)



긴 얼굴의 문인석(위), 수릉 전경(아래).

수릉(綏陵)

순조의 아들이자 헌종의 아버지 추존왕 문조와 비 신정왕후 조씨(神貞王后趙氏)의 합장릉이다. 수릉은 몇 차례 능지(陵地)가 옮겨지다가 현 동구릉 경내로 자리 잡았다. 세자 신분으로 죽자 무덤을 20대 경종과 계비 선의왕후를 모신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의릉(懿陵) 옆에 조성했다. 헌종 12년(1846) 길지로 옮기자는 논의에 따라 양주군 용마산 기슭으로 천장했다. 그 후 철종 6년(1855) 현 위치인 태조 건원릉 옆으로 천장하면서 동구릉의 마지막 아홉 번째 능이 됐다. 이로 인해 동구릉이라는 명칭이 정착됐다. 문조(文祖)라는 시호로 불리는 것은 대한제국 성립 후 1899년 황제로 추존되면서 문조익황제라 칭한 것에 연유한다.

22세의 나이로 요절한 익종과는 달리 83세의 장수와 권력의 정상에 있었던 신정왕후는 고종 27년에 승하해 수릉에 합장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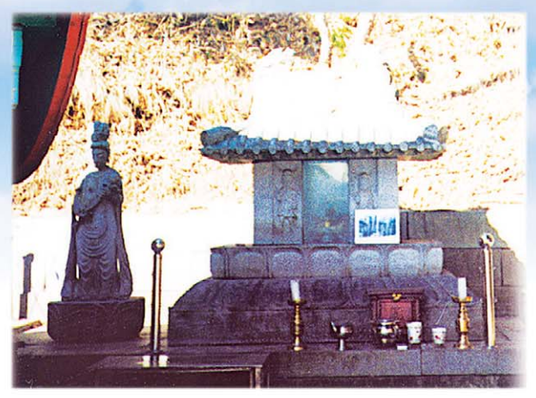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2 (동구릉 경역) 소재. 사 적 제193호.

설악산 동해사 감로법비 16주년 기념 대법회

동해사에 내리는 감로 법비를 아십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992년 법비와 광명이 내린 이래 매년 그달 2시에는 여지없이 40여일 동안 매년 법비광명이 수년째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동해사 불탑사에서는 매일 기도정진과 초청기도 법회에 1일 수회씩 개최하고 있으며 철야정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이렇게 신비스러운 도량에 불자님의 동참을 초청하며 사찰단위의 법회도 환영합니다. 이 성스러운 전세계에서 만나기 어려운 법비 광명의 광경을 친견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 망울!
밤에도 낮에도 아 성스러운 광명이여!
아 이 신비스런 법비의 광명이여!
우리의 소원을 섭수하소서!
아 부처님 부처님이시여!
나에게도 부처님의 광명을 내려주소서.



감로법비 16주년 기념 대법회
[2008년 10월 29일 오후 1시]
◇ 1부 : 연예인 초청 경로 대잔치
◇ 2부 : 각 종단 종정 큰스님 초청 기념 대법회
◇ 3부 : 수계산림 대법회
※ 식사 및 숙식 무료제공 (예약을 요함)

법비광명 축제 및 기도기간
◇ 매년 10월 29일 – 11월 29일 철야기도

동해사 :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 033)672-2900. 2911 / 불탑사 033)671-7751